

차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iii
주석:	
히브리서 서론	1
히브리서 1 장	7
히브리서 2 장	23
히브리서 3 장	42
히브리서 4 장	62
히브리서 5 장	73
히브리서 6 장	80
히브리서 7 장	91
히브리서 8 장	102
히브리서 9 장	110
히브리서 10 장	128
히브리서 11 장	151
히브리서 12 장	163
히브리서 13 장	177
부록 1: 헬라어 문법 구문의 간략한 정의	193
부록 2: 본문비평	201
부록 3: 사도시대에 속하는 랍비들의 해석학 및 그 해석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	204
부록 4: 교리적 선언	213

히브리서의 특별주제 목차

이 세대와 오는 세대, 1:2	9
조명, 1:5	14
장자, 1:6	15
영원한, 1:8	16
의, 1:9	17
성경에서의 기름부음, 1:9	20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동사 시제, 1:14	21
보증, 2:2	25
하나님의 이름, 2:7	28
밥의 복음적 편향, 2:9	32
저자/지도자(<i>아르케고스</i>), 2:10	33
성화, 2:11	34
교회(<i>엑클레시아</i>), 2:11	35
무효의 및 무효로 하다(<i>카탈케오</i>), 2:15	36
사탄, 2:15	37
대제사장이신 예수, 2:17	39
“시험”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들과 그 의미, 2:18	40
부르심을 받은, 3:1	44
고백, 3:1	44
소망, 3:6	46
삼위일체, 3:7	48
마음, 3:8	49
날(<i>유</i>), 3:8	50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 3:10	52
인간으로 묘사된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3:11	53
배교(<i>아피스테미</i>), 3:12	55
그리스도인의 확신, 3:14	58
<i>아르케</i> , 3:14	60

하늘들, 4:14	68
인내의 필요, 4:14	69
영원한, 6:2	83
새롭게 함(<i>아나카이노시스</i>), 6:6	85
성도, 6:10	87
신자의 유업, 6:12	88
끝 혹은 가득한(<i>텔로스</i>), 7:11	94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할 것 없는, 7:26	98
형식(<i>튀포스</i>), 8:5	105
언약, 8:6	106
언약계, 9:4	112
하나님의 이름, 9:14	118
속량하다/구속하다, 9:15	121
담대함(<i>파레시아</i>), 10:19	135
불, 10:27	140
하나님의 아들, 10:29	141
인내의 필요, 10:35	144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 10:38	146
두 도시, 11:10	156
회개, 12:17	171
하나님의 왕국, 12:28	175
<i>코이노니아</i> , 13:16	184
영원히, 13:20	186
하나님의 뜻(<i>셀레마</i>), 13:20	188
아멘, 13:21	189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요하지만 이를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⁴).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⁴)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름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좌절,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들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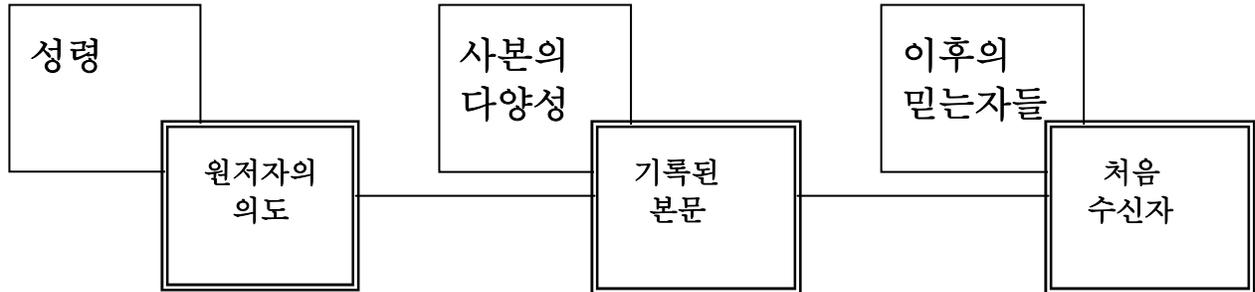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문서 간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과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세계성서공회 헬라어 본문, 제 4 개정판(UBS⁴)
2.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3. 뉴킹제임스역(NKJV)
4. 신개정표준역(NRSV)
5. 현대영어성경(TEV)
6.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히브리서 서론

시작에 앞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

내가 이 책을 연구하면서 확인하는 사실은 나의 신학이 점점 더 바울신학에 의해 다듬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신약의 다른 여러 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바울신학의 범주에 넣어 다루려는 경향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진 바 영감받은 생각을 다원적으로 제시함에 있어서 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적인 믿음에 직면하여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법적 지위(믿음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될 충성된 삶으로 제시한다(11-12 장).

내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씩씩하고 있는 여러 질문이 이 책의 저자가 결코 하지 않았던 질문(또 베드로도 야고보도 하지 않은)이 될까봐 두렵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모든 책들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저자의 말로 인해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심지어 저자가 내가 즐겨 사용하는 범주의 말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한 범주의 사용에 근본적으로 지장을 줄 때에, 나는 반드시 저자가 말하게 해야만 한다. 내가 가진 조직신학으로써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가 전한 메시지를 대체하는 일을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나의 신학적 교조주의를 회개하기를 원하며 또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신약적 긴장 안에서 살고자 한다! 내가 가진 오늘날의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가지고 내가 신약을 이해하게 될까 두렵다. 나는 성경의 약속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 공급하심, 능력으로 지키심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기 원한다; 그럼에도 나는 신약의 저자들이 선언하는 강력한 경고와 요구를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나는 참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하지만 이 일은 내게 아주 고통스럽다! 나는 이 긴장에 대해 잘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내게는 '완전히 거저로 받는 구원'과 '모든 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지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면이 만나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다 선을 그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귄은 믿음으로써 최초의 응답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써 계속하여 응답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말은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믿음은 기계적인 작용(은혜가 이렇다)이 아니라 증거이다. 신자가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는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고 오직 구원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는 것이다. 만일 믿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며 신자의 견인도 보장되지 않는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아신다.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이 초기에 하는 신학적 주장에 확신이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확신의 삶이 수반된다

히브리서를 어떤 조직신학적 틀(그것이 칼빈주의이든 알미니안주의이든)에 대한 신학적 각주로 전락시키지 않고 영감받은 이 책의 저자가 분명히 말하게 하는 일이 나의 기도제목이다.

서론적 통찰

- 가. 이 책은 랍비들의 해석학을 사용하여 해석한 구약 본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제시한다. 원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날의 서구적 사상이 아닌 제 1 세기의 랍비적 유대교에 비추어 이 책을 해석해야 한다.
- 나. 이 책은 설교처럼 시작하여(인사나 전형적 인사말이 없음) 편지처럼 끝맺는다(13 장은 바울이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끝맺음과 같음). 이것은 회당에서 행한 설교를 편지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자신의 책을 13:22 에서 “권고의 말”로 부른다. 이같은 구가 행 13:15 에 있는 설교에서도 사용되었다.

- 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에 새 언약적 설명을 통찰력있게 한 책이다:
 - 1. 구약에 대한 권위주의적 입장
 - 2.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함
 - 3. 신약의 책들만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름
- 라. 이 책은 떨어져 나감(“뒤로 물러감,” 참조, 10:38) 혹은 유대교로 돌아감에 대한 경고로 가득차 있다(즉, 2,4,5,6,10,12 장; 참조, *쉽지 않은 구원*, R. C. 클레이즈 Jr. Insight 출판사).
- 마. 비록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이 구원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강조함으로써 처음 믿는 것이 구원을 보장한다고(즉, 롬 4 장) 주장하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및 요한이서는 새 언약에 대해 책임있게 지속적으로사는 것을 강조하며 변화된(또 변화되고 있는) 매일의 삶에 의해 구원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는(참조, 11 장)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때 구원의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은 이러한 관점들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려는 경향을 가진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한 분의 신적 저자이신 성령에 의해 기록한)은 이러한 관점이 가진 긴장을 유지시키며 세 가지를 함께 진리로 제시한다. 구원의 보장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활력있는 믿음의 부산물일 뿐이다.

저자

- 가.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초기에 속하는 여러 영지주의 저서(즉, *진리의 복음*, *빌립복음*, *요한의 묵시*)는 이 책의 내용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이 책이 제 2 세기의 권위있는 기독교 저서의 하나로 여겨졌음을 나타낸다(참조, 안드레아 험볼드, *낙 함마다 영지주의 본문과 성경*, 91 쪽).
- 나. 초기의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책으로 제시함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방교회(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바울이 저자임을 받아들였다. 이 사본은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로 불리며 2 세기 말에 필사된 사본이다. 이 사본은 히브리서를 로마서 다음에 둔다. 알렉산드리아의 일부 지도자들은 문학적 입장에서 바울의 저작설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였다.
 -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주후 150-215 년,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내용)는 이 책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고 말한다.
 - 2. 오리겐(주후 185-253 년)은 이 책의 사상은 바울의 것이지만 누가나 로마의 클레멘트같은 후기의 추종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한다.
- 다. 이 책은 서방교회가 받아들인 바울서신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이것은 무라토리안 단편으로 불리며 주후 180-200 년 경에 로마에서 작성한 신약의 정경목록임)
- 바. 우리가 저자에 대해 아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그는 두 번째 세대에 속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이 분명하다(2:3).
 - 2. 그는 70 인역으로 불리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에서 인용했다.

3. 그는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진 예식이 아니라 고대에 회막에서 행해졌던 예식의 절차를 가지고 말한다.
 4. 그는 고전적인 헬라이어 문맥과 구문을 사용하였다(이 책은 플라톤적이지 않다. 이 책은 필로가 아니라 구약의 영향을 받은 책이다).
- 사. 이 책은 무명으로 되어 있지만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저자였다(참조, 6:9-10; 10:34; 13:7,9).
- 아. 바울이 저자인 것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바울이 쓴 다른 책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13 장만 제외하고).
 2. 어휘가 다르다.
 3. 단어와 구의 용법과 강조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4. 바울이 자신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형제”로 부름에 있어서 항상 그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참조, 롬 16:23; 고전 1:1; 16:12; 고후 1:1; 2:13; 빌 2:25) 13:23에서는 “우리 형제 디모데”로 되어 있다.
- 자. 저자에 관한 여러 설
1.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히포타이포세스*”(Hypotyposes,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내용)에서 바울이 히브리어로 처음에 기록한 것을 누가 헬라이어로 번역하였다고 믿고 있다(누가는 뛰어나게 코이네 헬리아어를 구사했다).
 2. 오리젠은 누가나 로마의 클레멘트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3. 바울의 저작설을 제롬과 어거스틴이 인정하였는데 이는 단지 서방교회로 하여금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4. 터툴리안(*De Pudic.* 20)은 바나바(바울과 함께 했던 레위인)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말한다.
 5. 마틴 루터는 아볼로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훈련받은 지식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일했다(참조, 행 18:24).
 6. 칼빈은 로마의 클레멘트(이 책을 제일 먼저 인용한 사람, 주후 96 년) 혹은 누가가 저자라고 말한다.
 7. 아돌프 폰 하르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그들은 아볼로에서 복음의 온전한 내용을 가르쳤으며 바울 및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다, 참조, 행 18:26).
 8. 윌리엄 램세이 경은 빌립(전도자)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바울을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9. 다른 이들은 빌립 혹은 실라가 저자라고 주장한다(실바누스).

수신자

- 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은 히브리 사람들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다(참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유세비우스의 인용문, *교회사* VI, 14).
- 나. R. C. 클레이즈 Jr.(*읽지 않은 구원*)은 내적 증거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믿는 유대인이나 회당의 특정 그룹이라고 주장한다(참조, 6:10; 10:32-34; 12:4; 13:7,19,23).
1. 많은 수의 구약 인용과 구약의 주제를 고려할 때 유대인 신자들이 수신자로 보인다(참조, 3:1; 4:14-16; 6:9; 10:34; 13:1-25).

2.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참조, 10:32; 12:4). 로마의 집권자들이 유대교를 합법적 종교로 인식했지만 1세기 후반의 기독교는 회당예배에서 분리됨을 인해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3.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참조, 5:11-14). 그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하기를 두려워했다(참조, 6:1-2).
- 다. 13:24에 있는 불명료한 본문은 이것이 (1) 이탈리아에서 기록되었거나 혹은 (2) 이탈리아(아마도 로마)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암시한다.
- 라. 수신자의 지역은 저자에 대한 여러 설과 관련을 가진다.
1. 알렉산드리아 - 아볼로
 2. 안디옥 - 바나바
 3. 가이사랴 - 누가 혹은 빌립
 4. 로마 - 로마의 클레멘트 및 13:24에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언급
 5. 스페인 - 이것은 리라의 니콜라스가 주장한 설이다(주후 1270-1340년)

시기

- 가. 로마의 장군(후에 황제가 된)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1. 저자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한다(참조, 13:23)
 2. 저자가 성전에서 계속 행해진 희생제사에 대해 말한다(참조, 8:13; 10:1-2)
 3. 저자가 핍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일은 네로 당시에 있었던 핍박과 같다(주후 54-68)
 4.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유대교 및 유대교의 예식에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 나. 주후 70년 이후에
1. 저자가 헤롯의 성전이 아닌 회막에서의 예식에 대해 말한다
 2. 저자가 핍박에 대해 언급한다
 - ㄱ. 아마도 네로의 치하에서(참조, 10:32-34)
 - ㄴ. 후기에 도미티안 치하에서(참조, 12:4-13)
 3. 이 책이 1세기 말에 랍비적 유대교가 부흥한 일(암니아에서의 글)과 관련을 가질 수 있다
- 다. 이 책을 로마의 클레멘트가 인용한 시기인 주후 95년 이전에

저작 목적

- 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당을 떠나 공개적으로(완전히) 교회에 속하기를 권고한다(참조, 13:13).
- 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고한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 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유대인 불신자들이 6장과 10장의 초점을 이룬다. “우리” “너희” “그들”로 불리는 세 그룹이 나옴을 주목하라. 그들은 그리스도인 친구 및 동역자들의 삶을 통해 가진 충분하고도 분명한 증거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도록 경고를 받고 있다.

라. 다음의 역사적 재구성은 R. C. 그레이즈 Jr.의 *쉽지 않은 구원*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비그리스도인이 소수를 이룸으로써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주 정반대의 문제였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이 회중은 자신들의 믿음과 청지기직의 개념을 많이 약화시켜 두 그룹의 사람이 더불어 회중을 이루었다. 두 그룹의 어느 편도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의 양심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그룹의 설교가 회당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증하고 결단하도록 이끌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있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정체된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 불신자들은 마음을 닫고 계속 거부하면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로 되었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기를”(6:2)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린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유대교에 대한 깊은 존중심 및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 따르는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마음이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에 이방인들이 더욱 더 많이 들어 왔다”(23 쪽).

히브리서의 간략한 개요

- 1:1-3 선지자들에 대한 성자의 우월성
- 1:4:2:18 천사에 대한 성자의 우월성
- 3:1-4:13; 모세의 언약에 대한 성자의 우월성
- 4:14-5:10
- 6:13-7:28 아론 계보의 제사장직에 대한 성자의 우월성
- 5:11-6-12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믿는 유대인의 우월성
- 8:1-10:18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절차에 대한 성자의 우월성
- 10:19-13:25 신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그들에게 계시된 성자의 우월성

이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로 불리는 랍비들의 해석학적 방법의 예이다.

독서의 첫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ix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인 이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적 종류(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ix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한 책을 단번에 읽으라. 주요 주제(들)를 파악하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1. 첫 번째 문단의 주제
2. 두 번째 문단의 주제
3. 세 번째 문단의 주제
4. 네 번째 문단의 주제
5. 기타

히브리서 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서언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성
1:1-4	1:1-4	1:1-4	1:1-3	1:1-4
성자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높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심 (1:5-2:18)	하나님의 성자의 위대성 1:4-13	성자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1:5-2:18)
1:5-14	1:5-14	1:5-14	1:14	1:13 1: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물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전문 용어와 약어를 참조하라.

문맥적 통찰

- 가. 첫 문단은 예수께서 우주적으로 또 구속을 위해 성취하신 일에 대한 시적(찬송) 제시이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며 특별히 이 지구의 주님이시다. 이 내용은 일곱 가지의 설명적인 구를 사용하여 제시된다.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빼어나게 기독교론을 제시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요 1:1-18; 빌 2:6-11; 골 1:15-17).
1. 성부께서 하신 창조의 상속자(2 절)
 2. 성부께서 하신 창조의 행위자(2 절)
 3. 성부의 영광의 광채(3 절)
 4. 성부의 본체의 형상(3 절)
 5. 성부께서 하신 창조의 유지자(3 절)
 6. 성부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3 절)
 7. 성부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왕이시며 제사장인 분(3 절)
- 나. 1-4 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셨음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들(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계시를 전해 받지 않고 가족(“아들,” 참조, 1:2; 3:6; 5:8; 7:28)을 통해 주시는 충분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 두 번째 문단(5-14 절)은 예수의 우월성이라는 주제를 계속하여 다룬다. 1-4 절에서는 예수께서 선지자들 보다 더 뛰어난 계시임을 말하며, 5-14 절에서는 그가 천사보다 더 우월한 중재자이심을 말한다. 이 사실은 70 인역의 일곱 구약본문(주로 시편임)에 의해 확증된다: 시 2:7; 삼하 7:14; 시 97:7; 시 104:4; 시 45:6-7; 시 102:25-27; 시 110:1.
- 라. 저자가 자신의 본문을 신중한 구조로 제시함을 주목하라(가향과 다향). 유대인들에게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이다(즉, 창 1 장의 칠 일).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4

¹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²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³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⁴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1:1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헬라어 문장의 첫 단어(가장 앞에 나오는)가 아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계시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는 문장이 아니라 과거에 계시하신 방법을 강조한다(부정과거 능동 분사).

▣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믿었다. 바로 이 이유에서 그들이 모세를 선지자로 여기며(참조, 신 18:15) 또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서에 이르는 역사책을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 따라서 이 구는 구약의 선지자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저자를 가리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엔)”라는 구(1 절)는 2 절에 있는 “아들을 통하여(엔)”와 평행을 이룬다. 계시의 두 방법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나타난다. 한 쪽은 종이였지만 다른 한 쪽은 가죽이다. 계시의 처음 내용은 부분적이었지만 두 번째 경우는 온전하고 완전한 내용이다(참조, 골 1:15-17).

▣	
NASB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NKJV	“여러 번에 걸쳐 다른 방법으로”
NRSV	“여러 다른 방법으로”
TEV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NJB	“과거에 여러 때에 여러 수단으로”

구약의 계시는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단편적이었다. 1 절의 헬라어 본문에서 이 구가 앞(첫 단어)에 나와 저자의 강조점을 드러낸다. 구약의 각 저자가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 명칭으로써 이 시기를 부른다.

1. 끝 날들, 민 24:14; 신 8:16; 단 2:28; 10:14
2. 마지막 날들, 렘 23:20; 30:24; 49:39; 겔 38:8,16; 호 3:5; 율 2:28(행 2:17); 요 6:39,40,44,54; 11:24; 12:48; 딤후 3:1; 약 5:3
3. 마지막 때에, 벘전 1:5
4. 시간의 끝에, 벘전 1:20
5. 마지막 날동안, 벘후 3:3
6. 마지막 시간, 요일 2:18

마지막 날의 끝은 “주의 날”이다(즉, “완성,” 마 13:39,40; 24:3; 28:20; 히 9:26).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인들은 두 시대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반역과 죄의 시대인 현재의 악한 시대(창 3 장에서 시작함) 및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시작될 의의 오는 세대. 새 시대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께서 심판과 능력으로 오심을 구약이 강조한다. 한편 그들은 (1) 사 53 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시고 (2) 슥 9:9 에 나오는 나귀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며 (3) 슥 12:10 에 나오는 찢리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했다. 신약의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을 계획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성육신(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겹쳐진 기간에 해당한다. 신약은 이 기간을 “마지막 날들”로 말한다. 우리는 2000 년이 넘도록 이 기간에서 살고 있다.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이 미래를 새 날로 보았다(참조, 사 65:17; 66:22).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야웨를 거부함(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을 인해 신구약 중간시기에 쓰여진 묵시문학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즉, 에녹 1 서, 에스라 4 서, 바룩 2 서). 이 책들에는 두 세대가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과 오실 메시아(종종 강력한 전사로서)가 주장하시는 다가올 의의 세대와 사탄이 주장하는 현재의 악한 세대이다.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예수	바울	히브리서
마태복음 12:32	로마서 12:2	1:2
마가복음 10:30	고전 1:20; 2:6,8; 3:18	6:5
누가복음 16:8	고후 4:4	11:3
누가복음 18:30	갈라디아서 1:4	
누가복음 20:34-35	엡 1:21; 2:1,7; 6:12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신약의 신학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두 세대가 겹쳐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또 간과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성육신은 새 세대가 도래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단 2:44-45). 그러나 구약은 예수께서 심판자와 정복자로 오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그가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참조, 스펀 9:9) 고난받는 종(참조, 사 53 장; 스펀 12:10)으로서 오실 것을 말한다. 구약이 예언하듯이 그는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고(시작됨)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완전히 완성되지 않은)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 “아들을 통하여” 관사없이 사용된 “아들”을 대문자(Son)로 번역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이 단어가 예수님의 호칭이 아니라 계시의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참조, 3:5-6; 5:8; 7:28). 예수님은 모세나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 아니라 가족(아들)이시다.

▣ “세우시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에(직설법) 완료된(부정과거 시제) 행위임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셨는가? 그가 침례(세례) 받으실 때였는가(참조, 마 3:17) 아니면 그가 부활하신 때였는가(참조, 롬 1:4)? 이 질문은 “양자론”(용어해설을 보라)이라는 이단을 낳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시간의 ‘어떤 때’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요 1:1-18; 8:57-58; 빌 2:6-7; 골 1:17 과 상반된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셨다(참조, 요 1:1-2). 따라서 상속자가 되심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성육신 사건 이전에 속한다.

▣ “만유의 상속자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참조, 요 3:16) 상속자이시다(참조, 마 21:33-46; 시 2:8). 죄 많은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됨은 놀라운 일이다(참조, 1:14; 6:12; 롬 8:17; 갈 4:7).

▣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항상 어려움이 되었다. 동의어의 의미가 아주 같지 않고 일부만 겹친다. ‘무’에서의 창조를 나타내는 전문적인 헬라어는 *κτίζω*이지만 본문의 단어는 *ποίησ*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나타낸다. 저자가 이 용어를 동의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구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 본문의 신학적 문맥이 ‘말씀으로써 창조하심’에 대한 것이기에 이 용어가 어떤 전문적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무에서의 창조,’ 참조, 창 1:6,9,16,20,24,26; 그러나 2:7 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 존 왈튼이 근간에 저술한 *창세기 1 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보라.

“세계”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세대들”(아이오노스)이다. 이 단어는 지구(참조, 마 28:20) 혹은 세대(즉, 시간)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창조하셨음이 분명하다(참조, 요 1:3; 골 1:16; 고전 8:6).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히 아이오노스(참조, 1:2; 6:5; 11:3)와 코스모스(참조, 4:3; 9:26; 10:5; 11:7,38)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1:3

NASB “그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다”
 NKJV “그분의 영광의 밝음이신 분”
 NRSV, NJB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시다”
 TEV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남을 반사하신다”

“광채”(아파우카스따)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필로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반영이시라는 의미에서 ‘메시아가 야웨께 대해 갖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초기의 헬라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반영 혹은 광채’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일반적 의미에서 말할 때 ‘거울이 태양의 빛을 충분히 반사하듯이’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참조, 요 14:8-9). “영광”(카보드)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밝음의 의미를 종종 나타내었다(참조, 출 16:10; 24:16-17; 레 9:6).

이 구는 잠 8:22-31 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거기서는 “지혜”(이 용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로 의인화 되어(참조, 집회서 1:4) 창조의 대리인으로 제시된다(참조, 지혜서 9:9). 같은 개념이 외경인 지혜서 7:15-22a, 22b-30 에 나온다. 잠 8:22 에서는 지혜가 모든 것을 형성했고, 25 절에서는 지혜가 ‘전능자의 영광의 순수한 방사’로, 26 절에서는 지혜가 ‘영원한 빛의 반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는 흠없는 거울로, 또 29 절에서는 빛(즉, 해와 별들)에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존재’로 나온다.

구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인 “영광”(카보드)은 “무겁다”를 뜻하는 단어로써 원래 상업용어였다(천칭을 가리킴). 무거운 것이 ‘값있고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광야 방랑시기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밝음’이라는 개념이 종종 추가되었다(영광의 쉼키나 구름). 하나님 홀로 존귀하시다. 그가 너무 밝으시기에 범죄한 인간이 그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참조,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라는 단어는 애매모호한 면을 갖는다: 이 단어가 (1) “하나님의 의”나 (2)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완전하심” 또는 (3)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었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을 인해 이것이 손상을 입었다(참조, 창 3:1-22).

▣

NASB “그의 본질의 정확한 표현”
 NKJV “그 자신을 표현한 상”
 NRSV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각인한 것”
 TEV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닮은”
 NJB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각인을 드러내는”

이 구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지만, 필로의 글에서는 자주 나온다. 그는 이 특징적 진술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강하여 나타낸다. 이 헬라어 구는 원래 조각하는 도구의 사용을 뜻하였으나, 그 새겨진 표식이 나타내는 바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반사하실 뿐 아니라 신성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계시다(참조, 요 14:9).

그리스도와 성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에이콘*(이것은 형상을 뜻함, 참조, 고후 4:4; 골 1:15)과 (2) *카락텔*(참조, 히 1: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나사렛 예수와 정확히 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이시다!

▣ “만물을 붙드시며” 이것은 자주 사용된 단어로서 “나르다 혹은 운반하다”(pherō)라는 뜻을 가졌다. 그러나 여기의 문맥에서는 “유지하다,” “붙들다,” “지탱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섭리”의 개념을 나타낸다(참조, 골 1:17 및 지혜서 8:1 에 있는 암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참조, 창 1 장) 만유를 창조하셨으며(pherō 의 또 다른 의미를 나타냄) 또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만유를 유지하신다!

▣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하신 말씀에 의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엘로힘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창조하셨다(참조, 창 1:3,6,9,14,20,24). 야웨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이 있다(참조, 사 55:11). 요 1:1 에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부르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그 일의 내용(중간태)과 그 일이 마쳐진 일임(부정과거 시제, 참조, 7:27; 9:12,28; 10:10)을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행하셨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정결하게 함”은 신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의식상의 정결(참조, 눅 2:22; 5:14; 요 2:6)
2. 신체적 병고침(참조, 막 1:44)
3. 속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참조, 히 1:3; 벧후 1:9, 윌리엄 D. 마운스, 헬라이어 신약을 위한 분석적 사전, 257 쪽에서 이렇게 주장함).

이 헬라이어에서 “카타르시스”(정화)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했다.

“죄를”이라는 설명적인 구의 사용을 주목하라. 이 구를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1) 이것은 **탈격**(“죄에서부터”)이 아니라 **목적격적 소유격**(“죄를”)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2) 이 **복수형**은 인간의 아담적 속성(“죄의 문제”)이 아니라 각자가 지은 죄들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죄(과거와 현재의)를 해결하셨다.

이 본문 이해를 UBS⁴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본문을 P⁴⁶에는 “그의”(αυτου)가 아니라 “그 자신을 통하여”(δια ηεαυτου)로 되어 있다. 정통적인 서기관들이 가진 경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옥스포드 출판사, 1993)에 나온다.

▣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일을 마치셨고 높임을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회화적 표현이다(참조, 시 110:1; 눅 22:69). 하나님께 오른손이 없으시다. 이것은 능력과 권세와 뛰어난을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적(신인동형적) 표현이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결코 앉지 않았다! 예수의 지상사역이 완성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제사장적 역할(참조, 시 110:4; 속 4 장)과 관계를 가진 표현으로서 왕과 관련을 가진 왕적 표현이다(참조, 시 2 편; 45 편; 110:1-3). 사해 공동체는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제사장인 메시아(즉, 레위 지파인 아론의 혈통)와 왕인 메시아(즉, 유다 지파인 이새의 혈통).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세 직임을 모두 성취하신다: 선지자(참조, 신 18:18); 제사장(참조, 시 110:4); 왕(참조, 삼하 7:13,16; 시 2 편; 110:1-3).

▣

NASB, NKJV,

NRSV

“지극히 높으신 이”

TEV

“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NJB

“지극히 높으신 신”

이것은 우회적 표현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을 두려워하여(참조, 출 20:7), 여러 다른 용어나 구를 대신 사용하거나(즉, “천국,” “보좌” 등) 혹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동태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1:4 이 절은 1-3 절과 5-14 절 사이의 전환절로 보인다. 현대 영어 성경(TEV)은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심을 3 절에서 시작한다.

예수께 주어진 이름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이름(참조, 롬 8:38-39; 엡 1:21; 골 2:15)보다 더 뛰어난 이름인 “아들”(참조, 5 절[2 회] 및 8 절) 또는 “주님”(참조, 10 절; 빌 2:9-11)이다.

“더 뛰어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7:7 에서 보라.

개역개정 1:5-14

⁵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⁶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⁷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⁸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⁹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¹⁰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¹¹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¹²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¹³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¹⁴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5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메시아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심을 입증하는 70 인역 구약에서의 일곱 가지 인용 가운데 첫 내용이다. 첫 구는 시 2:7 에서 인용한 것이며, 두 번째 구는 삼하 7:14 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첫 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1. 그의 침례(세례) 시에(참조, 마 3:17; 눅 3:22)
2. 변화산 사건에서(참조, 마 17:5; 막 9:7)
3. 부활 시에(참조, 행 13:33; 롬 1:4)

“아들”이라는 용어가 5 절에 있는 두 인용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 서로 다른 사람들/그룹을 가리킬 수 있는 용어이다(2: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 천사들(참조, 창 6:2,4; 욥 1:6; 2:1; 38:7; 시 29:1; 항상 복수형임)
2. 이스라엘 국가(참조, 호 11:1)
3.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89:27)
4. 메시아(참조, 시 2:7)

▣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참조, 요 1:1-18). 따라서 이 진술은 그의 본질적 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성육신) 그가 나타나심을 가리킨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부활을 가리킨다고 말한다(참조, 롬 1:3-4). 어떤 랍비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참조, 사 53 장) 다시 살아나심’을 시 2:7 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 동사는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자식을 낳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잠 8:22-31 에 대한 랍비들의 암시일 수 있다. 그곳에서는 “지혜”(히브리 본문에서는 여성형임)가 하나님의 첫 피조물로서 이 후의 창조를 행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또한 지혜서 7:1-8:1).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여성임을 암시하거나 예수께서 피조물이심을 확증하도록 암시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나사렛 예수께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심을 확증하도록 암시한다(참조, 10 절; 요 1:3; 고전 8:6; 골 1:16, 마지막 본문은 2 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것은 70 인역 삼하 7:14 의 인용이다. 이 내용은 처음에는 솔로몬에 대한 것이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예수께 적용시킨다. 이러한 이중적 적용은 사 7:14 에 있는 “동정녀 탄생”과도 비슷하다. 둘 다 예언의 다중적 성취를 보여주는 예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 랍비들의 해석방법, 모형론적 방법, 언어 유희의 방법으로 구약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후기의 해석가들에게는 적합지 않다. 아래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조명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 이러한 자기 계시를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사 독자들이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른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관여하신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왜 그렇게 많은 해석이 있는가?

이 문제의 일부는 독자가 자신이 기존에 가진 이해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접근함에 있다. 개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본문으로 성경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를 조각 조각으로 분리시켜 사용하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된다. 또 어떤 신학적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추어 특정한 면 또는 자신이 정해놓은 방법을 옹호하도록 종종 성경에 강요를 한다. 성령께서 조명에도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조명을 영감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접근방법은 본문의 모든 세부 내용을 해석함에 있지 않고 문단의 핵심진리를 찾는 것이다. 원 저자가 의도한 중심진리를 주제가 나타낸다. 한 책 혹은 문학 단위의 대지를 파악하는 일은 영감받은 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어떤 해석가도 영감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 저자가 사용한 해석방법을 그대로 흉내낼 수 없다. 그들이 당시에 발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시대에 그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 성경의 일부 내용은 애매모호하거나 감추어져 있다(어떤 때나 시기가 되기까지는). 어떤 본문이나 주제에 대하여는 항상 불일치함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중심진리를 반드시 분명히 진술해야 하며 또한 원 저자가 의도한 범주 안에서 각 해석자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해석가는 반드시 자기들이 가진 빛 안에서 행하되, 성경과 성령께서 더

많은 빛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및 우리가 한 이해대로 사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1:6

NASB

“또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NKJV

“그러나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NRSV

“그리고 또,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TEV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려 하실 때에”

NJB

“또 그가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은 아들의 재림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용문을 시작하는 문학적 방법이다(참조, 5d 절; 2:13; 4:5; 10:30).

NASB, NKJV, NRSV, NJB 에서는 “들어오게 하다”로 되어 있지만, TEV 에서는 “보내다”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처음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들림을 말하고 두 번째 것은 베들레헴에서의 성육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유추가 예수의 성육신과 더불어 시작되고 있기에 TEV 역의 내용이 문맥상 가장 적합하다.

▣ “만아들을” 이 구는 다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구약에서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두 몫 받음
2. 시 89:27 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킴
3. 랍비적 유대교에서 이 구는 이전의 뛰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다(참조, 롬 8:29; 골 1:15,18; 계 1:5)

이 구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의 핵심 내용이었다. 아리우스는 이 본문 및 시 89:27 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셨다고 주장하면서 2 절과 3 절을 인용했다: (1) 그는 이 두 절을 회화적 의미로 보았다, “높임을 받으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새 인류가 ‘영광을 받게 될 자들’의 만아들이시며... 성도들의 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다(바우어, 아른트, 킹그리치, 당켄, *헬라이어-영어 사전*, 726 쪽); 또한 (2) 헬라-로마 세계에서 만아들이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행한 것에 기초한 주장이었다(참조, 물론과 밀릭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557 쪽)

특별주제: 장자

이것은 설명적인 세 구의 두 번째 내용이다. “장자”(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1. 이것의 구약적 배경은 가족의 장자가 갖는 뛰어난을 가리킨다(참조, 시 89:27; 눅 2:7; 롬 8:29; 히 11:28)
2. 골 1:15 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창조의 처음이 되심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잠 8:22-31 에 대한 암시 혹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심을 말할 것이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5-16; 히 1:2)
3. 골 1:18; 고전 15:20(또한 이곳)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자됨을 가리킨다
4.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89:27; 히 1:6; 12:23). 이것은 예수의 중요성과 그의 중심되심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묶어 제시하는 칭호였다. 이 문맥에서 3 항과 4 항의 설명이 잘 맞는다.

▣ “세상에” 이것은 예수의 선재하심을 나타낸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구속적 사역의 새 단계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시작되었다(참조, 빌 2:6-8a). 이것은 더 자주 사용된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코메네*이다. 후자는 사람이 사는 지구의 표현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2:5에서도 새 시대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것은 70 인역의 신 32:43 혹은 시 97:7의 인용이다. 시 97:7에서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엘로힘*이 사용되었다. 사해사본 제 4 동굴의 자료에서는 70 인역의 번역과 일치한다. *엘로힘*은 하나님, 천사적 존재, 인간 재판장(참조, 출 21:6; 22:8-9)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죽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삼상 28:13).

이 인용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는다. 문맥에서 이것은 아들에게 천사들이 경배하는 사실에서 보듯이 아들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1:7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 천사(참조, 70 인역의 시 104:4)와 영구히 불변하시는 이인 예수(참조, 8,11,12 절; 13:8)를 서로 대조하여 비교하는 내용의 시작이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천사들을 창조하신다’라고 애 3:23 또는 단 7:10을 인용하여 말했다.

1:8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것은 메시아이신 왕에 대한 내용인 70 인역 시 45:6의 인용이다. 구약의 문맥에서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불명료하여,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다. 한편, 이 본문에서 이것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한다(참조, 요 1:18; 20:28).

이 점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하는 일부 사본(P⁴⁶, κ , B)에서는 **대명사**(*아우투*, 즉, “그의 보좌”)로 되어 있어 애매모호함을 배가시킨다. UBS⁴는 “당신의”에 “B”등급(본문이 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 형태는 대문자체 사본인 A와 D, 인용구인 70 인역 시 45:6에서 나온다. 고대 서기관들은 본문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려는 경향을 가졌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에 있던 기독교론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경우에 더욱 더 나타났다(참조,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옥스포드 출판사, 1993, 265 쪽).

이러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어떻게든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대 서기관들이 신학적 문법적 이유에서 본문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의 본문비평학은 사본적 변이를 다음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1. 가장 특이해 보이는 본문이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
2. 다른 변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본문이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
3.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된 본문(단지 한 계통의 사본 뿐 아니라)이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

바르트 에흐만은 서기관들이 신학적 이유에서 헬라어 본문을 변경시켰는데, 특히 기독교론 및 삼위일체론과 관련한 논쟁이 있던 시기에 많이 있었음(즉, 3, 4 세기에)을 지적하고 있다.

▣ “영영하며” 이것은 천년의 통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에 대한 것이다(참조, 사 9:8; 단 7:14,18; 눅 1:33; 벨후 1:11; 계 11:15).

특별주제: 영원한(헬라어 관용어)

헬라어에서 “영원히”(unto the ages)라는 관용적인 구(참조, 눅 1:33; 롬 1:25; 11:36; 16:27; 갈 1:5; 딤후 1:17)는 히브리어의 *올람*을 나타낸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역어*, 319-321 쪽을 보라. 이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구로는 “영원히”(unto the age, 참조, 마 21:19 [막 11:14]; 눅 1:55; 요 6:48; 8:35; 12:34; 13:8; 14:16; 고후 9:9) 및 “영원토록”(of the age of the ages, 참조, 엡 1 3:21)이 있다. “영원히”를 뜻하는 이 헬라 관용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들”(ages)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으로서 랍비들이 “장엄한 복수형”으로 일컫는 문법적 구조에 따른 회화적 의미를 가지거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세대”(ages)의 개념으로서 “악한 세대,” “오는 세대,” “의의 세대”등의 의미를 가진다.

1: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것은 70 인역 시 45:7 의 인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4.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세덱* 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디카이오쉬네* 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두 가지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 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 (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기름을 주께 부어” “기름을 붓다”(msh)라는 히브리 용어는 메시아(masiah)를 뜻하는 구약의 용어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과 ‘그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상징하였다. 이 문맥에서는 기쁨과 축제의 때를 상징하는 문화적 의미를 올리브 기름이 나타낸다(참조, 사 53:11).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BDB 603)

- 가. 미용을 위해 사용(참조, 신 28:40; 룻 3:3 삼하 12:20; 14:2; 대하 28:15; 단 10:3; 암 6:6; 미 6:15)
- 나. 손님을 위해 사용(참조, 시 23:5; 눅 7:38,46; 요 11:2)
- 다. 병고침을 위해 사용(참조, 사 6:1; 렘 51:8; 막 6:13; 눅 10:34; 약 5:14) [위생을 위해서는 겔 16:9]
- 라. 장례의 준비를 위해 사용(참조, 창 50:2; 대하 16:14; 막 16:1 요 12:3,7; 19:39-40)
- 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물건, 참조, 창 28:18; 31:13[기둥]; 출 29:36[제단]; 출 30:36; 40:9-16; 레 8:10-13; 민 7:1[회막])
- 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
 - 1. 제사장
 - ㄱ. 아론(참조, 출 28:41; 29:7; 30:30)
 - ㄴ. 아론의 아들들(참조, 출 40:15; 레 7:36)
 - ㄷ. 일반적 표현이나 칭호(참조, 민 3:3; 레 16:32)
 - 2. 왕
 - ㄱ. 하나님에 의해(참조, 삼상 2:10; 삼하 12:7; 왕하 9:3,6,12; 시 45:7; 89:20)
 - ㄴ. 선지자에 의해(참조, 삼상 9:16; 10:1; 15:1,17; 16:3,12-13; 왕상 1:45; 19:15-16)
 - ㄷ. 제사장에 의해(참조, 왕상 1:34,39; 왕하 11:12)
 - ㄹ. 장로에 의해(참조, 사 9:8,15; 삼하 2:7; 5:3; 왕하 23:30)
 - ㅁ.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의(참조, 삼 2:2; 눅 4:18[사 61:1]; 행 4:27; 10:38; 히 1:9[시 45:7])
 - ㅂ.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참조, 고후 1:21; 요일 2:20,27 [크리스마])
 - 3. 아마도 선지자들의(참조, 사 61:1)
 - 4. 신적 구원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
 - ㄱ. 고레스(참조, 사 45:1)
 - ㄴ. 두로 왕(참조, 겔 28:14, 여기서 그는 에덴동산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
 - 5. “메시아” 칭호나 용어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함(BDB 603)

▣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것은 계속되는 70 인역 시 45:6-7 의 인용이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예수께 대한 신학적 설명’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 구는 (1) 천사들 (2) 이스라엘의 왕들 (3) 세상 통치자들 (4) 구속받은 자들보다 예수께서 더 우월하심을 나타낸다.

1:10 “주여” 70 인역의 시 102:25 에서만 야웨를 가리키는 “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 예수를 가리킨다. 이 본문은 9 절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가리키는 또 하나의 문맥적 사항이다.

▣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은 창조에 있어서 예수께서 성부의 대리인이셨음을 말하는 1:2 에 대한 암시이다. 3:14 의 특별주제: *아르케*를 보라.

창세기 1 장은 *엘로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주장하는 반면(참조, 1:3,6,9,14,20,24,26), 창세기 2 장은 야웨께서 손수 직접적으로 관련하셨음을 아담과 하와를 진흙에서 “손으로” 빚으셨음을 암시함으로써 말한다(참조, 2:7,8,19,22). 여기에 나오는 인용문(시 102:25)은 개인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모든 피조물로 확대시킨다.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것은 또 한 번 성자의 영원성을 드러낸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법정 장면을 사용함으로써 ‘야웨께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전달한다. 그는 “그녀”(이스라엘)를 이혼법정에 데리고 가서 법정에서 요구되는 두 명의 증인을 부르사(참조, 신 19:15)—가장 영속적인 두 증인은 “하늘과 땅”임—자신의 진술을 입증하게 하신다. 가장 영속적인 두 증인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이 인용문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처음 동사(*아폴리미*)는 폭력적인 파괴를 뜻하며(참조, 벴후 3:10) 두 번째 구는 옷과 같이 낡아져 없어짐을 뜻한다.

이것은 창조된 세계의 불안정성(천사들, 피조물)과 ‘하나님의 보좌와 성자의 영원성과 안정성’을 서로 대조시킨다!

1:12 “주는 여전하여” 이것은 70 인역 시 102:27 의 인용이다. 이같은 개념(불변성)이 예수께서 불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13:8 에서 사용되었다. 천사도 하늘과 땅도 변하지만, 예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다(참조, 말 3:6; 약 1:17).

▣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앞의 구가 예수의 불변하심을 말하듯이 이 구도 예수의 존재가 영원하심을 드러낸다.

1:13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70 인역 시 110:1 의 인용이다. 이 시편은 히브리서에서 자주 인용하고 암시하는 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시편이다(참조, 1:3,13; 5:6,10; 6:20; 7:3,11,17,21; 8:1; 10:12-13; 12:2). 이 시편은 메시아의 왕적 모습(1-3 절)과 제사장적 모습(4-7 절)을 결합시켜 제시한다(즉 4 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도 그러함). 두 종류의 단어가 “주”로 번역되었음을 주목하라: 처음 단어는 야웨이며 두 번째 단어는 *아똘*(주님)이다. 다윗의 주님(메시아)께서 야웨(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이 보좌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 이 일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천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구속받은 사람은 창조의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다. 신자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참조, 고전 6:3). 예수께서 천사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참조, 2:14-16).

특별주제: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이어 동사 시제

구원은 산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마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거나 혹은 천국행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성장하는 삶이다.

완성된 행동으로서의 구원(부정과거)

- 행 15:11
- 롬 8:24

- 답후 1:9
- 딛 3:5
- 롬 13:11(부정과거형이 미래형과 함께 사용됨)

상태로서의 구원(완료)

- 엡 2:5,8

계속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현재)

- 고전 1:18; 15:2
- 고후 2:15
- 벧전 3:21

미래에 완성될 구원(동사의 미래시제 또는 문맥)

- 롬 5:9,10; 10:9,13
- 고전 3:15; 5:5
- 빌 1:28
- 살전 5:8-9
- 히 1:14; 9:28
- 벧전 1:5,9

따라서 구원은 최초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롬 8:29; 갈 3:19; 엡 1:4; 2:10). 이 구원은 어느 날 완성되어 보여질 것이다(참조, 요일 3:2). 이 최종 단계는 영화로 불린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최초의 영화—칭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음)
2. 점진적 구원—성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음)
3. 최종적 구원—영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음)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 절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2.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3. 2-3 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일곱 가지 면을 말하라.
4.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설명 내용이 왜 수신자들에게 중요한가?
5. 왜 예수님의 사역에 천사가 관련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큰 구원	구원을 경시하지 말라	실족함에 대한 경고	큰 구원	권고
2:1-4	2:1-4	2:1-4	2:1-4	2:1-4
구원의 선구자	성자가 천사들보다 더 낮게 되심	예수의 겸손과 높임을 받으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가져오심
2:5-9	2:5-9	2:5-9	2:5-10	2:5-8a 2:8b-9
2:10-18	2:10-18	2:10-18	2:11-13 2:14-18	2:10-18 2:14-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히 1장과 2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이다. 이 장에서는 구약의 계시(참조, 1:1-3)와 천사들(참조, 1:4-2:18)보다 예수께서 더 우월하심을 계속하여 말한다.

나. 제 2장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련성에 있다(참조, 2:10-18). 예수께서 자신을 그들과 참으로 동일시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더 우월한 언약의 목적은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켜(참조, 2:9-11, 14-18) 예수께서 가지신 창조

빠어난 위치로 옮기는 일이다(참조, 시 8 편). 예수께서는 이상적인 사람이시며 우리를 위한 완벽한 모델이시다.

- 다. 2 장은 일련의 연속적인 경고가 나오는 처음 본문이다(2:1-4; 3:7-4:11; 5:11-6:12; 10:19-39; 12:14-29). 이 처음 경고는 새언약에 따른 계시(복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이 내용은 아마도 모세의 언약에 깊은 존경심을 가진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러한 비교가 그들을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4

¹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²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³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⁴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1 “그러므로” 이것은 1 장에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 “마땅하니라” 이것은 “데이”라는 용어로서 도덕적 필요성을 나타낸다. 히브리서의 이 본문은 회당에서 믿지않는 유대인들과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는 유대인의 무리에게 주는 여러 경고 가운데 첫 번째 내용(즉, 1-4 절)이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경고는 신자들에게 주는 내용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그 구성원이 되며 세계에 대한 복음 전파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확장되도록 참여할 것을 말한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어떤 경고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주는 내용이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믿는 유대인 친구 및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가진 랍비들의 전통을 준수하는 자들이었다(참조, 6 장과 10 장).

▣

NASB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
NKJV	“더 진지한 주의를 기울임으로”
NRSV	“더 큰 주의를 기울임으로”
TEV	“더욱 더 든든히 붙잡음으로”
NJB	“우리의 생각을 더 주의깊게 기울임으로”

이것은 헬라어의 비교급과 부정사가 함께 사용된 강한 구문으로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특별하고 완전한 주의와 마음을 기울일 것을 의미한다(참조, 행 8:6,10; 16:14). 아들의 새 언약(복음)은 귀중한 것인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적합하게 대해야 한다.

▣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흘러 떠내려가다” 혹은 “슬금슬금 내빼다”를 뜻한다. 이것은 바람이나 물결의 흐름에 의해 사람이 이전의 안전한 정박지에서 떠내려감을 회화적으로 나타낸다.

이 경고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 일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언급되지 않은 외부 사람에 의해(수동태 및 가정법)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진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신자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내용은 같은 동사가 사용된 70 인역의 잠 3:21 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이 경고를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복음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킴(참조, 3 절)
2. 믿었지만(참조,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1 절) 성숙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킴
3. 믿었지만 자신들이 처음에 그리스도께 한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에 있는 자를 가리킴

처음 경우는 믿지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일인칭 복수형**의 사용은 저자가 속한 그룹에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속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신자였으며 적어도 복음이 전파된 회당에 있던 자들을 나타낼 것이다(참조, 3 절). 한편 이같은 **복수형**이 10:26 에서는 문자적인 용법이 아닌 문학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2:2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종종 “~이므로”나 “~때문에”로 번역되었다.

▣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시내 산에서 천사들이 야웨와 모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참조, 출 3:2; 14:19; 23:20-23; 32:34; 33:3; 시 68:17; 행 7:38,53; 갈 3:19).

- ▣ NASB “바뀌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어”
- NKJV “견고한 것으로 입증되어”
- NRSV “유효하게 되어”
- TEV “참으로 보여져”
- NJB “아주 믿을 만한 것으로 입증되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축복 및 저주)에 대해 신실하시다(참조, 신 27-28 장).

특별주제: 보증

이것은 헬라이어 *베바이오스*로서 3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분명하고 확실한 것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참조, 롬 4:16; 고후 1:7; 히 2:20; 3:6, 14; 6:19; 벧후 1:10,19).
2. 어떤 것의 진실됨을 나타내거나 확립할 수 있는 과정(참조, 롬 15:8; 히 2:2, 참조, 로우와 니다, *헬라이어-영어 신약사전*, 제 1 권, 340, 377, 670 쪽).
3. 파피루스 사본에서 이것은 법적 보증을 가리키는 전문용어가 되었다(참조, 물톤과 밀리간, *헬라이어 신약의 어휘*, 107-108 쪽).

이것은 14 절과 반대되는 내용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순종에 기초하였다! 고의적인 불순종에는 분명하고 즉각적인 보응이 따랐다(참조, 10:28).

이 두 용어(*파라바시스* 및 *파라코에*)가 한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여, 이 문장이 의도적인 언어(소리)유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3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홀히 함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참조, 2:1-4; 3:7-4:11; 5:11-6:12; 10:19-39; 12:14-29).

▣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하다”(아펠레오)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혹은 “상관하지 않다”를 뜻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다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영적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훈계로서(참조, 딤후 4:14) 또한 (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함으로 인하여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심을 확증하는 의미로서(참조, 히 8:9).

이것은 ‘만일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등한히 여겨 이같이 큰 결과가 초래한다면’ 예수(아들)를 통해 주신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을 소홀히 하는 일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따름을 논증하고 있다. 주신 메시지를 알면서도 등한히 여기는 일에 대해 따르는 결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의 위엄에 상응한다(즉,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참조, 마 22:2-14).

그렇다면 해석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이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1) 새 언약(복음)을 거부함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2) 새 언약을 등한히 여김에 대한 것인가? 당시의 용법에 의하면 2 항을 나타낸다. 어떤 주석가들은 저자가 믿는 자의 그룹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우리가”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10:26 에서 저자가 같은 인칭대명사(1 인칭 복수형)를 사용하여 믿지않는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수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게 하고 있었다.

▣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사용한 야웨의 언약적 칭호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참조, 출 3:14, 이 이름을 후에 “주님”[야혼]으로 읽었다)로 불리신다. 2: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신약의 저자가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야웨 자신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실됨을 증거하신다(참조, 4 절). 3:14 의 특별주제: 아르케를 보라.

▣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이 구가 제 2 세대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참조, 갈 1:11). 바울은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가 아니었다. 13:23 의 설명을 보라.

2: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들과 기사들은 신자들을 격려하며 불신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함이었다(참조, 행 2:22). 하나님께서는 복음진리에 대해 계속하여(현재 능동 분사) 증거하신다. 예수님의 초림 시에 악하고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사람이 회심할 때에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신다(참조, 고전 12:7,11,18; 엡 4:11,12). 신자가 받는 이러한 영적 은사는 복음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드러나는 증거인데, 이 편지의 어떤 수신자들은 그러한 은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있었다!

▣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주실 은사를 선택하시고 또 이를 주신다(참조, 고전 12:5,11,18). 신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만일 영적 은사가 천부적인 재능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영적은사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휘하게 하여 그리스도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모든 은사는 몸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각 신자는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쓰며 살아야 한다!

개역개정 2:5-9
⁵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⁶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⁷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⁹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2:5 “하나님이 . . .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가 현재 영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음은 사실이다(참조, 70 인역의 신 32:8 및 단 10 장).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더 우월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는 권세의 자리에 계실 ‘성육신 하시고 영광받으신 그들의 구주’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과 관련한 존재로 여겨지는 ‘천사들’보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더 우월함을 대비시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본문이다(참조, 1:4-14).

2: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 인용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영감된 것임을 뜻하는 관용적 히브리 표현법이다(참조, 4:4). 구약에서 인용한 일련의 구절이 뒤따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이 있다.

▣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70 인역 시 8:4-6 의 인용으로서 이 내용은 창 1:26,28 에 기초한다. 6 절, 7 절, 8 절은 메시아(“인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 언급한다. 시편에서 “인자”라는 용어는 “사람”과 평행적 관계에서 사용되기에, 이를 대문자체(Man)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אדם*’은 인간을 일컫는 관용적 히브리 표현으로서 에스겔서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참조, 2:1; 3:1,3,4,10,17 등).

2: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70 인역 시 8:5-6 의 계속적 인용이다. 번역과 해석을 위해 하게 되는 질문은 히브리 용어인 “*אלוהי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1. 70 인역은 시 8:5 을 “천사들”로 번역하였는데 아람어 탈굼, 페쉬타, 별게이트, KJV 도 그렇게 번역하였다.
2. 유대인 출판사인 JPSOA 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으로 번역하였다. 여러 영어번역본은 “하나님”으로 번역하였다(참조, ASV, NASB, RSV, NEB, NRSV, REB, JB, NJB, TEV). 이 용어가 구약에서 **단수형 동사**와 더불어 사용될 때(창 1:1 이 이러한 경우임) 이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요 10:31-39 에서 이 단어를 이 의미로 사용하셨다. 이 단어는 때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종인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를 뜻하기도 하였다(참조, 왕상 22:19; 단 7:10).
3.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참조, 출 21:6; 22:8-9,28; 시 82:1,6).

이 문맥의 신학적 관점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참조, 1:14)이 천사들보다 우월함을 나타냄에 있다.

7 절의 끝 부분에 있어서 고대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있다. 어떤 고대 헬라어 사본(κ, A, C, D*, P)은 시 8:7 에서의 내용을 계속하여 인용하고 있지만 다른 사본(P⁴⁶, B, D^c, K, L)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에서 끝나고 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그러하듯이 이러한 사본적 차이점은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샴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삿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스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이 이름을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ἑλωσιστος**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멜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 (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 (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 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삿 6:24

- ㄹ. *야웨-쓰바웃* (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ㅍ.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다, BDB 217 & 841), 램 23:6
- 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1:3의 설명을 보라.

2:8 이것은 시 2:6에서 온 내용이지만 창 1:26,28-30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참조, 창 1:26-27) 지구 상에서 관리인의 역할(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을 감당했어야 했다. 그러나 창 3장에 나오는 범 죄는 이러한 일을 좌절시켰다(참조, 9c 절).

2:9 “**오직 우리가...예수를 보니**” NASB는 7절과 8절에서 모든 **인칭대명사**를 소문자로 제시하지만(즉, 저자가 시편을 인용함), 9절에서는 대문자로 제시함으로써(저자가 여기서는 시편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과 이상적인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가진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지만, 인간은 범 죄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인간의 운명(destiny)을 성취하셨고 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예로운 지위를 회복시키신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셨다! 이것은 아담-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이다(참조, 롬 5:12-21; 고전 15:21-22,45-49; 빌 2:6-11).

▣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것은 6절 및 7절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다. 이것은 예수의 성육신과 지상에서의 삶을 일컫는 내용이다.

▣ “**예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에 다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낸다(참조, 2:9; 3:1; 6:20; 7:22; 10:19; 12:2,24; 13:12). 이러한 용법은 예수를 새 여호수아로 제시하는 모형론적 표현일 것이다. 둘 다 완전히 같은 이름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기에 있는 자료를 상당히 자주 사용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이끌었듯이 예수께서도 그들을 하늘(즉, 제 칠일의 안식)로 이끌 것이다.

▣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창 3:15; 시 22편; 사 53장을 반영한다. 그는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그는 이 관을 쓰셨고 또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분이시다!. 1:3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카리티 세오스*)는 모든 영어역본에 나오며 또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P⁴⁶, α , A, B, C, D).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코리스 세오스)라는 기이한 내용이 후기에 속하는 여러 고대 사본에 나온다. 브루스 M. 메츠거는 이 내용이 원래 고전 15:27과 관련이 있는 난외주였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카리티 세오스”로 교정해 놓은 것이라고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에서 말한다(664 쪽).

세계성서공회의 *히브리서에 대한 핸드북*(폴 엘링워스와 유진 A. 니다, 37 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 시 22편에 대한 암시일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종종 홀로 십자가에 있다는 느낌을 나타내셨다(참조, 막 15:34). 같은 견해를 밀레스 M. 버크가 *제롬 성경 주석*(385 쪽)에서 제시한다.

제 3 의 의견(바르트 D. 에흐만의 *정통주의가 왜곡시킨 성경*, 옥스포스 출판사, 1993 년, 146-150 쪽)은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신학적 이유(특히 영지주의로 인한 신학적 위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라고 바꾸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변이에 대해 오리겐과 제롬이 알고 있었다. 또한 “~부터 멀어져”(코리스)가 히브리서에 13 번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저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에흐만(148 쪽)도 ‘**관사없이 사용된 명사가 항상 이 단어 뒤에 온다**’라고 말한다.

▣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창 3:15; 사 53:4,10; 막 10:45; 고후 5:21). 고난받음이라는 주제는 히 2 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대속적 속죄를 나타낸다(참조, 사 53:6; 롬 5:6,8,10,17-19; 고전 15:22; 딤후 2:4,6; 4:10; 딤후 2:11; 벧후 3:9).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스스로 내키지않아 하는)이 모든 이의 구원을 막고 있다(참조, 요 3:17-21).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 (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개역개정 2:10-13

¹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¹¹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¹²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¹³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2:13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또 다시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참조, 롬 11:36) 혹은 성자

하나님(참조, 1:2,3; 골 1:15-17)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 절의 후반부에서 “저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대명사가 성부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한편, 예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리인이셨는데(참조, 1:2; 요 1:3; 고전 8:6; 15:25-27), 이러한 그의 역할은 구속에 있어서도 그러했으며 심판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히 2 장의 남은 절에서는 새 언약이 가진 가족적 면을 완전히 드러낸다. 가족과 관련이 있는 많은 수의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새 언약의 목적은 범죄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다. “많은”이라는 용어가 “모든”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9 절, “각 사람”). “모든”과 “많은”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동의어적으로 사용되었다(사 53:6 을 11,12 절과 롬 9:18 을 19 절과 비교하라). 따라서 막 10:45 및 14:24 는 “어떤” 이가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이를 뜻한다! 이것은 극단적 칼빈주의의 견해(즉, 타죄 이전설[supre-lapsarian])를 입증하는 본문이 될 수 없다.

- ▣ NASB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는 일”
- NKJV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
- NRSV “그들의 구원의 개척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 TEV “예수를 온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 NJB “그들의 구원의 지도자를 . . . 온전하게 만들라”

“온전하게 하다”(부정과거 부정사)라는 용어는 “주어진 사역을 위해 완벽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며 준비됨”을 뜻한다(참조, 엡 4:12). 히브리서의 저자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용어를 예수께 3 번 사용하며(참조, 2:10; 5:9; 7:28)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3 번 사용한다(참조, 10:14; 11:40; 12:23).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수께서는 참으로 인간이셨다(참조, 눅 2:40,52). 그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자라셨다(참조, 눅 2:40,52). 그는 고난을 통해 시험을 받으셨다(참조, 5:8-9). 그는 모든 종류의 영적 장애물에 직면하셨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셨다(참조, 4:15). 그는 인류를 위한 커다란 모범이 되셨다(참조, 벘전 2:21).

특별주제: 저자/지도자(아르케고스)

“저자”나 “지도자”라는 헬라어 용어는 아르케고스이다. 이 단어는 “시작”(아르케)이나 “가다”나 “인도하다”(아고)라는 어근에서 왔다. 이 합성어는 지배자, 왕(자), 지도자(인간 혹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만 사용되었다.

1. 생명의 왕(자) 혹은 저자, 행 3:15
2. 왕(자) 혹은 지도자, 행 5:31
3. 그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저자, 히 2:10
4. 믿음의 저자(혹은 개척자) 및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히 12:2

예수께서는 구원의 시작자이시며, 구원을 가능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 “고난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참조, 5:8-9). 예수께서는 종종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험과 박해에 대해 말씀하셨다(참조, 마 5:10-12; 요 15:18-19; 17:14).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 정부, 악한 자에게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도구로서 이러한 어려움

(반대)을 사용하셨다(참조, 롬 8:17; 빌 1:29; 딤후 3:12; 약 1:2-4; 뱀전 4:12-19). 이 진리는 (1) 구약(참조, 히 11 장) 및 (2) 바울의 사역(참조, 고전 4:9-12; 6:4-10; 11:24-27)을 통해 실증된다.

2:11

NASB, NRSV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 하므로”

NKJV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고 있는 자들이 모두 ... 하므로”

TEV

“그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그와 정결케 된 자들이 모두”

NJB

“거룩하게 함과 거룩하게 됨이 ... 하므로”

이것은 “거룩한” 또는 “거룩하게 된”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10:10,14). 처음 것은 **현재 능동 분사**(예수님)이며 두 번째 것은 **현재 수동 분사**(그의 백성, 참조, 요 17:19)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과 같게 되셨다(참조, 1:14; 2:6-8,9-18).

성부께서 대리인인 성자를 통하여(참조, 고전 1:2; 엡 5:26; 히 10:10,14,29; 13:12)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참조, 요 17:17; 살전 5:23). 히 2:11 에서는 이러한 면이 함께 결합되어 제시된다.

1. 거룩하신 성부
2. 거룩하신 성자
3. 거룩한 신자들(참조, 뱀전 1:13-25)

이 일은 신분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며,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참조, 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행 20:32;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14; 13:12
 뱀전 1:2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롬 6:19
 고후 7:1
 엡 1:4; 2:10
 살전 3:13; 4:3-4,7; 5:23
 딤후 2:15
 딤후 2:21
 히 12:14
 뱀전 1:15-16

▣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헬라이어 본문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참조, NASB, NRSV, TEV).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NREV, TEV, NIV). 따라서 NJB 역의 “모두가 같은 혈통에서” 혹은 NIV 역의 “같은 가족에 속하여”가 문맥상 가장 잘 맞는다. 만일 이 구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이 내용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다(참조, 14 절).

▣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은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시하셨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다.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구약 인용문(참조, 12-13 절)은 문맥과 약간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내용은

랍비들의 언어유희를 메시아에 대한 본문에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18 절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하심을 드러낸다:

1. 두 쪽 다 성부를 선포한다
2. 두 쪽 다 성부를 찬송한다
3. 두 쪽 다 성부를 신뢰한다
4.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에 의해 예수(참조, 13b 절의 “나”)와 그를 따르는 자들(13b 절의 “자녀들”)이 서로 연결된다
5.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6.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두 쪽 다 시험을 받는다

2:12-13 이 일련의 구약 인용은 예수께서 이 구약의 본문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자신을 신자들과 동일시 하시는가를 설명해 준다.

2:12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은 시 22:22 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은 예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관련을 가진다.

▣ “교회”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

헬라이어인 *에클레시아*는 “~로 부터”와 “부르심을 입은”의 두 단어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러 내신 사람들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세속적 용법(참조, 행 19:32,39,41)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였는데,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카할, BDB 874, 참조, 민 16:3; 20:4).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연속으로서 자신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었고(참조, 롬 2:28-29; 갈 6:16; 벰전 2:5,9; 계 1:6), 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였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마 28:18-20; 눅 24:47; 행 1:8).

이 용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도시에서 가진 세속적 모임, 행 19:32,39,4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 마 16:18 과 에베소서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교회의 믿는 회중, 마 18:17; 행 5:11(이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4. 집합적인 이스라엘 백성, 행 7:38, 스테반의 설교에서
5.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행 8:3(유대와 팔레스타인)

2:13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구는 사 8:17 의 인용구이다. 나는 여기서 저자가 계속하여 70 인역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잠시 설명하려고 한다. 70 인역의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맛소라 본문)과 다르다(때로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영어역본들에 나타나는 차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이는 어떤 역본을 다른 역본보다 더 좋아한다. 때때로 그들은 번역가들의 동기와 신앙(기독교)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헬라이어 번역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고대 근동 세계에 전달되게 하실 수 있었다면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서로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셔서 같은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번역의 이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은 70 인역의 사 8:18 의 인용이다. 전체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신자와 하나되심에 있다(참조, 17 절).

개역개정 2:14-18

¹⁴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¹⁵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¹⁶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¹⁷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¹⁸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2:14 “~으매”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함께 지니다” (코이노니아, [완료 능동 직설법])라는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처음에도 또 계속하여 가지셨음을 나타낸다. 14 절과 17 절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 일어난 영지주의적 이단에 의해 제기된 신학적 문제였다(참조, 요일 4:1-6).

헬라이어 본문에서는 글자 그대로 “피와 육체”로 되어 있다. 이 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정반대로 되어 있다. 랍비들은 이 구를 사용하여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였다. ‘예수께서 인간이셨지만, 그가 인간의 죄악된 타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구를 역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참조, 롬 8:3; 빌 2:7-8).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참조, 1:1-3; 4:14)과 인성을 함께 강조한다.

1. 2:14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
2. 4:15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받으심
3. 5:7 큰 소리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성부께 기도하심
4. 5:8-9 고난을 받으심으로 완전케 되심

▣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심을 인하여 사망이 죽었다! 이것은 희생제사에 대한 유대인 공동체의 신학이다(참조, 레 1-7 장). 죄 없으신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참조, 롬 5:12-21; 고후 5:14-15,21).

2:15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것은 KJV 역이 이곳과 롬 6:6 에서 “파괴하다”로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다(카탈게오). 이러한 의미가 살후 2:8 에서도 나타난다. 문맥을 살펴보다라도, 이 동사를 “파괴하다/없애다”로 번역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효로 하다”로 번역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때때로 어렵다(참조, 고전 15:24,26; 엡 2:15). 한편 이 용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하다, 무효로 하다, 작동하지 않게 하다”라는 함축적 의미도 가진다(참조, 롬 3:3,31; 4:14; 6:6; 고전 2:6; 13:8; 고후 1:7).

특별주제: 무효의 및 무효로하다(카탈게오)

이것(카탈게오)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 단어를 적어도 25 회 사용하는데 이것의 어휘적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가. 이 어원의 기본적 어근은 알코스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1. 비활동적인
2. 놓고 있는
3. 사용하지 않은
4. 쓸모없는
5. 작동하지 않는

나. *카타*와 함께 쓰인 합성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1. 비활동적임
2. 쓸모없음
3. 취소된 것
4. 폐지된 것
5.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

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한 번 사용되었는데 ‘열매없는’을 뜻한다, 따라서 쓸모없는 나무(참조, 눅 13:7).

라. 바울이 이것을 비유적 의미로 사용할 때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1.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을 작동하지 않게 하심
 - ㄱ. 인간의 죄된 본성 - 롬 6:6
 - 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모세의 율법 - 롬 4:14; 갈 3:17; 5:4, 11; 엡 2:15
 - ㄷ. 영적 세력 - 고전 15:24
 - ㄹ. “무법한 자” - 살후 2:8
 - ㅁ. 육체의 죽음 - 고전 15:26; 딤후 1:16(히 2:14)
2. 하나님께서 새 것을 위해 헌 것(언약, 시대)을 바꾸심
 - ㄱ.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것들 - 롬 3:3,31; 4:14; 고후 3:7,11,13,14
 - ㄴ. 율법에 사용된 결혼의 유추 - 롬 7:2,6
 - ㄷ. 이 세대의 것들 - 고전 13:8,10,11
 - ㄹ. 이 몸 - 고전 6:13
 - ㅁ. 이 세대의 지도자들 - 고전 1:28; 2:6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지만 그 주된 의미는 어떤 것을 ‘쓸모없게 하는, 무효의, 무효로하다, 작동하지 않는, 힘없게 함’을 뜻한다. 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파괴된, 또는 폐지된’의 의미를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다.

▣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사탄이 죽음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가지지 않았고(참조, 욥 2:4-6; 고전 5:5)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을 뿐이다(참조, 15 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사용한다(참조, 고전 15:54-57).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좌절 시키려는 악한 인격의 존재가 있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요일 4:4; 5:19). 예수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셨고(참조, 딤후 1:10), 하데스와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참조, 계 1:18).

특별주제: 사탄

이것은 여러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의 옛 원수가 아니라 야웨의 종을 드러낸다. 이 종은 인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비난한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유일신 주의), 한 권세자, 한 분의 근원자—야웨만 나타낸다.
2. 하나님의 개인적인 옛 원수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책에서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그 결과 이러한 생각은 랍비들이 이끄는 유대교와 에세네파 (즉, 사해사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좁혀진 항목으로 놀랍게 발전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서신학적 관점(각 책을 저자나 장르에 따라 연구하고 독립적인 개요를 제시하는) 에서 악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된다. 한편 우리가 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 이외의 자료나 성경 밖의 세계 종교 또는 동양 종교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많은 내용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헬라-로마의 강신술을 그 배경으로 함을 알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다면 신약에 나타난 내용을 점진적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유대인의 민족적 전승이나 서양의 문학(단테, 밀톤)이 이러한 개념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분명히 신비함과 모호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악의 기원, 악의 발전, 악의 목적 등 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사탄” 또는 “참소자”(BDB 966)는 세 종류의 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 인간인 참소자(참조, 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0,29; 시 109:6)
2. 천사인 참소자(참조, 민 22:22-23; 욥 1-2 장; 스 3:1)
3. 악마적 참소자(참조, 대상 21:1; 왕상 22:21; 스 13:2)

후기인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세기 3 장의 뱀을 사탄으로 간주하였다(참조, *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또한 이러한 개념은 좀 더 후기에 가서야 랍비들의 견해가 되었다(참조, *Sot* 9b 과 *Sanh.* 29a).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들로 해석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개념이 발전해 온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의인화된 악, 즉 천사에게로 돌린다(참조, 고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일은 어렵고 혹은 불가능하다(당신의 견해에 따라 다름). 그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진 강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전 7:14; 사 45:7; 암 3:6).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웨께 돌려져 야웨의 유일하심과 그의 우월하심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욥 1-2 장, 이곳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 나온다(즉, 천사) 혹은 (2) 이사야 14 장과 에스겔 28 장, 이곳에서는 고대 근동의 교만한 왕들(바벨론과 두로)이 사탄의 교만을 예시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딤펢전 3:6).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에스겔은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참조, 겔 18:12-16) 이집트 왕에 대하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는, 에덴동산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겔 31 장). 한편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천사들이 교만함으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말하는듯이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명백한 특징과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본문을 그러한 것으로 보기에 매우 간접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저자와 책과 장르가 각각 다른 신구약 성경의 어떤 짧고 애매한 본문을 서로 조합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퍼즐의 작은 조각을 찾으려는 조직신학적 접근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나는 랍비적 유대교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사탄적 관점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 권, 부록 XIII[748-763 쪽]과 XVI[770-776 쪽])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랍비들의 글은 진리에 대한 좋은 자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천사장이 야웨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란의 이원론에서 말하는 두 높은 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랍비들은 *아키만*과 *올파자*를 야웨와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이원론으로 발전시켰다.

신약에는 의인화된 악에 대하여 점진적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것은 랍비들이 구성한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진 것조차 묵시적 장르에 의해 베일에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예수님께 패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은 여전히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후 1:20).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조절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은 힘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만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오며 또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악은 패했고 또 제거될 것이다!

2:16

NASB “이는 확실히”
 NKJV “이는 사실상”
 NRSV, TEV “이는 분명하기에”
 NJB --생략됨--

NRSV 와 TEV 가 가장 적합하게 이 개념을 나타낸다.

▣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둘 다 현재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아니요”가 헬라이어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와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에피람바노라*는 동사는 *람바노라*는 어근(“취하다” 혹은 “붙잡다”)에서 왔는데, 이 어근은 긍정적인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문맥에서는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긍정적 행동을 나타낸다(참조, 8:9).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천사들의 세계와 대조된다

▣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것은 글자 대로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후손을 가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야웨께서 약속하셨다(참조, 창 12:2; 15:2-6; 17:4-7; 18:10,18). “씨”라는 용어는 복수형 또는 “단수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및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일이 민족이나 행함과 관련이 있지 않고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요 8:31-59; 갈 3:7,9,29; 롬 2:28,29).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지만(참조, 특히 창 15:12-21; 롬 4 장)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순종이라는 조건을 가진 내용이었다.

2:17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중보적 사역은 그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심과 관련이 있다(참조, 2:11,18; 4:15). 따라서 그는 우리를 위한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특별주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신약의 독특한 책이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제사장으로 묘사하는 여러 본문이 있다(참조, 시 110:4; 스후 3-4 장). 이 주제는 4:14-5:10 및 6:13-7:28 에서 완전히 발전되어 제시된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사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다

1. 죄를 속량하심(참조, 2:17; 7:27; 9:14)
2. 죄의 유혹을 받는 자들을 강하게 하심(참조, 2:18)
3. 연약한 때에 은혜를 주심(참조, 4:15-16)
4. 영생을 가져다 주심(참조, 5:9-10)
5. 신자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심(참조, 7:25)
6.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심(참조, 10:19-21)

▣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의 시온좌(뚜껑)를 가리키는 용어로 70 인역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이 헬라어 단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는 ‘화난 신을 달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함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용법 때문에, 오늘날의 번역본에서는 이런 함축적 의미를 야웨께 적용하기를 불편히 여겨(참조, RSV 와 NJB) 이 단어를 “속죄”로 번역한다. 예수께서는 야웨의 정의와 자비하심을 함께 가져 오신다(참조, 요일 2:2; 4:10). 한편, 우리는 이 본문을 ‘분노하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참조, 요 3:16). 성자는 성부를 대표하며 또 성부를 따라서(홍내내서) 행하신다.

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예수께서 겪으신 시험이 지속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시험을 받아”(페이지라조)라는 용어는 망하게 할 목적으로 시험함을 나타낸다(참조, 4:15; 마 4:1). 악한 자는 그를 갈보리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속함을 위한 큰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다.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미온, 도키마시아

이것은 금속제련과 관련된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사람)의 순수성을 불로써 알아보는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 사탄, 혹은 사람이 시험함’을 가리키는 강력한 속어가 되었다. 이 시험은 받아들여짐을 뜻하는 긍정적 관점만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ㄱ. 소, 눅 14:19
-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 ㄷ. 우리의 믿음, 약 1:3
- ㄹ.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은 긍정적 결과를 가정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뱀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증함을 뜻한다

- ㄱ. 가치있음
-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 있음
- ㅁ. 영예로움

2. 페이라조, 페이라스무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유혹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된다.

ㄱ. 이것은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임을 나타낸다(참조, 마 4:1; 16:1; 19:3; 22:18,35; 막 1:13; 눅 4:38; 히 2:18)

ㄴ. 이 용어(페이라조)는 마 4:3 과 살전 3:5 에서 사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ㄷ.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눅 4:12) [그리스도를 시험함에 대하여는, 참조, 고전 10:9]. 이것은 또한 실패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뜻한다(참조, 행 9:20; 20:21; 히 11:29).

ㄹ.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13,14; 벧전 4:12; 벧후 2:9).

하나님께서 3 종류의 적(즉, 세상, 육신, 악한 자)이 특별한 때와 장소에 인간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

▣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진리가 4:15 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신다(참조, 17 절)!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새 언약이 모세의 언약보다 어떻게 우월한지 그 항목을 모두 말하라.
2. 이 책의 저자가 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왜 그렇게 자주 인용하고 있는가?
3. 2 장의 경고는 누구에게 주시는 내용인가?
4. 2:6-8 은 인간에 대한 것인가 예수님께 대한 것인가?
5. 예수께서 왜 고통을 받으셔야 했으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6. 14 절에 의하면,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7.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열거하라.

히브리서 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예수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심	그는 충성된 아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높으심
3:1-6	3:1-6	3:1-6	3:1-6	3:1-6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신실하라	경고와 권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
(3:7-4:13)		(3:7-4:13)	(3:7-4:13)	(3:7-4:13)
3:7-11	3:7-15	3:7-19	3:7-11	3:7-11
3:12-19	광야 방랑에서의 실패		3:12-15	3:12-19
	3:16-19		3:16-19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히 3:1-4:13

- 가. 이 단락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은 형제였고 레위인이었다)보다 예수께서 우월하심을 다룬다. 이 본문은 히 4:14-7:28 에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다룰 수 있게 이끈다.
- 나. 두 개념에 대한 랍비적 언어유희가 이 단락에 있다: (1) 3:1-6 에 있는 “하나님의 집”(참조, 민 12:7-8; 삼하 7 장) 및 (2) 3:7-4:13 에 있는 “안식”(참조, 시 95:7-11).

다. 논점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모세는 하나님의 집/가정의 한 부분을 이루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집/가정의 건축자였다.
2. 모세는 집에서 종이지만, 예수께서는 가족의 구성원이다
3. 모세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일을 실패하지 않으셨다

라. 이 문학적 단락의 신학적 핵심은 순종할 것과 신실할 것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순종하셨고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의 언약에서는 불순종에 심각한 결과가 따랐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거부하거나 범하는 일에 대하여 그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참조, 2:1-4)?

마. 이 단락은 모험론적인 내용에 속한다. 이 본문은 신약을 새로운 영적 출애굽으로 제시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6

¹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²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³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⁴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⁵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⁶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3:1

NASB, NKJV “거룩한 형제들아” (brethren)

NRSV “형제 자매들아”

TEV “내 크리스찬 친구들아”

NJB “거룩한 형제들아” (brothers)

이 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가? “형제들”(brethren)이란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참조, 2:11; 3:1,12; 10:19; 13:22), 이 용어(또한 단락의 주제)는 유대인 신자들을 암시한다.

▣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개념이 성경에서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이스라엘은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창 12:3; 출 19:5). 구약에서 이 부르심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공동체(이스라엘 민족)가 받은 부르심으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세계 선교)을 포함한다.
2. 각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요 6:44,65).
3. 각 그리스도인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고전 12:7,11).

특별주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신다 (참조, 요 6:44,65; 15:16; 고전 1:12; 엡 1:4-5,11).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 ㄱ.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즉, *클레토스*, 참조, 롬 1:6-7; 9:24, 이것은 신학적으로 고전 1:1-2; 딤후 1:9; 벤후 1:10 과 비슷하다).
- ㄴ.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른다(즉, *에피칼레오*, 참조, 행 2:21; 22:16; 롬 10:9-13). 이 진술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뜻하는 관용어이다.
- ㄷ.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즉, *클레시스*, 참조, 고전 1:26; 7:20; 엡 4:1; 빌 3:14; 살후 1:11; 딤후 1:9)
- ㄹ. 믿는 자들은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입었다(참조, 행 13:2; 고전 12:4-7; 엡 4:1).

▣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함을 뜻한다(참조, 10:24). 이 문맥에서 이 문장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지도자들과 비교함을 나타낸다.

▣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두 호칭의 사용은 공식적 사자(messenger)인 모세 및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예수께서 더 우월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3장과 4장은 아론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한다. 헬라어에서 “사자”와 “천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에,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는 헬라어인 “사도”라는 용어는 ‘구원받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참조, 1:14) 및 ‘구원얻을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참조, 요 3:17)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본문은 신약에서 예수를 “사도”로 부르는 유일한 본문이다. 한편 요한은 같은 어근의 동사를 거듭거듭 사용하여 예수께서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말한다(참조, 요 3:17,34; 5:36,38; 6:29,57; 7:29; 8:42; 10:36; 11:42; 17:3,18,21,23,25; 20:21).

▣ “사도” 이것은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온 용어로서, 랍비들은 ‘어떤 사람의 공식적 대표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항상 사용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섬겼지만, 예수께서는 가족인 “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섬기게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셨다.

▣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다. 제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유다 지파이신 예수께서 참으로 제사장이셨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자세한 랍비적 논증을 해야 했다. 사해 사본의 공동체는 두 메시아를 고대하였다: 한 명은 왕인 메시아(유다 지파)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제사장인 메시아였다(레위 지파, 참조, 시 110 편; 숙 3-4 장).

▣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것은 *호모로기아*라는 헬라어로서, “말하다”와 “같은 것”의 합성어이다.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제 그들은 이 고백/시인을 굳게 하여야만 한다(참조, 4:14; 10:23). 이것은 이 책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주제: 고백

- 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고백과 시인의 의미로 쓰였다 (*호모레제오*와 *엑소모로제오*). 야고보서에 이 합성어가 쓰였는데, 같다는 의미의 *호모*, 말하다는 의미의 *레고*, 밖으로라는 의미의 *엑스*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다 혹은 동의하다 이다. 덧붙여진 말 *엑스*는 공적 시인을 뜻한다.

- 나. 영어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1. 찬송
 2. 동의
 3. 선언
 4. 인정
 5. 고백
-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찬송하기(하나님)
 2. 죄를 인정하기
-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있음을 인간이 자각함에서 이 두 가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두 쪽을 다 깨닫는 것이 된다.
- 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눅 22:6; 행 24:14; 히 11:13)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 15:9)
 4. 시인하기
 -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눅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요일 2:23; 계 3:5)
 - ㄴ. 진실을(참조, 행 23:8; 고후 11:13; 요일 4:2)
 5. 공적 선언을 하기(법적 의미가 종교적 확인으로 발전됨, 참조, 행 24:14; 딤편 6:13)
 -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편 6:12; 히 10:23)
 -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3: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문맥에서의 강조점은 (1) 성부께서 예수를 택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일(참조, 막 3:4)과 (2) 신자들이 성부께 대한 믿음을 가지듯이 예수께서 성부께 대한 믿음을 가지신 일(현재 분사)에 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사람들과 같게 되셨다. 한편 “세우다”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창조하다”이다.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논쟁에서 아리우스는 “세우신”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 아니라(참조, 행 2:36; 롬 1:4; 골 1:15)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높은 피조물’이었다(참조, 잠 8:22)라고 주장하였다. 4 세기에 있었던 이 논쟁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심은 물론, 하나님이 세 영원한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삼위일체)으로 나타나셨음을 분명하게 했다. 신적 세 위격은 영원토록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이룬다(참조, 요 1:1-18). 아리안 주의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설명이 밀라드 J. 에릭슨의 책 *기독교 신학*(제 2 판), 711-715 쪽에 있다.

▣ “은 집에서” 이것은 민 12:7,8 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6 절, “집,” 갈 6:10; 딤편 3:15; “영적 집,” 벧전 2:5; “하나님의 집,” 4:17). 이 문단에서 “집”이 6 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건물의 의미로 어떤 때는 가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모세는 하나님의 집/가정의 한 부분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집을 세우신 이셨다
2.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께서는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3. 모세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 오는 일에 실패했지만, 예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3: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 진술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큰 충격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참조, 고후 3:7-11).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궁극적 원인”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논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참조, 토마스 아퀴나스). 한편, 이러한 논증(“조물주”)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또 ‘죄인의 친구’로 계시하심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

▣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부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참조, 롬 11:36; 고전 15:25-27). 예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리인이셨다(참조, 요 1:3; 고전 8:6; 골 1:16; 히 1:2).

3:5-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써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들이신 예수님(참조, 1:2; 3:6; 5:8; 7:28)과 종인 모세가 대조되고 있다(참조, 1:2; 3:5; 5:8; 7:28; 출 14:31; 민 12:7). 모세는 충실한 사환이었지만(참조, 민 12:7) 예수께서는 가족의 구성원이셨다!

3:5 모세가 그리스도께 대한 내용을 신 18:18-19 에서 말하였다(참조, 벰전 1:11). 이 본문은 1:1 에 있는 진리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3:6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은 집으로 표현된 믿음의 가정을 나타낸다(참조, 갈 6:10; 딤후전 3:15; 벰전 2:5; 4:17). 이러한 종류의 집합적 건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은 ‘교회를 성전으로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3:16). 초점이 (1) 예수께서 주인이심과 (2)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된 공동체임을 나타냄에 있다.

교회를 ‘예수님의 집’으로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고대 헬라이어 사본은 대명사를 바꾸어 성부를 가리키게 하였다(참조, P⁴⁶, D^{*}).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예안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 이러한 구성은 이 진술에 우발성의 요소를 더한다(참조, 3:14; 4:14; 롬 11:22; 고전 15:2).

▣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굳게 잡다”는 지속적인 인내에 강조점을 준다(부정과거 능동 가정법, 참조, 3:14; 4:14; 또한 4: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장의 나머지 부분과 4 장의 내용은 계속되는 하나의 경고로서 (1)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일과 (2) 복음을 들었고 또 자기 주위의 믿는 유대인 친구들의 강력한 삶을 지켜본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하기 위함이다.

▣ “소망의 확신과” 소망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히브리서의 특징을 이룬다(참조, 3:6; 6:11; 7:19; 10:23; 11:1).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완성될 것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소망

바울은 이 용어를 종종 관련된 뜻을 갖는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종종 이것은 신자의 믿음이 완성될 것과 관계된다(예, 딤후전 1:1). 이것은 영광, 영생, 궁극적 구원, 재림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완성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시간적 요소는 미래적이고 또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종종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다(참조, 고전 13:13; 살전 1:3; 살후 2:16). 바울이 사용하는 용법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재림, 갈 5:5; 엡 1:18; 4:4; 딤후 2:13
2.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딤후전 1:1
3.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질 것임, 골 1:22-23; 살전 2:19
4. 소망을 하늘에 쌓다, 골 1:5
5. 복음을 믿음, 골 1:23; 살전 2:19
6. 궁극적 구원, 골 1:5; 살전 4:13; 5:8

7.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8. 그리스도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골 1:27
9. 구원의 확신, 살전 5:8
10. 영생, 딤후 1:2; 3:7
11.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롬 5:2-5
12.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22
13. 양자됨으로 완성됨, 롬 8:23-25
14. 하나님의 칭호, 롬 15:13
15.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 고후 1:7
16.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안내로서의 구약, 롬 15:4

▣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구는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B 에 없다. 따라서 원래의 본문에 속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한편, 이 구는 고대 대문자체 헬라어 사본에 들어 있다(S, A, C, D, K, P). 이 구는 14 절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구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서기관이 이 곳에 옮겨 놓은 경우일 것이다. 이 내용은 문맥이 제시하는 신학에 적절히 들어 맞는다.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7-19 (완전한 문단은 3:7-4:13 까지임)

⁷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⁸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⁹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¹⁰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¹¹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¹²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¹³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¹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¹⁵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¹⁶ 들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¹⁷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¹⁸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¹⁹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3:7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구약의 영감성을 성령께 돌리는 내용이다. 문맥에서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경이 성부께서 온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5,13; 2:6,11; 4:3,4; 10:9; 13:5. 따라서 이 본문은 성령의 신성과 인격에 대하여 말하는 강력한 본문이다(참조, 9:8; 10:15).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 다. 바울
 - 1. 롬 1:4-5; 5:1,5; 8:1-4,8-10
 - 2. 고전 2:8-10; 12:4-6
 - 3. 고후 1:21; 13:14
 - 4. 갈 4:4-6
 - 5. 엡 1:3-14,17; 2:18; 3:14-17; 4:4-6
 - 6. 살전 1:2-5
 - 7. 살후 2:13
 - 8. 딤후 3:4-6
- 라. 베드로 - 벧전 1:2
-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형** 이다
 -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 1.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 2. 출애굽기 3:2,4; 13:21; 14:19
 - 3. 사사기 2:1; 6:22-23; 13:3-22
 - 4. 스가랴 3:1-2
-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11 절은 70 인역 시 95:7-11 의 인용으로서, 광야방랑 시기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불순종함에 대한 경고’이다. 히 3:17 부터 4:13 은 이 본문에 기초한 설명이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그들이 여러 차례 보고 들었지만(참조, 9 절), 순종하기를 의지적으로 거절했고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3:8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방랑 시기에 대한 역사적 암시이다. 맛소라 히브리 본문은 이스라엘이 반역한 곳의 지명을 *프리바*(참조, 출 17:7; 민 20:13)와 *맛사*(참조, 출 17:7; 신 6:16)로 밝힌다. 70 인역은 그 지명을 어휘의 어원이 나타내는 의미로 번역하였다(*프리바*-다툼 및 *맛사*-시험, 참조, 9 절).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신 6:4-5).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지만 후에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즉, 열 두 정탐군의 보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허락받지 못했다.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렙*(BDB 523)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킹리치, 댕커의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1:5; 딤후 2:22; 벘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력,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벘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 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다음과 같다: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또한 호세아 11:8-9 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㉔. 신 10:16, “할레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㉕. 겔 18:31-32, “새 마음”
- ㉖. 겔 36:26, “새 마음” 대 “돌로 된 마음”

▣ “시험하던 날에 ~ 것 같이” 이것은 히브리 용어인 “**יום**”을 글자 그대로 24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회화적 의미로 사용한 예이다(참조, 요 8:56; 히 8:9).

특별주제: **יום**

존 해리스 박사(동부 텍사스 침례대학의 기독교 연구과 학장이며 구약학 교수)의 구약총론 1 권 강의안에서 취하여 수정한 **יום**(날)의 의미에 대한 이론들:

1. 문자적인 24 시간의 이론
 이것은 단도직입적인 접근이다(참조, 출 20:9-11). 이 접근에 대해 갖는 의문이 있다:
 - ㉔. 제 4 일이 될 때까지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첫 째 날에 어떻게 빛이 있었는가?
 - ㉕.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동물(특히 세상의 다른 쪽에 토착적으로 사는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가(참조, 창 2:19-20)?
2. 날이 시대를 말한다는 이론(Day-Age, 장일설)
 이 이론은 성경과 과학(특히 지질학)을 조화시키려 한다. 이 이론은 “날들”이 “지질학적 기간”을 말하는 긴 기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길이는 서로 같지 않으며 균일성에 기초한 지질학의 다양한 지층(기)에 근접한다. 과학자들은 창 1 장의 일반적인 전개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증기와 큰 물이 육지와 바다의 분리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생명의 출현은 그 이후이다. 식물계가 동물계보다 먼저이고 인간은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복잡한 생명 형태이다. 이 접근에 대해 갖는 질문은:
 - ㉔. 태양이 없이 식물이 “시대들”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 ㉕. 만일 이후의 “시대들”이 될 때까지 곤충이나 새들이 없었다면 행성 안에서 수분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3. 대체 장일설
 날들은 실제적으로 24 시간이지만 각 날은 피조물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의해 구분된다. 이 접근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 ㉔. 날-시대의 이론에서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㉕. 본문에서 “날”이 24 시간으로서 또한 한 시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4. 점진적 창조-지각의 격변 이론
 이 이론은 다음을 주장한다: 지질학적 시대들이 발생했던 무한정의 긴 시간이 창 1:1 과 창 1:2 사이에 있었다; 이 기간동안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들이 화석에 의해 제시된 순서대로 창조되었다; 200,000 년 전경에 초자연적 재난이 일어났고 지구 상의 많은 생명체가 파괴되었으며 많은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 후에 창 1 장의 날들이 생겼다. 이 날들은 최초의 창조라기보다 재창조를 가리킨다.
5. 오직 에덴 이론
 창조의 이야기는 오직 에덴동산의 창조와 이의 물리적인 면만을 가리킨다.
6. 간격이론
 창 1:1 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 1:2 에 기초하여 루시퍼(사탄)는 세상을 담당하도록 되었고 그(사탄)는 반역했다고 이해한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셨다. 수 백만년 동안 세상은 버려져 있었고 여러 지질학적 시대를 거쳤다. 창 1:3-2:3 에 기초하여, 주전 4004 년에 하루가

문자적으로 24 시간인 6 일 간의 재창조가 있었다. 어서 주교(주후 1654 년)는 창 5 장과 11 장의 족보를 사용하여 인간창조의 시기를 주전 4004 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족보가 완전하게 연대적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7. 거룩한 주간 이론

창세기의 저자는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신적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문학적 기교로써 날과 주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드러낸다.

3:9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8 절에 있는 “거역하다”와 9 절에 있는 “시험하다”는 맞소라 본문에서는 각각 “*프리바*”와 “*팻사*”로 되어 있다. 두 장소가 출 17:1-7 에서 언급되는데, 그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다.

헬라이어역에서는 “시험하다”와 “시도하다”라는 두 용어로 번역되었다. 대개 앞의 단어 (*페이라조*)는 “과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다”이며, 뒤의 단어(*도키마조*)는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문맥에서는 두 단어가 동의어적 의미를 가진다. 2: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방랑 시기인 40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기적으로 이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눅 16 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마 24:24 의 가르침과 더불어 ‘기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을 의미하지는 않음’과 또 ‘기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지도 않음’을 보여 준다(참조, 마 4:3,6 에서 악마가 예수를 시험한 일).

▣ “사십 년 동안” 이 숫자는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 수는 길고 한정적이지 않은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임이 분명하다. 사실상 이 문맥에서 이 수는 38 년을 의미한다(참조, 민 14:34).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십 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방랑 시기 동안 야웨의 기적을 본 기간’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시편(즉, 바울이 엡 4:8 에서 시 68:18 을 인용한 것)의 히브리 본문과 헬라이어 본문을 다 수정하고 있다. 한편, 맞소라 본문과 70 인역의 본문은 ‘야웨께서 이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음’을 이 구와 관련시켜 말한다(참조, 시 95:10). 영감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랍비들의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종종 해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저자의 의도를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견해와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해석가들이 볼 때 부적합한 방법으로 구약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영감받은 저자들이 사용한 해석학적 방법을 따라 할 수 없다.

3:10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야웨께서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민 14:11,22-23,27-30,35 에 나온다.

▣ “알지 못하는도다” 이 히브리 용어는 단순히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지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관계(참조, 창 4:1; 램 1:5)를 뜻한다. 성경적 믿음은 인식적 요소(진리)와 개인적 요소(신뢰함)를 함께 필요로 한다.

▣ “내 길”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여러 동의어가 있다(참조, 시 19:6-9; 119 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즉, 구약의 이스라엘) 분명히 알려졌지만, 그들은 이를 작정하고 거부했다.

히브리서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 수신자들도 이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도”로 바뀌었다(즉, 마 5:21-48; 막 7:19; 10:5-6). 이 유대인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로 묘사되는 모세’를 철저히 떠나 ‘사도들이 전하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웠다(즉, 램 31:31-34; 겔 36:22-38)!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신명기와 시편에서)

- I. “규례” BDB 349, “법령, 명령, 혹은 규정”
 가. 남성형, *후* - 신 4:1,5,6,8,14,40,45; 5:1; 6:1,24,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45; 148:6
 나. 여성형, *후카* - 신 6:2; 8:11; 10:13; 11:1; 28:15,45; 30:10,16; 시 89:31; 119:5,8, 12,16,23,26,33,48,54,64,71,80,83,112,124,135,145,155,171
- II. “율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18,19; 27:3,8,26; 28:58,61; 29:21,29; 30:10; 31:9; 시 1:2; 19:7; 78:10; 94:12; 105:45; 119:1,18,29,34,44,51, 53,55,61,70,72,77,85,92,97,109,113,126,136,142,150,153,163, 165,174
- III. “증거” BDB 730, “하나님의 법”
 가. 복수형, *에다* - 신 4:45; 6:17,20; 시 25:10; 78:56; 93:5; 99:7; 119:22,24,46,59, 79,95,119,125,138,146,152,167,168
 나. *에뒋 / 에다* - 시 19:7; 78:5; 81:5; 119:2,14,31,36,88,99,111,129,144,157
- IV. “규칙” BDB 824, “명령”
 - 시 19:8; 103:18; 111:7; 119:4,15,27,40,45,56,63,69,78,87,93,94, 100,104,110,128,134,141,159,168,173
- V. “명령” BDB 846
 - 신 4:2,40; 5:29; 6:1,2,17,25; 8:1,2,11; 10:13; 11:13; 15:5; 26:13, 17; 30:11,16; 시 19:8; 119:6,10,19,21,32,35,47,48,60,66,73,86, 96,98,115,127,131,143,151,166,176
- VI. “심판/규례” BDB 1048, “지배” 혹은 “정의”
 - 신 1:17; 4:1,5,8,14,45; 7:12; 16:18; 30:16; 33:10,21; 시 10:5; 18:22; 19:19; 48:11; 89:30; 97:8; 105:5,7; 119:7,13,20,30,39,43, 52,62,75,84,102,106,120,137,149,156,160,164; 147:19; 149:9
- VII. “그의 길” BDB 202,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삶의 양식으로 주시는 지침
 - 신 8:6; 10:12; 11:22,28; 19:9; 26:17; 28:9; 30:16; 32:4;
 시 119:3,4,37,59
- VIII. “그의 말씀” BDB, “”
 가. BDB 202 - 신 4:10,12,36; 9:10; 10:4; 시 119:9,16,17,25,28,42,43,49,57,65, 74,81,89,101,105,107,114,130,130,147,160,161,169

나. BDB 57

1. “말씀” - 신 17:19; 18:19; 33:9; 시 119:11,67,103,162,170,172
2. “약속” - 시 119:38,41,50,58,76,82,116,133,140,148,154
3. “명령” - 시 119:158

3: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진실로 성경적인 내용이다. 한편,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야만 하겠다: 둘 다 인간의 감성과 용어에 기초한 신인동형적인 은유적 표현이다. 하나님께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적절히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진 시간적 존재로서 죄악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사 2:1; 6:22-23; 13:3-22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일부만 예로 들었음)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일부만 예로 들었음)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떡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러한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참조, 요 1:1-18).

▣ “맹세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의 유효성을 긍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 종종 맹세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맹세하고 계신다(참조, 4:3). 즉, 불순종에 따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확실함을 맹세하심으로써 드러내신다.

▣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부분적인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결론 부분이 없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안식”이라는 용어가 3 장과 4 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네 종류의 의미로 사용된다.

1. 창 2:2 에서 이 단어는 창조의 제 7 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나타낸다(참조, 4:3,4,10)
2. 민 13 장과 14 장에서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임을 나타낸다(참조, 3:11,18; 4:8)
3. 시 95:7-11 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안식이 다윗의 시대에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음을 나타낸다(참조, 4:1,9-10)
4.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천국을 나타낸다(하나님의 임재하심)

3:12

NASB, NRSV, NJB “형제들아 조심하라”

NKJV “주의하라”

TEV “조심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하여 조심하라는 뜻이다! 믿음의 삶의 시작 뿐 아니라 끝도 중요하다(참조, 11 장)!!!

▣

NASB, NKJV “형제들아”

NRSV “형제 자매들아”

NJB “형제들아”

3:1 의 설명을 보라. 이 호칭이 ‘같은 아버지를 가진 민족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신자를 뜻한다. 믿는 마음은 끝까지 견고한 마음을 뜻한다(참조, 14 절과 11 절), “떨어져 나가다”가 슈브(“돌아가다” 혹은 “돌다”)라는 히브리어를 반영하듯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구는 “불신의 마음”이라는 히브리 관용구를 나타낸다(참조, 4:6).

▣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이다. 이 동사는 “배교”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apostasy)의 출처이다. 이 단어는 ‘믿음이 점점 없어짐’을 나타낸다(이것은 3:14 과 반대된다).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 (1) 믿는 유대인 아니면 (2) 믿지 않는 유대인? 3:1 에 나오는 “형제들” 및 추가적 구인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은 3:12 에 있는 “형제들”이란 단어와 더불어 이 내용이 신자들에 대한 것임을 밝히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 경고는 (1) 구원에 대한 것인가 혹은 (2) 충성됨에 대한 것인가?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이 충성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충성하셨듯이 그들도 충성되어야만 한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의 관점(바울처럼)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관점에서 본다(참조, 14 절).

13 절에 있는 “떨어져 나가다”는 ‘지속적인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탐군들의 보고 내용을 받아들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이다(참조, 민 13-14 장). 이 문맥에서 “떨어져 나가다”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떨어져 나감”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3:16-18 의 설명을 보라.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초의 결단 및 지속적인 제자도에 참여하기를 허락하셨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그가 랍비들의 논리와 해석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 그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ㄱ. 믿는 유대인들
 - ㄴ. 믿지않는 유대인들
3. 그가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승리를 ‘믿음 및 신실함’의 척도를 사용하여 제시하기 때문이다
4. 그가 끝까지 신실함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참조, 4:14; 11 장).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이 아니라 그 결론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이것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와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 이다. 2: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독자들이 야웨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사실상 야웨를 거부하는 일이 됨은 참으로 역설적인 면을 나타낸다(참조, 요일 5:9-12).

특별주제: 배교(아피스테미)

헬라이어 용어인 *아피스테미*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영어 단어인 “배교”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늘 그렇듯이 문맥이 열쇠이지, 정해놓은 정의가 열쇠는 아니다.

이것은 “~로부터” 또는 “~을 떠나서”의 의미인 전치사 *아포와* “*았다*,” “*서있다*,” 또는 “*고치다*”의 의미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이다. 다음의 사용법을 주목하라(비신학적 용법):

1. 물리적으로 옮기다
 - ㄱ. 성전으로부터, 눅 2:37
 - ㄴ. 집으로부터, 막 13:34

- ㄷ. 사람으로부터, 막 12:12; 14:50; 행 5:38
- ㄹ. 모든 것으로부터, 막 19:27,29
- 2. 정치적으로 옳기다, 행 5:37
- 3. 이성적으로 옳기다, 행 5:38; 15:38; 19:9; 22:29
- 4. 법적으로 옳기다(이혼), 신 24:1,3(70 인역)과 신약, 마 5:31; 19:7; 막 10:4; 고전 7:11
- 5. 빛을 옳기다, 마 18:24
- 6. 떠남으로 무관심을 보이다, 마 4:20; 22:27; 요 4:28; 16:32
- 7. 떠나지 않음으로 관심을 보이다, 요 8:29; 14:18
- 8. 허락하거나 승인하다, 마 13:30; 19:14; 막 14:6; 눅 13:8

신학적 의미에서 동사는 또한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 1. 죄의 잘못을 무효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출 32:32(70 인역); 민 14:19; 욥 42:10 과 신약, 마 6:12, 14-15; 막 11:25-26
- 2. 죄에서 떠나다, 딤후 2:19
- 3. 떠남으로 버리다
 - ㄱ. 율법, 마 23:23; 행 21:21
 - ㄴ. 믿음, 겔 20:8(70 인역); 눅 8:13 살후 2:3; 딤후 4:1; 히 2:13

오늘날 믿는 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누는 현대의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이 있다.

I. 구약

- 가. 열 두(열) 정탐군들의 보고를 들었던 자들, 민 14 장(참조, 히 3:16-19)
- 나. 고라, 민 16 장
- 다. 엘리히의 아들들, 삼상 2, 4 장
- 라. 사울, 삼상 11-31 장
- 마. 거짓 선지자들(예들)
 - 1. 신 13:1-5; 18:19-22(거짓 선지자임을 아는 방법)
 - 2. 렘 28 장
 - 3. 겔 13:1-7
- 바. 거짓 여 선지자들
 - 1. 겔 13:17
 - 2. 느 6:14
- 사.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예들)
 - 1. 렘 5:30-31; 8:1-2; 23:1-4
 - 2. 겔 22:23-31
 - 3. 미 3:5-12

II. 신약

- 가.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타시스*이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재림 전에 악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횡할 것에 대해 말한다(참조, 24:24; 막 13:22; 행 20:29,30; 살후 2:9-12; 딤후 4:4). 이 헬라어 단어는 눅 8:13 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참조, 행 20:29-30; 요일 2:19); 또한 '진실되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을 그들이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참조, 히 3:12).

신학적 질문은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이었을까라는 점이다. 지역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참조, 요일 2:18-19). 종종 우리의 신학적, 교파적(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목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절을 인용하는 방법 외에는) 전통은 명확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준다.

나. 외관상의 믿음

1. 유다, 요 17:12
2. 마술사 시몬, 행 8 장
3. 마 7:21-23 에서 말하는 사람들
4.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5. 요 8:31-59 의 유대인들
6. 알렉산더와 후메내오, 딤편, 1:19-20
7. 딤편 6:21 에 나오는 사람들
8. 후메내오와 빌레도, 딤후 2:16-18
9. 데마, 딤후 4:10
10. 거짓 선생들, 뱌후 2:19-20; 유 12-19
11. 적그리스도들, 요일 2:18-19

다. 열매없는 믿음

1. 고전 3:10-15
2. 뱌후 1:8-11

우리의 조직신학(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등)이 정해진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다고 나에게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관심은 바른 성경해석학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지, 미리 설정된 신학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진 신학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교파적, 문화적, 관계적(부모, 친구, 목사)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자주 고통과 충격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사람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예, 롬 9:6).

3:13 “피차 권면하여”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신자들은 성령과 성자를 본받아 믿음과 신실함을 서로 권면해야 한다(참조, 10:24). 이 용어는 “돕기 위하여 옆에 있는 자”를 뜻하는 단어인 *파라클레테*로서 성령님(참조, 요 14:16,26; 15:26; 16:7)과 예수님(참조, 요 6 일 2:1)을 나타낸다.

▣ **“오늘”** 시 95 편에서 사용한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다윗의 시대에서와 같이 아직 열려져 있음’을 나타낸다. 계속적인 거부가 진리를 볼 수 없는 소경됨(즉, 복음을 거부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및 요한일서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죄)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때를 정하지 못한다(참조, 요 6:44,65).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응답하되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일 뿐이다. 계속적인 거부와 의지적 불신앙은 인간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참조,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 “죄의 속임으로 인해 완고하게 됨”).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를 거부함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집트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일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멈칫거렸다. 신자들이 종종 실제적으로 불신앙을 갖고 행한다. 최초의 믿음과 계속적인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참조, 6,14 절).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적으로 죄를 의인화하여 말한다. 이 진리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주목하라:

1. 형제들을 돌보라(12 절)
2. 너희 중에 누가(12 절)
 - ㄱ.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 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3. 서로 권면하라(13 절)
4.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13 절)
5.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14 절)

이 절들이 얼마나 강력한 권고와 경고를 주고 있는지!

3:14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거주함의 상태로 마쳐진 ‘완료된 과정’을 나타낸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또 하나의 경고이다(참조, 3:6; 4:14; 10:23).

▣

NASB	“만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NKJV	“만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신뢰한 것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NRSV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견고히 잡고 있으면”
TEV	“만일 우리가 처음에 가진 신뢰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NJB	“만일 우리가 처음의 신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인내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이 진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성경적으로 유효한 내용이다. 성경적으로 균형을 갖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단단히 결합하여 이해해야만 한다(참조, 3:6; 4:14; 막 13:13; 롬 11:22; 고전 15:2; 갈 6:7-9; 요일 2:19; 계 2:7,11,26; 3:5,12,21; 21:7). 2:2의 특별주제: 보증을 보라. “끝까지”에 대하여는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대부분의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혹은 역설적 짝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경은 동양의 책으로서 회화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진실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진리는 상반되는 진술로 보여지는 내용과 더불어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극단적인 두 진술 사이에 진리가 들어 있다. 서구인들은 역설적 쌍을 이루는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취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취한 내용의 반대쪽 내용을 알고 하거나 이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취한 진리의 문자적이고 교리적 해석에 치중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가진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서구의 교단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신은 (1) 성경적 진리이며 (2)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의 경험과 (3) 삶의 양식이다.

가. 확신을 위한 성경적인 기초는

1. 성부 하나님의 특성
 - ㄱ. 창 3:15; 12:3
 - ㄴ. 시 46:10
 - ㄷ. 요 3:16; 10:28-29
 - ㄹ. 롬 8:38-39

- . 엡 1:3-14; 2:5, 8-9
- ▣. 빌 1:6
- ⊞. 딤후 1:12
- . 벤티전 1:3-5
- 2. 성자의 사역
 - ㄱ. 그의 제사장적 기도, 요 17:9-24, 특히 12 절
 - ㄴ. 그의 대속적인 희생
 - 1) 롬 8:31
 - 2) 고후 5:21
 - 3) 요일 4:9-1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34
 - 2) 히 7:25
 - 3) 요일 2:1
- 3. 성령의 일하심
 - ㄱ. 그의 부르심, 요 6:44, 65
 - ㄴ. 그의 인치심
 - 1) 고후 1:22; 5:5
 - 2) 엡 1:13-14; 4:3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16-17
 - 2) 요일 5:7-13
- 나. 믿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적 응답이 필요하다
 - 1. 믿음의 시작과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
 - ㄱ. 막 1:15
 - ㄴ. 요 1:12
 - ㄷ. 행 3:16; 20:21
 - ㄹ. 롬 10:9-13
 - 2.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 ㄱ. 롬 8:28-29
 - ㄴ. 엡 1:4; 2:10
 - 3. 확신은 삶의 양식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야고보서
 - ㄴ. 요한일서
 - 4. 확신은 능동적인 믿음과 인내로써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막 13:13
 - ㄴ. 고전 15:2
 - ㄷ. 히 3:14
 - ㄹ. 벤티후 1:10
 - . 유 20-21 절
 - ▣. 계 2-3 장에 있는 일곱교회에 주신 각 편지의 결론적 진술

특별주제: 아르케

“지배”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어떤 것의 “시작” 혹은 “기원”을 의미한다.

1. 창조된 질서의 시작(참조, 요 1:1; 요일 1:1; 히 1:10)
2. 복음의 시작(참조, 막 1:1; 빌 4:15; 살후 2:13; 히 2:3)
3. 처음 목격자들(참조, 눅 1:2)
4. 표적의 시작(기적, 참조, 요 2:11)
5. 권세의 시작(참조, 히 5:12)
6.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확신의 시작(참조, 히 3:14)
7. 시작(골 1:18; 계 3:14)

이것은 “다스림” 혹은 “권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인간 정부의 관리
 - ㄱ. 눅 12:11
 - ㄴ. 눅 20:20
 - ㄷ. 롬 13:3; 딤후 3:1
2. 천사적 권세자
 - ㄱ. 롬 8:38
 - ㄴ. 고전 15:24
 - ㄷ. 엡 1:21; 3:10; 6:10
 - ㄹ. 골 1:16; 2:10,15
 - ㅁ. 유 6 절

거짓 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멸했다. 그들은 무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천사, 공공적 권세와 교회의 지도력보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욕구를 더 앞세웠다.

3:15 “만일” 이것은 14 절과 마찬가지로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시 95:7-8 의 인용으로서, 3 장의 핵심을 이룬다.

3:16-18 이 절들에는 세 가지의 수사적 질문이 나온다(참조, 16,17,18 절). 만일 이 유추를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참조, 민 14 장)은 영원토록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자들을 나타낸다. 그들 가운데 모세, 아론, 고라의 반역시 신실했던 제사장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안식”과 “불순종”과 관련을 갖는 언어유희에 속한다. 이 두 용어는 이 문맥의 핵심용어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불순종”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각각 따른다!

3:19 19 절에 나오는 불신앙은 광야 방랑시기에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신실하지 않았음에 대해 말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3:1 에서 예수를 “사도”로 부르는가?
2. “안식”의 여러 용법을 말하라.
3. “성도의 인내”를 정의하라.

히브리서 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경고와 권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3:4-4:13)	안식의 약속	(3:4-4:13)	(3:4-4:13)	(3:4-4:13)
4:1-11	4:1-10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는 말씀 4:11-13	4:1-11	4:1-7 4:8-11	4:1-11
4:12-13		4:12-13	4:12-13	4:12-13
대제사장 예수	체휼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주제	대제사장 예수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4:14-5:10)		(4:14-5:14)	(4:14-5:10)	(4:14-5:10)
4:14-16	4:14-16	4:14-16	4:14-16	4:14-16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저자는 예수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 및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경고를 이쪽 저쪽에서 말한다.

- 나. 옛 언약에 대한 예수의 우월성(새 언약)
1. 그는 더 우월하신 계시이시다(선지자들, 1:1-3)
 2. 그는 더 우월하신 증보자시다(천사들, 1:4-2:18)
 3. 그는 더 우월하신 종이시다(모세, 3:1-6)
 4. 그는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시다(아론, 4:14-5:10; 6:13-7:28)
 5. 그는 더 우월하신 언약이시다(구약, 8:1-13; 9:15-22)
 6. 그는 더 우월하신 성소이시다(성전, 9:1-11,23-28)
 7. 그는 더 우월하신 제사이시다(짐승들, 9:12-14; 10:1-18)
 8. 그는 더 우월하신 산이시다(옛 언약인 시내산과 새 언약인 시온산, 11:18-29)
 - 9.
- 다. 예수의 우월성에 비추어, 그의 복음을 거부함(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2-38) 혹은 유대교로 돌아감(즉, 옛 언약)에 대하여 일련의 경고를 받는다.
1. 2:1-4
 2. 3:7-4:13
 3. 5:11-6:12
 4. 10:19-39
 5. 12:14-29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13

¹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흑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²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³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⁴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렸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⁵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⁶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⁷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⁸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⁹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¹⁰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¹¹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¹²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¹³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4:1

NASB, NKJV “두려워할지니”

NRSV, TEV “주의할지니”

NJB “조심할지니”

이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이다(“우리가 두려워하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경고들(참조, 2:1-4; 3:7-13; 4:1-13; 5:11-6:12; 10:26-39; 12:14-17)은 두려운 느낌을 갖게 한다(참조, 11 절). 이러한 경고는 구원과 확신이라는 커다란 주제와 관련을 가진다.

▣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언어유희의 연속이다(즉, “그의 안식,” 참조, 1,3,5,8,9,10,11 절). 저자는 랍비들이 사용한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소망에 대한 네 가지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

1. 창 2:2, 창조시 제 7 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
2. 민 13-14 장,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함
3. 시 95:7-11,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제시됨
4. 1 절 및 10-11 절, 하나님과의 평화 및 하나님과의 삶(천국)을 뜻하는 안식의 날

▣

NASB, NKJV “그것에 못미칠”

NRSV “그것에 이르는 것에 실패할”

TEV “약속된 저 안식을 받기에 실패할”

NJB “그의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는 약속에 그가 너무 늦게 오는 일”

이것은 70 인역에서 *하마르티아*로 번역된 *하타*라는 히브리 용어(“목표를 빗나가다”)를 나타내는 말로서, “모자라다” 혹은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한다(참조, 12:15; 롬 3:23). 관련된 의미로서는 “너무 늦게 오다”가 있다(참조, NJB).

4:2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 모든 이가 믿음으로써 이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표현으로 나온다(즉,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따라서 그 땅에 가라”; “율법을 지켜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등). 각 사람 혹은 각 그룹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즉, 행함)으로써 응답해야만 했다.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서 믿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

▣ “그들과 같이” 이들은 열 정탐군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기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참조, 민 13-14 장) 도리어 믿음을 가져 가나안에 들어 갈 수 있었지만 믿지 않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

NASB “왜냐하면 이것이 들은 자들을 신뢰함과 결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NKJV “그것을 들은 자들을 신뢰함으로 조합하지 않고”

NRSV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자들의 믿음과 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TEV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였다”

NJB “왜냐하면 들은 자들의 믿음을 그들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에 변이가 나타난다. 가장 좋은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나타내는 완료 수동 목적격 남성 복수 분사로 되어 있다(참조, NASB, NKJV, NRSV, REB). 그

다음으로 좋은 본문에서는 들은 메시지를 믿는 것을 나타내는 **완료 수동 주격 남성 단수 분사**이다 (참조, TEV, NJB, NIV).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적 질문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성인(20 세 이상)의 믿음(구원) 혹은 믿지 않음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지 않은 일은 (1)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는가 아니면 (2)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저자가 “안식”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야웨를 처음에 믿었지만(즉, 구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즉, 가나안을 취함)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일 것이다. 이것은 제 1 세기의 독자들이 가졌던 질문의 내용이었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뜻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가? *새 국제 주석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F. F.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분명하다: 이 내용은 구원을 가져 오는 ‘복음을 듣는 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 믿음을 사용함에 대한 것이다;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일 것이다”(73 쪽).

4:3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영감받은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1:13; 4:3,4; 10:5,9; 13:5). 이 구는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 이것은 시 95:11 의 인용이지만(5 절 및 3:11 도 그러하다), 창 2:2 에 있는 바 하나님의 안식(창조시 제칠일에 안식하심)에 대한 암시도 추가되었다.

4:4 “어딘가에 이렇게 일렸으되” 이것은 구약 전체가 영감으로 되었음을 가리키는 랍비적 관용법이다(참조, 2:6). “어딘가에”(즉, 본문의 정확한 위치)와 “누가”(즉, 본문의 인간적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저자이시다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구약의 어느 본문에 이 내용이 있음을 이 저자가 잊어버렸음을 뜻하지 않는다.

▣ “제칠일에 관하여는” 랍비들은 하나님의 안식(즉, “안식의 날”)이 결코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창 1 장의 일반적 형식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 이더라”가 창 2:2,3 에 있는 창조의 제칠일과 결코 관련되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출 20:11).

4:5 이것은 시 95:11 의 인용이다.

4:6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은 믿음이 없음을 입증한다(참조, 3:18; 4:6,11). 4 장의 커다란 문맥은 민 13-14 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절과 특별한 관련을 가지는 본문은 ‘므리바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에 대한 내용인’ 시 95:7-11 이다.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용어가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A, B, D 에 나온다. 한편, “불신앙”이란 용어가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 과 고대 대문자체 사본인 **x**에 나온다.

4:7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렸으되” “정하여”라는 헬라어 용어에서 “지평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이 용어는 경계를 정함을 뜻한다. “다윗의 글에”는 시 95:7-8 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지만 70 인역은 정확하게 이 시편을 해석하며 또한 전통에 따른 이 시편 저자의 이름을 삽입하고 있다. 저자의 논점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까지도 열려 있었음에 기초한다.

시 95:7-11 은 3 장과 4 장의 문맥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다. 각 곳에서 구약 본문의 다른 부분이 각각 강조되었다(설교의 경우처럼).

1. 3:7-11 은 시 95:8 의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를 강조한다
2. 3:15 은 시 95:9 의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할 때에”를 강조한다

3. 4:3,5 은 시 95:11 의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를 강조한다
4. 4:7 은 시 95:7 의 “오늘”을 강조한다

4: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종종 불린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안식으로 이끈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은 “안식”이라는 용어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참조, 9-10 절). 8-10 절에 비추어 볼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안식”을 세 가지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 약속의 땅인 가나안(8 절, 여호수아의 시대, 민 13-14 장)
2.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참조, 9 절, 즉, 다윗의 시대, 시 95 편)
3. 창세기 2 장(4 절)에 있는 바 창조시 하나님의 안식(10 절)
4. 천국(1 절과 11 절)

▣ “마음” 3: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호수아” 흠정역에서는 “예수”로 되어 있다. 이 번역은 제네바역과 비숍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지만, 문맥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지지한다. 두 이름이 모두 같은 철자로 되어 있다(즉, 여호수아 - 히브리어; 예수 - 아람어)! 초대교회는 종종 여호수아를 예수의 모형으로 사용하였다(참조, 행 7:45, 이곳에서도 같은 종류의 번역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 “그가” 이것은 시 95 편의 신적 저자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4:9 이것은 시 95 편에 대해 저자가 설명한 내용의 요약이다. 안식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있었다(참조, 창 2:2); 두 번째로, 이것의 역사적 성취가 있었다(여호수아); 세 번째로, 이후에 주신 기회가 있었다(다윗의 시대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직 주어지고 있다.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단지 유대인인 자들에게가 아니라)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4:10,11 10-11 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형이 부정과거로 되어 있다. 이 시제는 (1) 완료된 행동 혹은 (2) 삶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나타낸다. 10 절과 11 절은 10 절에 나오는 “안식”이 천국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 신자들이 어느 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지만(참조, 계 14:13), 11 절은 육체적 생명이 다하기까지 신자들이 계속하여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인내해야 함을 명백히 주장한다. 11 절은 강력한 경고를 발한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완전히 거저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성부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성령께서 그 믿음을 확신하도록 이끄시는 선물이다. 한편, 주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사람을 대하시기로 정하셨다.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또한 계속하여 응답해야 한다. 구원은 천국행 표도 아니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아니며, 오히려 매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언약에는 혜택은 물론 의무가 따른다.

4:11

NASB, NKJV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NRSV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모든 노력을 할지니”
TEV	“우리가 저 안식을 받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할지니”
NJB	“우리가 이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도록 나아갈지니”

영어에서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도록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단어는 “열심을 내다” 혹은 “서두르다”를 의미한다(참조, 살후 2:17; 딤후 4:9).

▣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3:18 과 4:6 을 보라.

4:12 “하나님의 말씀은” 12 절과 13 절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로고스)이라는 용어는 예수를 지칭하지(요 1:1 의 경우처럼)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참조, 13:7) 혹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의 계시를 통해 주신 기록된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이것이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의인화된다
2. 이것이 찌르는 능력을 가진 검과 같다
3. 이것은 모든 것을 아는 재판장과 같다(참조, 13 절)

H. E. 다나는 *유대적 기독교*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기초하여 “말씀”(로고스)이 “심판하기” 혹은 “책임을 묻기”를 의미한다고 제시한다. 그는 의사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원저자의 전체적 논리 곧 ‘하나님께서 검사하여 심판하심’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227 쪽). 따라서 이 본문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별하사 심판하심을 말하는 내용이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종종 로고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면서(참조, 2:2; 4:2; 5:13; 7:28; 13:7) ‘말로 하신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인 *레마*(참조, 6:5; 11:3)를 사용하는 점은 흥미롭다.

▣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 . . 예리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을 나타낸다(참조, 창 1:1,3,6,9,14,20,24,26; 시 33:6,9; 148:5; 사 40:8; 45:23; 55:11; 5:17-19; 마 5:17-19; 24:35; 벘전 1:23).

▣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참조, 요 12:48; 계 1:6; 2:12,16, 여기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사용되었다).

▣ “혼과 영”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이분법으로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지구 및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이중적 관계를 나타낸다. *네페쉬*라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 사람과 동물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영”(루아흐)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내적 존재를 꿰뚫는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두 부분(이분법)으로 되었거나 세 부분(삼분법)으로 되었음을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다(참조, 살전 5:23). 성경에서 볼 때, 인간은 전적으로 통일된 존재이다(참조, 창 2:7). 인간 존재가 이분법, 삼분법, 혹은 단일체라는 이론에 대한 좋은 설명이 다음의 두 책에서 잘 제시된다: 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 신학*, 제 2 판 538-557 쪽 및 프랑크 스태그의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다극성*을 보라.

▣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심장”은 그 사람 전체 및 그의 내적 동기를 뜻하는 말이다. 3:8 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신다.

4:13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아신다(참조, 삼상 16:7; 시 7:9; 33:13-15; 139:1-4; 잠 16:2; 21:2; 24:12; 렘 11:20; 17:10; 20:12; 눅 16:15; 행 1:24; 15:8; 롬 8:27).

▣
NASB “그의 눈 앞에”
NKJV “벌거벗고 열린”
NRSV “벌거벗고 탄로가 난”
TEV “드러나고 열려진”
NJB “가려지지 않고 완전히 다 펼쳐 열린”

이 은유적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턱을 올려 목이 다 노출된”을 뜻한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구약의 표현이었다; 여기서는 심판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철저히 알고 계신다.

개역개정 4:14-16(이 문학적 단위는 5:10 까지 이어짐)

¹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¹⁵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14 “큰 대제사장” 저자가 3:1-6 에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처음 언급했다. 3:7-4:13 의 경고와 권면에 이어 그는 이제 다시 그 주제를 다룬다. 5:11-6:12 에서 경고를 다룬 후에 6:13-10:39 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제시함에서 이러한 형태가 다시 나타난다. 2: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히브리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신약의 유일한 책이다. 저자는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하여 비교한다.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수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셨다. 한편, 1:3; 2:17,18; 3:1 에서는 예수를 “한 제사장”으로 부른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단 두 본문에서만 제사장으로 제시된다: 시 110 편과 속 4 장. 이 두 본문에서는 ‘왕과 제사장’인 메시아를 제시한다.

▣ “승천하신 이” 이것은 완료 시제이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셨다(천국이 3 층 혹은 7 층으로 되었다). 그가 성부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되돌아가셨다. 따라서 이 일은 그가 오신 일(성육신)과 가신 일(승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이제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천하게 된다. 영지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하늘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장벽이다(애온). 하지만 구약에서 하늘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새들이 나는 공간
2. 비가 내려오는 하늘의 창문
3. 태양과 달과 같은 별이 있는 공간
4.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곳

천국이 3 층으로 되었는가 혹은 7 층으로 되었는가에 대해 랍비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했다(참조, 엡 4:10; 고후 12:2). 랍비들은 하늘에 있는 장막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문맥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적합하다(참조, 9:23-28).

특별주제: 하늘들

구약에서 “하늘”은 대개 복수형(즉, *샤마임*)으로 되어 있다. 히브리 용어는 “높이”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을 나타낸다.

창 1:1 에 있는 “하늘들과 땅”의 복수형은 하나님께서 (1) 이 지구의 대기층 혹은 (2) 모든 실재(즉, 영적 및 물질적)를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에 기초하여 다른 본문들이 천국의 여러 층을 뜻하는 말로써 인용되었다: “하늘들의 하늘”(참조, 시 68:33) 혹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참조, 신 10:14; 왕상 8:27; 느 9:6; 시 148:4). 랍비들은 하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1. 이층 천(즉, R. 유다, 하기가 12b)
2. 삼층 천(레위의 증거 2-3; 이사야의 승천기 6-7; 시 114:1 의 미드라쉬 테힐렘)
3. 오층 천(바룩 3 서)
4. 칠층 천(R. 시몬. 라키스; 에녹 2 서 8 장; 이사야의 승천서 9:7)
5. 십층 천(에녹 2 서 20:3b; 22:1)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물질세계와 분리되어 계심과 그의 뛰어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하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는 일곱이었다. A. 코헨 (*모든 이의 탈무드*, 30 쪽)은 이것이 별들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 수라고 본다(즉,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칠일에서 제 칠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낸다).

바울은 고후 12:2 에서 “삼층” 천(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몸소 계신 위엄있는 장소를 표현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다!

▣ “예수” 이것은 예수를 새 여호수아로 제시하는 모형론적 표현일 것이다. 이 두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다(즉, 여호수아 - 히브리어; 예수 - 아람어).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과 관련있는 자료를 상당히 많이 암시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였듯이 예수께서도 그들은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나사렛 예수께 적용된 구약의 신적 호칭인 동시에 저자가 예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하여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참조, 1:2; 3:6; 5:8; 7:28).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강조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참조, 겔 2:1 - 인성; 단 7:13 - 신성).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신약의 주요 기둥이다(참조, 요 1:1,14; 요일 4:1-6).

▣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이것은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본문이다(참조, 2:1; 3:6,14). 우리는 처음에 하는 결단(참조, 요 1:12; 3:16; 롬 10:9-13)과 더불어 계속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7:13-27; 28:19-20; 엡 1:4; 2:10). 둘 다 중요하다! 믿음은 반드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백”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3:1 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성경의 교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인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쪽을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응답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계속적인 노력이 이에 필요한가?
- 인내의 주제에 대하여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17,20; 3:5,12,21)

- ㄴ.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절)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2. 하워드 마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쉽, 1969
3. 로버트 쉰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 곧 (1) 열매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게 하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못 취하여 일부 국한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 문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및 칼빈 대 알미니안(반 페라기우스) 사이에 역사적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이 주제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성경본문 (요 10:27-30; 롬 8:31-39; 요일 5:13,18; 뱀전 1:3-5) 및 엡 2:5,8 의 **완료 수동 분사**같은 **동사 시제**를 앞세워 주장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주는 “견디라,” “지속하라” 혹은 “계속하여 하라”와 같은 경고를 말하는 성경본문을 앞세워 주장한다(마 10:22; 24:9-13; 막 13:13; 요 15:4-6; 고전 15:2; 갈 6:9; 계 2:7,11,17,26; 3:5,12,21; 21:7). 나는 개인적으로 히 6 장과 10 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많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본문들을 배교에 대한 경고로 본다. 마 13 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요 8:31-59 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완료 시제 동사**가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고전 1:18; 15:2; 고후 2:15 의 경우처럼 **현재 시제**를 갖는 본문을 인용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본문을 사용하는 해석을 신학적 체계가 얼마나 남용하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예이다. 대개의 경우, 모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틀로써 어떤 주요 원리나 본문을 사용한다. 이러한 틀이 어떤 자료에서 온 것이든 이것의 사용에 대해 조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구적 논리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이루는 진리의 양쪽을 받아들이며, 또 그러한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신약은 신자들에게 믿음에 따른 안전함과 더불어 계속적인 믿음과 경건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다. 기독교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으로 하는 응답과 더불어 계속되는 회개와 믿음의 응답을 요구한다. 구원은 어떤 산물(천국행 표나 화재보험에 가입함)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결단이요 제자됨이다. 신약은 모든 **동사 시제**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한다:

부정과거(완료된 행위),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딤텔 3:5

완료형(계속적인 결과를 낳는 완료된 행위), 엡 2:5,8

현재(계속적 행위), 고전 1:18; 15:2; 고후 2:15
 미래(미래의 사건 혹은 어떤 일들), 롬 5:8,10; 10:9; 고전 3:15; 빌 1:28; 살전 5:8-9;
 히 1:14; 9:28.

4:15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A. T. 로벗슨은 가능성이 있는 또 하나의 번역을 제시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겪다”(참조, 2:17-18). 예수께서는 죄된 성품을 결코 가지지 않으셨고 또 죄도 결코 짓지 않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인해 진정으로 시험에 노출되었다.

▣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용어(*πειραζο*)는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험하다”라는 의미이다(참조, 2:18; 3:9; 11:37).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시험하는 자의 경우처럼 외부 사람에 의해 완료된 상태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이 용어는 마 4:3(또한 막 1:13 을 보라)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시험하는 자”). 2: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며 완전히 인간이시다. 그럼으로 그는 우리를 이해하신다! 한편 그는 타락한 인간의 반역 및 성부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즉, 무흠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참조, 2:17-18; 7:26; 눅 23:41; 요 8:46; 14:30; 고후 5:21; 빌 2:7-8; 뱀전 1:19; 2:22; 3:18; 요일 3:5).

4:16 “그러므로 우리는 . . .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가정법으로서 주어의 계속적인 관여 및 그러한 가능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 용어는 70 인역(LXX)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리키는 전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히브리서에서 범죄한 인간이 예수의 희생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나타낸다(참조, 4:16; 7:25; 10:1,22; 11:6).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참조, 출 19:5,6; 뱀전 2:5,9; 계 1:6).

▣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라는 용어는 “대담하게 말할 자유”를 뜻한다. 우리는 자유를 가졌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졌다(참조, 10:19,35).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같은 상징이다(참조, 마 27:51; 마 15:38; 눅 23:45). 예수를 통하여 죄악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정죄가 아니라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은혜의 보좌” 이것은 수동태 용법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늘을 영적 장막으로 보았으며(참조, 9:11,24) 하늘에 있는 보좌로 보았다(참조, 1:8; 4:16; 8:1; 12:2).

▣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문맥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시험을 받을 때에 (1) 예수를 통하여 (2) 자신의 성품을 인하여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우리가 이 장을 이해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2. 히브리서에서 “굳게 잡아”를 왜 강조하여 자주 말하는가?
3. 4 절에서 예수님을 “예수” 및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에 어떤 신학적 강조가 있는가?
4. “승천하신”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성도의 인내는 신자가 안전함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히브리서 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대제사장 예수 (4:14-5:10) 5:1-4	대제사장의 자격 5:1-4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 (4:14-5:14) 5:1-6	대제사장 예수 (4:14-5:10) 5:1-6	공홀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4:14-5:10) 5:1-10
5:5-10	5:5-11	5:7-10	5:7-10	
배교에 대한 경고 (5:11-6:12) 5:11-6:8	영적 미성숙 5:12-14	5:11-14	믿음을 버림에 대한 경고 (5:11-6:17) 5:11-14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학 5:11-14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3:1에서는 두 용어를 사용하여 예수를 설명한다: “사도”와 “대제사장.” 두 번째 용어는 히브리서에서 독특하게 제시하는 개념이다(참조, 2:17; 3:1; 4:14-15; 5:5,10; 6:20; 7:26,28; 8:1,3; 9:11; 10:21).

- 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는 개념이 자신의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 다. 5:11-6:20 의 단락은 믿는 유대인 및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으로서 멜기세덱에 대한 논의를 저자가 다루는 중에 삽입한 부분이다.
- 라. 5:11-6:20 에 세 가지 핵심적 대명사가 나온다: “우리”(5:11); “너희”(5:11-12 에 3 회); “그들”(6:4-8). 이 대명사들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1. “우리”와 “우리를,” 5:11; 6:1-3, 저자 및 그의 선교팀
 2. “너희,” 5:11-12; 6:9-12, 저자가 글을 쓰는 대상인 믿는 유대인
 3. “그들,” 6:4-8, 편지 수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 및 그들의 친구들로서 믿지 않는 유대인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4
¹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²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³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⁴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1-4 1-4 절은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1. 한 지파(레위) 출신임
2.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섬
3.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참조, 8:3; 9:9)
4. 자기도 죄인이기에 죄인들을 용납함(참조, 레 16:3,6)
5. 자신에게 존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심을 인해 존귀를 받음

5:2

NASB, NRSV	“상냥하게”
NKJV	“동정심”
TEV	“상냥할 수 있음”
NJB	“동정심을 가지고”

이 헬라이어 용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고 70 인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단어는 *아리스테아스* 256 에서 온건한 철학을 가리킨다(참조, 물툰과 밀리간, *헬라이어 성경의 어휘* 406 쪽).

▣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구약에서 무지함과 과격함의 죄는 제사를 통해 용서받았지만(참조, 레 4:2,22,27; 5:15-18; 22:14; 민 15:22-31)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참조, 신 1:43; 17:12,13; 18:20; 시 51 편).

신약의 *워드픽처* 제 5 권에서 A. T. 로벗슨은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던 구약의 고의적인 죄’ 및 ‘3:12 와 10:26 에 나오는 경고’ 사이에 나타나는 신학적 연결성을 지적한다. “고의적인 배교(3:12; 10:26)에 대하여는 어떠한 용서도 없다”고 그는 진술한다(368 쪽).

바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진리를 모르고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공휼하심을 자신이 받았다고 믿었다.

5:3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레 9:7-17 에 나오는 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행하는 일을 가리킨다(최초의 성결례; 16:6-19 속죄일; 히 9:7). 히 7:26,27 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결코 드리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에 대해 듣게 된다(참조, 4:15).

▣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레위)를 택하시고 또 한 가족(아론의 가족, 참조, 출 28:1; 대상 23:13)을 임명하사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참조, 민 16:40; 18:7; 삼상 12:9-14; 대하 16:18).

개역개정 5:5-10

⁵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⁶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⁷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⁸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⁹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¹⁰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5:5 “그리스도께서 . . .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요 8:50,54 을 보라.

▣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신데 대제사장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는 일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구약의 인용에 기초하여 심도있게 이 논의를 하고 있다 (참조, 4:14-5:10; 6:13-7:28).

▣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자는 왕의 시편인 시 2:7 을 인용하여 성부께서 예수님의 높은 지위를 확인해 주셨음을 주장한다. 성부께서는 예수의 침례(세례) 및 변화산 사건(참조, 마 17:5) 때 이 시편과 사 42:1 을 함께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아리우스(즉, 주후 제 4 세기, 그는 예수의 완전한 신성에 관해 아타나시우스와 벌인 신학적 논쟁에서)는 이 인용의 두 번째 부분을 사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가장 높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참조, 잠 8:22-31). 하지만 이 인용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아들되심에 있다 (참조, 1:2; 3:6; 5:8; 7:28). 원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을 위해 매년 새롭게 갖는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5:6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시 110:4 의 인용이다. 이 시편은 메시아께서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심을 특별히 말하는 독특한 본문이다(즉, 두 감람나무, 참조, 슥 4:3,11-14; 또 가지인 여호수아, 참조, 6:13). 우리는 사해사본을 통하여 에센파가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안다 - 왕과 제사장.

예수께서는 이 두 직임을 모두 성취하셨다. 사실상 그는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세 직임을 모두 성취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참조, 1:1-3).

▣ “멜기세덱” 이 주제는 7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진다. 이 묘사는 창 14:17-20 에서 취한 내용이다. 그는 가나안의 제사장/살렘(여부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시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또 영원토록 육체를 가지신 상태로 있으신다.

▣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은 마 26:37 과 눅 22:44 에 기록된 바 겿세마네에서 한 예수님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랍비들이 말하는 기도의 세 단계와 관련을 가지며, 예수께서 겿세마네 동산에서 강렬한 감성으로 기도하신 일 혹은 요 17 장에 나타난 바 대제사장으로서는 드린 기도를 가리킨다. 요 17 장에 있는 기도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저녁에 드린 기도로서 겿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있었다.

▣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는가? 죽음은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며 예수께서는 완전히 사람이셨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성부와의 교제를 잃게 됨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라고 나는 생각한다(참조, 막 15:34; 시 22 편의 인용임). 그는 자신이 누구시며 또 왜 오셨는지를 아셨다(참조, 막 10:45; 마 16:21).

성부 뿐 아니라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예수의 부활에 관련하셨다(참조, 성령, 롬 8:11; 예수, 요 2:19-22; 10:17-18); 신약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부라고 주장한다(참조, 행 2:24; 3:15; 4:10; 5:30; 10:40; 13:30,33,34,37; 17:31; 롬 6:4,9; 10:9; 고전 6:14; 고후 4:14; 갈 1:1; 엡 1:20; 골 2:12; 살전 1:10).

이 구는 야웨께서 메시아를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하심에 대해 말하거나(참조, 시 33:19; 56:13; 혹은 호 13:14) 혹은 메시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에 대해 말하는 구약의 여러 본문(참조, 시 16:10; 49:15; 86:13)을 반영할 것이다. 만일 이 문맥이 겿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키는 것이라면, 첫 번째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

▣
NASB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NKJV “그리고 그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NRSV “그의 경외하는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TEV “그가 겸손하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느니라”
NJB “그의 존경하심으로 들으심을 획득하였느니라”

이 구는 롬 1:4 과 마찬가지로 “양자설”이라는 이단적인 신학적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본문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예수의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인 예수께 상을 주셨다고 말한다. 신약 전체가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선한 섬김에 대해 상을 받으셨다는 역설적 내용을 제시한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사실이다.

영어역본에 나타나는 차이는 “경외”라는 히브리 단어의 애매성에 기인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존경하여 갖는 두려움”이나 “경건”을 뜻하지 “무서워 함”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굳게 붙잡다”를 뜻한다.

5: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라는 단어는 대문자가 아니다.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을 가정에서 일하는 종과 대비시키는 연속적 항목의 하나이다(참조, 1:2; 3:6; 5:8; 7:28).

▣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단락 전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참조, 4:14)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심을 강조한다(참조,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7 절; 5:7). 그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기도하셨다; 그는 우셨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의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하나의 진리(한 본질)로 받아들이기는 신학적으로 쉽지 않다. 교회를 통하여 볼 때 어느 한 쪽을 약화시킬 때 이단이 발생했다(참조, 요일 4:1-3).

신자들이 반드시 예수의 모본을 따라야 함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믿는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셨듯이 고난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 고난은 이 일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룬다(참조, 2:10; 마 5:10-12; 요 15:18-21; 16:1-2; 17:14; 롬 8:17; 고후 4:16-18; 뱀전 4:12-19).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가 온전하게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께 일어난 인간의 발달과정을 뜻함이 분명하다(참조, 눅 2:40,52). 고난 밖에는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신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일인데(즉, 롬 8:29; 엡 4:13), 왜 오늘날의 서구 기독교인들은 성숙을 가져오는 이 중요한 것을 피하고 있단 말인가?

5:9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은 현재 수동(디포) 분사이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성숙하다” 혹은 “주어진 일을 충분히 감당하다”를 뜻한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온전하게 됨 혹은 성숙함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다(참조, 2:10; 5:9,14; 6:1; 7:11,19,28; 9:9,11; 10:1,14; 11:40; 12:2,23).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은 참된 제자도의 증거이다(참조, 눅 6:46). 예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순종은 참된 구원의 증거이다!

5:10 “하나님께 . . .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호칭을 언급하였다: (1) 아들 (2) 사도 (3) 대제사장. 2:17의 특별주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라.

▣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불린 유일한 인물로서 랍비들의 논쟁에서 요구하는 신학적 조건을 잘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암시되고 있다. 멜기세덱은 창 14:17-20 및 시 110:4에 기록된 바 그림자 같은 인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7장에서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5:11-14

¹¹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¹²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¹³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¹⁴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5:11-6:12 이것은 한 문학적 단위를 이룬다. 장과 절의 구분은 영감되지 않았고, 상당히 후에 추가된 것이다. 6장에 대한 문맥적 통찰을 보라.

5:11 “(그를)” 이 대명사는 남성 혹은 중성이다. 나는 중성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참조, NRSV, TEV, NJB, NIV).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가리킨다. 히 5:11-6:20은 신학적으로 삽입된 내용이다. 저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다시 다룬다.

▣ “우리가” 이것은 문학적 복수형으로서 한 명의 저자를 가리킨다.

▣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이 문맥은 히브리서에서 세 대명사가 사용된 독특한 본문이다: “너희”(5:11,12; 6:9-12), “우리”와 “우리를”(5:11; 6:1-3,9), “그들”(6:4-8). 문맥적 통찰의 방향을 보라. 이것은 히브리서가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여전히 만족해 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안정된 상태임을 강조한다. “둔하다”라는 용어는 신약에서는 이곳과 6:12 에서만 사용되었다. 저자가 자신이 다루는 주제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독자들의 미성숙함을 인하여 설명함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잘 듣지 못했고 게을렀다.

5:12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비록 이 신자들이 오랫동안 믿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 시간적 길이는 성숙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논란이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짐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6:1-2). 이것은 아마도 (1) 정부의 박해를 피하고/또는 (2)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대위임”의 명령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NASB	“초보적 원리들”
NKJV	“첫 원리들”
NRSV	“기본적 요소들”
TEV	“첫 과”
NJB	“원리들의 요소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를 가진다(즉, 의미의 영역이 넓음).

1. 주제에 대한 기초적 가르침
2. 주제의 기원
3. 천사들의 능력(참조, 갈 4:3,9; 골 2:8)

문맥에 비추어 볼 때 1 항이 가장 적합하다. 미성숙한 이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적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자가 생각했다(1 항). 하지만 6:1에서는 2 항이 가장 적합한데 그 이유는 6:1-2 이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가르침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깊게 나아가야만 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는 *스토이케이아*이며 6:1 에서 사용한 단어는 *아르케이아*(3:14 의 특별주제: *아르케이*를 보라).

▣ “하나님의 말씀” 이 용어는 행 7:38 과 롬 3:2 에서 구약의 진리를 뜻한다.

▣ “단단한 음식... 젖”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각각 적합한 때가 있다. 그러나 젖은 성숙한 자에게 대하여는 부적합하다(참조, 고전 3:2; 벰전 2:2).

5:13 “의의 말씀” 해석을 위해 해야 할 질문은 ‘이 구가 14 절에 있는 바 “선과 악”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이다. NJB 는 앞의 것을 “구원하는 정의의 교리”와 연결시켜 번역하였다. TEV 는 “옳은 것과 그른 것”(13 절) 및 “선과 악”(14 절)이라는 평행적 표현으로 이것을 번역하였다. 첫 구는 미성숙함의 문제를 다루며 두 번째 구는 행함/경험이 없는 문제를 다룬다.

이 구가 12 절 및 6:1 에 있는 “초보적 원리들”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6:1-2 에 나오는 유대교의 교리에 상반되는 복음을 가리킬 것이다.

의에 대한 단어 연구를 위하여서는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5:14 “**장성한 자**” 이 용어는 5:9 에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와 같은 어근이다. 텔로스는 성숙함 혹은 ‘주어진 과제를 감당할 수 있게 충분히 준비됨’을 뜻한다.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수의 인성은 신실함 및 자라야 할 성숙함의 모본(참조, 8-9 절)으로서, 독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어느 정도 박해를 겪었다(참조, 12:4). 하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대교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다(참조, “움츠러 듬,” 10:38).

▣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어떤 행동이 반복되어 그것이 정착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자꾸 연습하다 보면 아주 잘하게 된다! 12:11 에서는 바로 이 동사를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하였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2. 예수님 및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성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어떤 요소들이 이들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히브리서 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배교에 대한 경고 (5:11-6:12)			믿음을 버림에 대한 경고 (5:11-6:12)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다
5:11-6:8	나아가지 않음의 위험 6:1-8 더 나은 미래	권고 및 목적의 선언 6:1-8		6:1-8 소망과 격려의 말
6:9-12	6:9-12	6:9-12	6:9-12	6:9-12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6:13-20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6:13-20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6:13-20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5:11-6:12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6:1-3 에서 사용한 “우리가/우리를,” 6:4-8 에서 사용한 “그들이/그들을,” 6:9-12 과 5:11-12 에서 사용한 “너희가(들)”라는 **대명사**를 인해 나는 6 장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라고 믿고 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따라서 6:1-2 에 나타난 기본적 교리가 지닌 유대적(기독교적이 아님) 성격은 유대교와 공유했던 진리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 저자와 그/그녀의 선교팀(“우리가”와 “우리들,” 1-3,9 절; 5:11)
 2. 믿지 않는 유대인들(“그들이”와 “그들을,” 4-8 절)
 3. 믿는 유대인들(“너희,” 9-12 절; 5:11-12)
- 나.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있다.
1. 이것은 가정적 내용이다(6 절에서 일반적으로 “만일”을 덧붙인다)
 2. 이것은 유대인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3. 이것은 진정한 배교를 가리킨다(유대인 신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계속 믿지 않고 구약의 소망과 절차로 돌아가려고 함)
 4. 이것은 제 1 세기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회당에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역사적 상황을 말한다)
 5. 이것은 당시의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불신앙의 예를 가리킨다
- 다. 6:1-12의 경고는 반드시 앞서 나오는 경고와 관련을 가짐이 분명하다
1. 안전한 정박지에서 흘러 떠나려 갈까 조심하라, 2:1
 2. 의지적 불신앙을 조심하라(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3:12-19
 3. 미성숙한 신자들로 남아있기를 조심하라, 5:11-14
- 라. 오늘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계속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았다가 믿음을 잃고 또 다시 구원받은”; “한 번 잃어버려진 자는 계속 잃어버려진 것이다”라는 교회에서의 논쟁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을 가진다:
1. 본문을 따로 떼어내어 사용(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성경의 인용)
 2. 논리적 추론의 사용(성경보다 이성을 앞세움)
 3. 조직신학적 틀의 사용(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등)
- 마. 성경에는 믿음에 있어서 문제를 가진 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6:5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 모두를 확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1. 섬김에 적합하지 않은 신자들
 - ㄱ. 육적 그리스도인 혹은 게으른 기독교 지도자(고전 3:10-15)
 - ㄴ. 어린 그리스도인(히 5:11-14)
 - ㄷ. 자격없는 그리스도인(고전 9:27)
 - ㄹ. 비정통적인 그리스도인(딤후 1:19-20)
 - ㅁ. 열매없는 그리스도인(벧후 1:8-11)
 2. 믿음의 거짓 고백
 - ㄱ. 4 가지 밭의 비유(마 13 장; 막 4 장)
 - ㄴ. 친밀한 관계성이 없는 열매(마 7:21-23)
 - ㄷ. 거짓 교사들(요일 2:18-19; 벧후 2:1-19)
 3. 배교의 가능성
 - ㄱ. 사울(구약)
 - ㄴ. 유다(신약)
 - ㄷ. 거짓 교사들(벧후 2:20-22)
 - ㄹ. 후기의 해석자들(계 22:19)

개역개정 6:1-8

¹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²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³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⁴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⁵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⁶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⁷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⁸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6:1-2 이 교리의 목록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한편, 그 사항들은 전적으로 유대적이었다(즉, 손을 씻음과 안수). 이러한 교리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교리들은 ‘예언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께 대한 신학적 중요성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첫 구를 *아르케*(초보적 가르침)가 아니라 “메시아의 기원”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설득력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참조, A. B. 브루스, *히브리서*, 197 쪽). 기독교에서 이방인들의 색체가 강해지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과 기대를 성취하셨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의 그룹이 있지 않았을까? 유대적 교리의 목록은 구원을 다루기 위해 예수가 아니라 모세의 언약에 초점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6:1

NASB, NJB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 가르침”
NKJV	“그리스도의 기초적 원리들에 대한 논의”
NRSV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들”
TEV	“기독교 메시지의 첫 과”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는 넓은 범주의 뜻을 가진다(3:14의 특별주제를 보라).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것의 시작을 뜻한다(권세/다스림의 첫 원인자). 이것은 문맥에서 *텔레이오스* “성숙함,” 1b 절)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구를 이해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1-2 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리들이 메시아와 관련이 없고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본문의 이러한 특징은 이 책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회당의 청중(참조, 10:25)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참조, R. C. 그레이즈, *읽지 않은 구원*).

▣ “나아갈지니라” 이것은 현재 수동 가정법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자”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에 초점이 놓여 있다! 만일 그들이 성령께서 자신들을 이끄시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 더 높은 경지의 이해로 나아감을 말했다(참조, A. T. 로벗슨, *신약의 워드픽처*, 373 쪽).

▣	
NASB, TEV	“성숙함”
NKJV, NRSV	“완전함”
NJB	“완성”

이것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한 번 사용되었다.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는 문맥에서 1a 절의 *아르케*(초보적 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신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및 유대인 친구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뛰어 넘어야만 한다.

▣ “회개함... 신앙”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따른 조항으로서, 한 부정적 내용과 한 긍정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개의 의미에 대하여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나타낸다. 회개는 ‘자아 중심적 삶과 자아가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바뀔을 뜻한다.

1. 예수께서는 회개가 없는 것을 멸망함으로 보셨다(참조, 눅 13:3,5; 벰후 3:9)
2. 회개는 믿음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과 연결된다(참조, 막 1:15; 행 2:38,41; 3:16,19; 30:21)
3.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회개의 원천이 되신다(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6:2 “세례들과” 이 단어의 복수형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형태는 구약의 의식적 씻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막 7:4; 히 9:10). 이 세 종류의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 아니다. 이 교리들은 유대교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교리와 공통되는 기독교의 교리로 여겨진다.

▣ “안수”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관련을 가진다

1.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세움(참조, 민 27:18,23; 신 34:9; 행 6:6; 13:3; 딤후 4:14; 5:22; 딤후 1:6)
2. 제물과 동일시함
 - ㄱ. 제사장(참조, 출 29:10,15,19; 레 16:21; 민 8:12)
 - ㄴ. 평신도(참조, 레 1:4; 3:2,8; 4:4,15,24; 대하 29:23)
3. 돌로 침을 당하는 자와 동일시 함(참조, 레 24:14)
4. 축복을 비는 기도(참조, 마 19:13,15)
5. 병고침을 위한 기도(참조, 마 9:18; 막 5:23; 6:5; 7:32; 8:23; 16:18; 눅 4:40; 13:13; 행 9:17; 28:8)
6. 성령을 받도록 기도함(참조, 행 8:17-19; 19:6)

▣ “부활과 영원한 심판” 바리새인들과 에센파(즉, 사해사본 공동체)는 이러한 종말론적 교리들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다.

특별주제: 영원한

로버트 B. 거들스톤은 그의 책 *구약의 동의어*에서 “영원한”이란 단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는 신약에서 40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영생과 관련을 갖고 사용되는데, 영생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누리는 선물이고 부분적으로는 미래적인 약속이다. 이것은 또한 롬 16:26 에서 하나님의 한계없는 존재하심을 말하고, 히 9:12; 13:20 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한계없는 효력을 가짐을 뜻하며, 롬 16:25; 딤후 1:9; 딤후 1:2 에서는 이전의 세대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마 18:8; 25:41; 유 7 절에서 *영원한 불*을, 마 25:46 에서는 *영원한 벌*을, 마 3:29; 히 6:2 에서는 *영원한 심판* 혹은 *정죄*를, 살후 1:9 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다. 이 성경구절에서 이 단어는 *최종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심판이 실행될 때는 유예기간으로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기회를 회복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지나가버리게 됨을 분명히 나타낸다. 영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하여, 인간의 수명이 존재하는 나머지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불신의 도덕적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조금만 알 뿐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충실히 붙어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18-319 쪽).

6: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만일 그들이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6:4-6a “한 번 ... 받고 ... 맛보고 ... 참여한 바 되고 ...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모든 분사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다. 6b 절에서는 일련의 현재 시제 동사가 시작된다. 이 문장들은 모두 강력한 진술이다. 그 의미가 분명하다: 그들이 어떤 수준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거부했다. 한편, 문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세 그룹의 존재(“우리를” [1-3 절], “그들이” [4-8 절], “너희가” [9-12 절]) 또한 (2) 6:1-2 에 나오는 교리의 유대적 성격. 이 두 가지 사항은 회당 안에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음을 지적한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경 및 믿는 친구들의 변화된 삶과 간증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진리’를 분명히 보았다.

히브리서에서 두 가지 경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믿는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핍박받는 교회에 속하며 유대교로 되돌아 가지 말 것을 (2)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 말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경고는 이 책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 두 번째 경고는 복음서에서 다른 바리새인들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 및 요한일서에서 말한 거짓교사들의 죽음에 이르는 죄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6:5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타락한 자들이 놓치는 예가 마 7:21-23 에 나온다. 그들은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고 능력을 가졌다. 이 같은 일을 가룟 유다(복음서에서), 큰 자 시몬(사도행전에서), 거짓교사들(참조, 요일 2:18-19)에게서 볼 수 있다. 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타락한 자들은”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4 절에서 시작한 헬라이어 문자의 신학적 절정을 이룬다. 3:12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6:6

NASB	“그리고 그 다음엔”
NKJV	“만일”
NRSV, TEV	“그리고 그 다음엔”
NJB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화한 조건절인가 아니면 줄곧 4 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문인가에 대하여 헬라이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것을 조건절로 주장하는 자들은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6a 절을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취하여 말한다. 하지만 다음의 모든 문법적 특성은 둘 다 취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1. 부정과거 분사의 반복(빛의 비침을 받았고, 맛보았고, 공유했고, 맛보았고, 타락했다)
2. “카이”(그리고)가 마지막 세 문장에 반복하여 사용됨
3. 4 절에 있는 목적격적 남성 복수 관사는 4-6 절에 있는 모든 분사와 관련을 가짐

▣
 NASB, TEV, NJB “불가능한” (6 절)
 NKJV, NRSV “불가능한” (4 절)

이 용어가 4 절에서 나타나지만, 이 문맥은 6 절도 포함한다. 이 단어는 *뒤나토스*(할 수 있는)라는 헬라어가 *알파* 접두사(할 수 없는)와 함께 쓰인 경우이다. 이 두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나타낸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헬라어 파피루스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1) 강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남자 (2) 입증할 수 없는 증언.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4 번 사용되었다.

1.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음(6:4)
2.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심(6:18)
3. 구약의 제물이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음(10:4)
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함(11:6)

각 경우에 있어서 이 용어는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로우와 니다(*신약의 헬라어 영어 사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히 6:4 에서 *아뒤나톤*의 용법은 배교에 대한 경고의 관점에서 과장법의 사용으로 보인다(히 5:11-6:12 을 보라). 따라서 우리가 히 6:4 에 있는 *아뒤나톤*을 ‘이것이 극히 어렵다’로 번역할 수 있다” (669 쪽).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모든 본문에서는 “불가능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보다 신학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를 문자적으로 취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신자가 믿음을 버리는 일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한 번 떨어져 나가면 끝까지 떨어져 나간 것이다”라는 신학으로 되기 때문이다. 배교함에 대해 가르치는 교단들은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도 설교한다. 이 본문은 이러한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면에서 역사적 상황이 해석을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

1. 두 그룹에게 말하는 내용이다(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2. 한 그룹에게 말하는 내용이다(믿지만 미성숙한 믿음의 유대인들로서 모세에게 되돌아가기를 지금 고려하고 있음)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 유대주의화를 부르짖는 이단과 유사하다. 그들은 구약의 의식(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을 신뢰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바울은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참조, 갈 5:4).

▣ “새롭게 하여”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새롭게 함(*아나카이노시스*)

이 헬라어의 여러 형태(*아나카이노오*, *아나카이니조*)는 두 가지 기본 의미를 가진다.

1. “어떤 것이 새롭고 다른 것이 되게 하다(즉, 더 좋게)” - 롬 12:2; 골 3:10
2. “이전의 좋은 상태로 바뀌게 하다” - 고후 4:14; 히 6:4-6

(로우와 니다의 *헬라어-영어 사전*, 제 1 권 157, 594 쪽에서 취함)

물론과 밀리간(*헬라어 성경의 어휘*)은 이 용어(즉, *아나카이노시스*)가 바울서신보다 이른 시기의 헬라 문학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을 것이다(34 쪽).

프랑크 스타크은 *신약신학*에서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중생과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새롭게 됨’을 말하는 *아나카이노시스*는 행동을 표현하는 명사로서, 이것은 계속적인 새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동사형과 함께 신약에서 사용된다. 그 예로는 롬 12:2,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와 고후 4:16,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가 있다. 골 3:10 은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설명한다. 따라서 ‘새 사람,’ ‘새 생명,’ ‘중생’ 혹은 ‘새롭게 됨’은 어떻게 표현되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와 계속적인 행위로 연결이 된다” (118 쪽).

▣ “그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헬라어 합성어(아나스타우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다”(또는 “못박다,” 이러한 강조형이 JB, NEB, 모팻역에 나온다) 혹은 “다시 십자가형에 처하다”(NASB, NKJV, NRSV, TEB, NJB, NIV)를 의미할 수 있다. *헬라어-영어 신약사전*(바우어, 알른트, 킹그리치, 당커 저, 61 쪽)은 “성경 이외의 헬라 자료에서 이 용어는 항상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터틀리안은 이 본문을 사용하여 침례(세례)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초기의 헬라 교부들은 이 문맥 및 *아니*를 가진 합성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이다”를 뜻한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해석을 대부분의 현대 영어역본이 따르고 있다.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배교와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 이 본문은 신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못박음”이라는 강조형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해석가들은 자신의 신학적 편견이나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게 해야 한다. 이 본문은 확고하게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음의 여러 항목을 가지고 씨름하기 이전에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의미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종종 생각한다

1. 이 책 전체
2. 특별히 4 개의 경고
3. 문맥의 특수성

우리가 이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본문들에 있는 경고의 내용이 심각하다!

▣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용어는 마리아가 사람들로 부터 욕을 받지 않기를 요셉이 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 1:19 에서 사용되었다. 이 일이 어떻게 그 문맥과 관련을 가지는가? 예수께서 처음에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다시” 그 일을 받게 됨을 배제하고 “사람들로 부터 욕을 받으셨음”을 의미할 것이다.

6:8 이것은 창 3:17-19 혹은 사 5:1-2 에서 취한 예이다. 이 내용은 마 13 장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취한 예일 수도 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자신의 신앙이 참됨을 입증하는 자연스런 표식이다! 싹을 낚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참조, 요 15:5-6)이 그리스도와 의 참된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열매는 참된 교제의 증거이지 그 교제를 갖는 수단이다!

개역개정 6:9-12

⁹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¹⁰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¹¹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¹²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6:9 “사랑하는 자들아” 이 문단은 저자가 독자에게 대하여 가진 강한 사랑과 돌봄을 보여준다.

11 절은 두 가지를 언급한다: (1) “간절히 원함,” 이것은 “강력한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다 (2) “너희 각 사람,” 이것은 각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 복수형이다. 저자는 이 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또 그들이 계속해서 적합하게 행할 것임을 확신했다.

“더 좋은”에 대하여는 7: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NASB, NKJV	“구원에 동반하는 것들”
NRSV	“구원에 속한 것들”
TEV	“너의 구원에 속한”
NJB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이 헬라어 구는 문자적으로 “구원을 가짐”(현재 **중간태 분사**)으로서, 9 절에 나오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다.

6:10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1. 생명책(참조, 출 32:32-33; 시 69:28; 단 12:1;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3:5; 13:8; 17:8; 20:12,15; 21:27)
2. 행위를 기록한 책(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마 25:31-46; 갈 6:7)

■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비록 교회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지만, 박해의 시기에 교회를 도왔다(참조, 10:32-34).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회당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교회는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기억하라!

“성도”(ἁγιοί)는 신학적으로 볼 때 “거룩한”(καδοί)라는 구약 용어와 관계가 있다. 후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하다”를 뜻한다(참조, 고전 1:2; 고후 1:1; 롬 1:1; 엡 1:1; 빌 1:1).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빌 4:21 만 제외하고는 항상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심지어 빌립보서에서도 이 단어가 집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원을 받는 일은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인 ‘언약적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4 장과 고후 5:21).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엡 1:4; 2:10; 4:1; 5:27; 약 2:14-26; 뱀전 1:16). 신자들은 거룩하다고 선언받은 자(신분적 성화)인 동시에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점진적인 성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음” 사이의 긴장은 신약에 있는 전형적인 긴장이다.

특별주제: 성도

이것은 **야웨**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어떤 사람, 물건, 장소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진 히브리어의 *카다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신성한 자”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야웨**는 그의 본질(스스로 영원히 계신 영)과 성품(도덕적으로 완전하심)에 의해 인간과 구별되신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창 3 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관계적이며 도덕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양심있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참조, 레 11:44; 19:2; 20:7, 26; 21:8). **야웨**와의 믿음의 관계로 그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언약적 자격으로 거룩하게 되지만 또한 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참조, 마 5:48).

이러한 거룩한 삶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다.

1.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됨
 2.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
- 믿는 자들은 “성도”(ἁγιοί)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1. 거룩하신 자(성부)의 뜻이 있으며

2. 성자(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3.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항상 성도를 **복수형**으로 지칭한다(한 번의 예외인 빌 4:12 에서조차도 문맥상 그것은 **복수형**이다). 구원받는 것은 가족, 몸,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믿음은 개인적인 영접으로 출발하지만 공동체적 교제에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 성장, 행복을 위해 각각 은사를 받는다(참조, 고전 12:7).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 거룩함은 가족의 특성이다!

6:11 “소망의 풍성함” 이것이 생활양식에서 나오는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확신은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살아야 하는 삶”을 전적으로 뜻한다(참조, 마 7 장).

▣ **“끝까지”** 인내는 ‘성도의 견인’과 마찬가지로 참된 성경적 가르침을 이룬다. 그들의 열매로써 그들을 알게 된다(참조, 마 7 장; 약 2:14-26). 4:14 에 있는 바 인내에 대한 설명을 보라. 또한 7:11 에 있는 특별주제의 내용을 참고하라.

6:12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둔함”과 같은 용어이다(참조, 5:11). 11 절에 나오는 “부지런함”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어서 자라지 못했고 또 그들이 가져야 하는 대위임의 사명을 따르지 못했다(참조, 12:1-3).

▣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점호를 암시 하는 표현이다. 구약의 이 신실한 신자들은 커다란 환란과 시련이 그들에게 따르며 또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참조, 11 장에서 자주 그 내용이 나오며 12:4 에서도 이에 대해 말함). 하나님의 약속은 6:13-20 에 있는 문단의 핵심 주제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며 그가 신실하시기에 그들은 분명한 믿음의 자세와 신실함을 지켜나갔다!

특별주제: 신자의 유업

성경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리스도(참조, 히 1:2)와의 가족적 관계를 인해 신자들이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한다(참조, 행 20:32; 26:18; 엡 1:4; 골 1:12; 3:24). 그들은 다음의 것을 누림에 있어서 함께 상속자 된 자들이다(참조, 롬 8:17; 갈 4:7)

1. 왕국(참조, 마 25:34; 고전 6:9-10; 15:50; 엡 5:5)
2. 영생(참조, 마 19:29; 히 9:15)
3. 하나님의 약속(참조, 히 6:12)
4.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보호(참조, 벧전 1:4; 5:10).

개역개정 6:13-20

¹³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¹⁴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¹⁵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¹⁶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¹⁷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¹⁸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⁹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²⁰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뿔기세텍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6:13-20 이것은 만일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기만 한다면(참조, 18b 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함과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강력한 진술이다(참조, 18a 절).

6: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가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야웨께서 그에게 여러가지 언약적 약속을 주신 사람이며(참조, 창 12, 15, 17, 18, 22 장), 그가 또한 뿔기세텍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참조, 창 14 장).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있었고 또 그가 믿는 자 모두에게 신약에서 모본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롬 4 장).

신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 기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약속을 따라 된 일이다(참조, 창 15:12-21; “새 언약”도 이와 같음, 참조, 렘 31:31-34; 겔 36:22-28). 한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순종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건적인 언약이다(참조, 신 27-28 장).

▣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것은 역사적으로 창 22:16-17(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을, 문맥적으로는 시 110:4(참조, 7:17,21)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조건적일 수 있다(참조, 16-17 절). 이 내용은 이 문단의 신학적 핵심을 이룬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성품(참조, 시 102:27; 말 3:6; 히 13:8)과 약속(참조, 사 40:8; 55:11)에 기초한다. 바로 이 두 가지가 18 절에 있는 바 “변하지 못할 사실”이다!

6:14 히브리서의 이 단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약의 본문을 저자가 인용하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주실 많은 후손에 대해 약속하셨다. 제기되는 신학적 문제는 혈통에 따라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두 야웨를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으나, 모든 이가 각각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참조, 18b 절).

6:15 이 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마음과 순종’에 대한 설명이다(그는 여러 여인들로부터 자녀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주어 버렸다).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두려움, 선함과 악함을 이상하게 혼합하여 가졌다.

6:18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즉, 시 110:4, 이 내용이 5:6; 6:20; 7:17 에서 인용됨)와 하나님의 약속(참조, 14 절)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참조, 사 55:11; 마 5:17-18).

▣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것은 민 23:19 혹은 삼상 15:29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같은 진리를 바울이 딤후 2:13 과 딤편 1:2 에서 확증하고 있다. 6:6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가리킨다

1. 구약의 도피성(참조, 민 35:6; 신 4:41-43; 수 20 장)
2. 폭풍시 피할 안전한 항구라는 은유적 표현(참조, 2:14; 6:19)
3.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산성이 되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참조, 시 18:1-2; 31:3; 91:2,9; 94:22; 144:2; 사 17:10; 25:4; 렘 16:19; 욥 3:16; 나 1:7)

▣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절에서 우리는 강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참조, 18a 절)께 인간이 반드시 응답하되 믿음으로써 끝까지 응답하여야함(참조, 18b 절)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갖는다.

6:19 “**닷**” 이것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전과 안전함과 소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상징이었다. 이 상징은 로마 카타콤의 벽에서 나타난다. 이 단어는 다음 찬송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안식의 항구에 내 영혼을 정박시켰네,
나는 더 이상 거친 바다로 향해하지 않으리,
광풍이나 거센 풍랑이 휩쓸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안전하리.”

▣ “**튼튼하고**” 2:2 의 특별주제: 보증을 보라.

▣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여기서 소망의 닷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평행을 이룬다(참조, 8:5; 9:23).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존전을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신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기초한다.

이것은 플라톤의 세계(땅의 형태가 하늘의 관념과 대조됨)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하늘의 회막을 나타낸다(참조, 8:5; 출 25-40). 이러한 종류의 이원론이 사해사본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즉,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 본 뜸)는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보다 앞선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말한다(참조, 9:23 이하).

6:20 “**앞서 가신**” 이 헬라이어 단어는 (1) 바른 길을 알아내고 또 표시하기 위해 미리 내보내는 정찰자(즉, 개척자)를 의미하거나 (2) 큰 배를 항구에 이끄는 작은 배를 뜻한다. 예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극복자, 중보자, 구원자, 제사장, 완전한 희생제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2-4 절은 기독교의 중요 진리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진리인가?
2. 히브리서는 “은혜에서 떨어짐”을 가르치는가? 왜 그런가 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3. 왜 이 책의 역사적 상황을 아는 것이 적절한 해석을 위해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4. 성경은 진정으로 구속받은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게 된다고 가르치는가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자가 구속받은 자라고 가르치는가?
5. 4-6 절은 신자들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인가? 왜 그러한가?
6. 9 절에 있는 “너희”와 4 절에 있는 “그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7.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던 박해에 대해 설명하라.
8. 18 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인가?
9. 18 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10. 13-20 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히브리서 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의의 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비교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
7:1-3	7:1-3	7:1-3	7:1-3	7:1-3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다
7:4-10	7:4-10 새 제사장직의 필요성	7:4-10	7:4-10	7:4-10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으로
7:11-19	7:11-19	7:11-14 7:15-19	7:11-14 7:15-19	7:11-12 7:13-14 옛 율법이 폐함 7:15-19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불변함
7:20-25	7:20-28	7:20-25	7:20-22 7:23-25	7:20-25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의 완전하심
7:26-28		7:26-28	7:26-28	7:26-28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7:1-3

¹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²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³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7:1 “멜기세덱” 그는 살렘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성의 이방인 왕/제사장이었다. 이 성은 후에 여부스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불렸다. 그의 이름은 “나의 ‘의의 왕’”을 뜻한다(수 10:1 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의 이름과 상당히 비슷하다, “내 주는 의로우시다”). 그의 혈통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바로 이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적절한 모형으로 사용된 이유이다. 그는 창 14:18-20 및 시 110:4 에서만 언급되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필로는 그가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이해했다
2. 오리겐은 그가 ‘한 천사’라고 이해했다
3. 암브로스는 그가 ‘주님의 그 천사’라고 이해했다
4. 다른 이들은 그가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는 천사인 미가엘이라고 이해했다
5. 에피파니우스는 그가 성령께서 성육신한 분이라고 이해했다
6. 멜기세덱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가 메시아보다도 더 위대하며 모든 기도가 그를 통하여 간다라고 생각했다
7. 일부 유대인과 제롬과 루터는 그가 노아의 아들인 셈이라고 보았다.

멜기세덱은 4 가지 이유에서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1.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드렸고(항상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십일조를 드림) 따라서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레위도 십일조를 그에게 드린 것임(참조, 4-9 절)
2. 그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음, 따라서 랍비들의 신학에 의하면 그는 부모가 없는 자로서 영원한 자임(참조, 3 절; 시 110:4b)
3. 그는 후에 성시가 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살렘, 참조, 창 14:18)
4.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즉, 엘 엘론, 참조, 창 14:18)
5. 그는 저자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합법적인 제사장으로 세우게 함.

▣ “왕이요 . . . 제사장이라” 그는 구약에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즉, 시 110 편).

▣ “복을 빈 자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 따라서 아브라함(또한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의 후손인 레위)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참조, 창 14:19). 이 일은 그가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함을 나타낸다. 이 일은 또한 유대 지파 출신이신 예수께서 또 다른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셨음을 나타낸다.

7:2 “십분의 일” 십일조를 드림(참조, 창 14:20)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오래된 것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안식일 및 첫 열매를 드리는 일과 더불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심’을 나타낸다(참조, 창 14:19c).

▣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는 구의 특별한 어원적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이 같은 호칭이 렘 23:6(“우리의 의이신 주님”)과 33:16(“주님은 우리의 의이시다”)에서 메시아에게 대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메시아는 의가 되시며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다(참조, 사 9:6; 26:3,12; 32:17; 54:10).

▣ “의의 왕” “의”에 대하여는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살렘” 이 도시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살롬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여부스인들이 섬긴 신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이 도시는 창 14장에서는 살렘으로 불리지만 시 76:2에서는 예루살렘(즉, 시온)과 관련을 가진다. 후자는 가나안인들이 살던 시기에 여부스로 불렸다.

7:3 이것은 멜기세덱의 계보가 창 14:18-20에서 나오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랍비들의 해석이다(미드라쉬, 부록 3을 보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멜기세덱에게도 부모가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참조, 8절). 이러한 내용이 8,12,16,17,21,24,25, 28절에서 발전되어 나타난다.

▣ “시작한 날” 3:14의 특별주제: 아르케를 보라.

개역개정 7:4-10

⁴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⁵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⁶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⁷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⁸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⁹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¹⁰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7:5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음에 기초한 랍비들의 논리이다(참조, 10절). 이것은 과학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석의 방법을 뜻한다.

7:7 “높은 자에게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모세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비교함에 있다.

이러한 대조는 종종 “더 높은”(크레이투/크레잇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더 나은,” “뛰어난,” “더 훌륭한,” “더 가치있는,” “더 높은”을 의미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1.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참조, 1:4)
2.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참조, 6:9)
3.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음(참조, 7:7)
4. 더 좋은 소망(참조, 7:19)
5. 더 좋은 언약(참조, 7:22; 8:6)
6. 더 좋은 제사료(참조, 9:23)
7. 더 좋은 소유(참조, 10:34)
8. 더 좋은 부활(참조, 11:35)
9. 더 좋은 나라(참조, 11:16)

- 10.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셨다(참조, 11:40)
- 11. 흠 뿌린 피가 더 잘 말한다(참조, 12:24)

7:8 “산다고” 이것은 멜기세덱의 영원성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1) 그의 부모(족보)가 창 14 장에 있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일 뿐 아니라 (2) 시 110:4b 이 그에 대하여 하는 특별한 언급(“영원토록”) 때문이다.

7:9-10 이것은 랍비들의 석의이다. 아론의 가족이 속한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유추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즉, 대제사장을 포함하여)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셈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더 높으며, 예수께서 유대인 제사장들보다 더 높으시다.

개역개정 7:11-22

¹¹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¹²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¹³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¹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¹⁵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¹⁶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¹⁷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¹⁸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¹⁹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²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²¹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²²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7:11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종종 불린다. 거짓된 진술은 말의 핵심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영적으로 온전함이나 성숙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 “온전함” 텔로스를 어근으로 하는 헬라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끝에 이르게 하다,” “완성을 가져오다,” “성숙을 가져오다”를 뜻한다. 여기서 이 단어는 적합하며 효과적인 대표자 혹은 중보자를 가리킨다.

특별주제: 끝 혹은 가득한 (텔로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그 절정은 히브리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다.

1. 텔로스 - 끝, 성취(3:6,14; 6:8,11)
2. 텔레이오 - 온전하게 하다
 - ㄱ.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참조, 2:10)
 - ㄴ.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온전케 되셨음(참조, 5:8-9)

- ㄷ.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하지 못함(참조, 7:19)
 - ㄹ. 아들은 영원토록 온전케 하심(참조, 7:28)
 - ㅁ. 예배자를 온전케 하심(참조, 9:9)
 - ㅂ.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심(참조, 10:1)
 - ㅅ.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항상 온전케 하심(참조, 10:14)
 - ㅇ. 우리를 떠나서는 그들이 온전케 될 수 없음(참조, 11:40)
 - ㅈ. 의로운 자의 영이 온전케 됨(참조, 12:23)
3. *텔레이오스* - 성숙(참조, 5:14)
 4. *텔레이오스* - 더 온전한 성막(참조, 9:11)
 5. *텔레이오테스* - 성숙함을 향해 나아감(참조, 6:1)
 6. *텔레이오시스* - 온전함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통해 오는 것이었다면(참조, 7:11)
 7. *텔레이오테스* -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참조, 12:2)
- 예수께서는 모세의 언약이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성숙함과 온전케 됨을 가져 오신다!

▣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히 다음 내용 (1)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를 준 하나님의 사자였음 (2)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일을 가리킨다.

7:12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고, 인간이 계속하여 범죄함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참조, 갈 3:24-25).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명확히 드러낸다. 이 문맥에서 이 구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

7:13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제사제도가 계속됨을 암시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주후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족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었다. 하지만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 다스리던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다(즉, 안나, 가야바).

7: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것은 또 다른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나신 것”이라는 동사는 “~로부터 일어나다”라는 의미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태양이 돌음(참조, 마 5:45)
2. 행성의 이동
3. 식물이 싹을 냄
4. 은유적으로, 사람의 자손(참조, 슥 6:12; 사 11:1; 렘 23:5-6)

여기서 이 표현은 창 49 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예언을 가리킨다(특히 49:10).

▣ “유다” 예수께서는 유다지파에서 왕인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셨다(참조, 창 49:8-12; 삼하 7:12-16; 사 9:6,7).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셨음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모세나 아론과 같은 제사장 가문이 속한 레위지파에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7:1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왔었고 또 오셨다.

7:16

- NASB “육체적 규정의 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 NKJV “육신적 명령의 법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 NRSV “육체적 자손에 관한 법적 요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 TEV “인간의 규정들과 규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 NJB “육체적 자손의 법이 지닌 장점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사장적 권위는 그가 무슨 지파/가문을 통해 오신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영원하며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사실에 기초한다(즉, 벨기세텍의 부모가 창 14 장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시 110:4 에서 “영원히”라는 약속이 있다). 예수께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다(또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도).

▣

- NASB, NRSV, NJB “불멸의 생명”
- NKJV “다함이 없는 생명”
- TEV “끝이 없는 생명”

이것은 벨기세텍에게 부모가 없었기에 그가 영원히 있다고 말하는 시 110:4b 본문에 대한 랍비들의 석의(미드라쉬)에 따른 설명으로 여겨진다(참조, 6,8 절).

7:17 “증언하기를 네가...” 이것은 70 인역의 시 110:4 의 인용이다(21 절도 그러함).

7:18

- NASB “한쪽에 치워 놓고”
- NKJV “무효로 하고”
- NRSV “폐기”
- TEV “한쪽에 두고”
- NJB “따라서 없애고”

이 용어는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1) “한쪽에 치워 놓다” (2) “무효로 하다” (3) “다지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절은 명령을 한쪽으로 치워 놓음에 대해 말한다(아마도 육체적 혈통에 따른 대제사장). 영감받은 구약의 한 본문(참조, 마 5:17-19)이 “한편으로 제껴질 수 있음”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갈 3 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바 율법의 구속적(redemptive) 목적이 옆으로 놓임을 정확히 가리킨다. 한편, 바울은 구약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연약함(참조, 롬 7 장)이 그렇게 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말하며, “율법”을 연약하고 쓸모없다고 말한다(참조, 8:13).

▣ “전에 있던 계명은” 이것은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제도나 ‘모세의 율법으로 특징지어지는 옛 언약’을 나타낸다.

▣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롬 7 장과 갈 3 장은 이 구를 해석함에 유용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성품’ 및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율법’을 나타낸다!

7: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갈라디아서 3 장을 읽고 또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더 좋은” 7: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은 핵심 개념이다(참조, 25 절; 4:16; 10:1). 저자는 ‘모세의 율법 및 레위지파의 제사장직과 희생제물’이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또 실패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참조, 10:22; 약 4:7).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을 가져오시지만, 제사장들이 그리하였듯이 이 언약에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하여야만 함을 주목하라(신자들은 이제 집합적인 의미에서 새 언약의 제사장이다, 참조, 뱀후 2:5,9; 계 1:6).

7:20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약속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46:10). 이 맹세는 시 110:4 를 가리키는데, 히 6:13-17 에서 이 본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21 이것은 70 인역 시 110:4 을 인용한 내용이다(17 절도 그러하다).

7:22

NASB, NRSV,

TEV, NJB

“보증”

NKJV, ASV

“담보”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적 배경은 “손 안에 넣은 저당물”로서 이는 담보물을 뜻한다. 이 용어는 헬라어에서 차용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저당물 혹은 보석금을 뜻하였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용어는 법적인 보장을 나타내었다. 예수는 성부께서 새 언약의 효과를 입증하시기 위한 담보시다.

▣ “더 좋은 언약” 렘 31:31-34 은 이 “새 언약”에 대해 말한다(참조, 겔 36:22-36). 여기서 초점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외적 규정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동기를 부여하시고 이끄시는 내적 법에 있다. “더 좋은”에 대하여는 7:7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7:23-25

²³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으로 되 ²⁴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느니라 ²⁵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7:23 이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한 또 하나의 본문이다. 이 본문은 대제사장들의 수와 그들이 섬긴 기간에 대해 말한다.

7:24 이것은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해 말하지 않는 본문”인 창 14 장 및 “멜기세덱에 대해 암시하되 그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시 110 의 본문에 기초한 랍비들의 결론이다(참조, 시 110:4b).

7:25

NASB

“영원히 구원하다”

NKJV

“최대한 구원하다”

NRSV

“항상 구원하다”

TEV

“지금 그리고 항상 구원하다”

NJB

“구원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있다”

위의 영어역본들이 나타내듯이, 이 용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그가 “영원히” 더 나은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모두,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참조, 10:14). 확신에 관한 3:1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을” 이것은 우주적인 초청이다! 누구든지 나아 올 수 있다(참조, 요 1:12; 롬 10:9-13; 딤편 2:4; 벧후 3:9).

▣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참조, 요 10:9; 14:6).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를 믿음으로써 나아와야 하며 또한 반드시 계속하여 믿음에 거하여야 한다(현재 분사).

▣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참조, 9:24; 사 53:12; 롬 8:34; 요일 2:1).

개역개정 7:26-28

²⁶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²⁷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²⁸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7:26 이것은 아마도 초기의 찬송이나 시를 인용한 내용일 것이다(빌 2:6-11; 딤편 3:16; 딤후 2:11-13의 경우와 같이; 아마도 딤편 1:17; 6:15-16도 그러한 내용일 것이다). “거룩한”이라는 용어는 70 인역에서 “자비로운”을 의미했다(참조, 시 16:10). “더러움이 없는”은 구약에서 제사의 용어였으며 대개의 경우 “흠 없는”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내용의 고백이요 요약이다.

특별주제: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가. 들어가는 말

1.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처음 상태(즉, 창 1 장, 에덴 동산)를 말한다.
2. 죄와 반역은 이 완전한 교제의 조건을 대폭 파괴했다(즉, 창 3 장)
3. 인간(남자와 여자)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했다(즉, 창 1:26-27).
4.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여러 면으로 관계하신다
 - ㄱ. 경건한 지도자들(즉,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 ㄴ. 희생 제도(즉, 레 1-7 장)
 - ㄷ. 경건한 삶의 본(즉, 노아, 욥)
5.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 ㄱ. 자신의 완전한 계시로서
 - ㄴ.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서
6. 그리스도인들이 흠 없게 되었다
 - ㄱ.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 ㄴ. 점진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 ㄷ. 기독교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8-29; 엡 1:4). 사실상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7. 천국은 에덴동산의 완전한 교회의 회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정화된 땅으로(참조, 벧후 3:10)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다(참조, 계 21:2). 성경은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주제로 끝 맺는다.
 - 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

- ㄴ. 동산의 배경에서(창 1-2 장과 계 21-22 장)
- ㄷ. 동물이 함께 있고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적 진술에 의해(참조, 사 11:6-9)

나. 구약

1.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들이 완전함, 흠없음, 죄없음의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모두 다루고 그 복잡한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완전함, 죄없음, 혹은 무죄함의 개념을 뜻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94-99 쪽):
 - ㄱ. *살룸* (BDB 1022)
 - ㄴ. *타맘* (BDB 1070)
 - ㄷ. *칼라* (BDB 478)
3. 70 인역(즉, 초대교회의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개념들을 신약에서 사용한 코이네 헬라어의 용어로 번역했다.
4. 기본 개념은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다.
 - ㄱ. *아모모스*(참조, 출 29:1; 레 1:3,10; 3:1,6; 민 6:14)
 - ㄴ. *아미안토스*와 *아스피루스*도 제사적 의미를 갖는다

다. 신약

1. 법적 개념
 - ㄱ. 히브리어의 법적 제의적 의미는 *아모모스*로 번역되었다(참조, 엡 5:27; 빌 2:15; 벧전 1:19)
 - ㄴ. 헬라어의 법적 의미(참조, 고전 1:8; 골 1:22)
 2. 그리스도는 죄없고 흠없으며 무죄한 분이시다(*아모모스*) (참조, 히 9:14; 벧전 1:19)
 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본받아야 한다(*아모모스*) (참조, 엡 1:4; 5:27; 빌 2:15; 골 1:22; 벧후 3:14; 유 24 절; 계 14:5)
 4. 이 개념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 ㄱ. *아넥클레토스*, “비난할 것이 없는”(참조, 딤후 3:10; 딤후 1:6-7)
 - ㄴ. *아네펠레토스*, “비난이 미치지 않는” 또는 “꾸짖음 받을 거리가 없는” (참조, 딤후 3:2; 5:7; 6:14; 딤후 2:8)
 5. “더럽혀지지 않은”(아미안토스)의 개념은 다음 경우에 사용되었다
 - ㄱ. 그리스도 자신(참조, 히 7:26)
 - ㄴ. 그리스도인의 유업(참조, 벧전 1:4)
 6. “전체” 혹은 “전부”의 개념(*홀로클레리아*) (참조, 행 3:16; 살전 5:23; 약 1:4)
 7. “흠없는” 죄없는 무죄함의 개념을 *아멤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눅 1:6; 빌 2:15; 3:6; 살전 2:10; 3:13; 5:23)
 8.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의 개념을 *아모메토스*로 나타내었다(참조, 벧전 3:14)
 9. “점 없는”과 “흠 없는”의 개념은 위의 여러 용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본문에서 종종 나타난다(참조, 딤후 6:14; 약 1:27; 벧전 1:19; 벧후 3:14)
- 라. 이 개념을 갖는 많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은 이 개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셨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신자들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바른,” “흠없는” 자라고 선언받았다. 이제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가 빛에 거하시듯이 빛 안에서 행하라”(참조, 요일 1:7).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참조, 엡 4:1,17; 5:2,15).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친밀한 교제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러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는 거룩함 이외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참조, 마 5:20,48; 엡 1:4; 벧전 1:13-16). 하나님의 거룩함은 법적인 것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을 위한 것이다!

▣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구는 예수의 인성(참조, 빌 2:6-7)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 없으심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다(참조, 4:15; 9:14; 고후 5:21; 벧전 2:22; 요일 2:1; 3:5).

▣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것은 (1) 뛰어남의 상태나 (2) 구원이 천사들의 영역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본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견해를 나타내거나(참조, 4:14) (3) 부활/승천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7:27 이것은 속죄의 날(참조, 레 16 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구약에서 계속됨)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후기의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나타낸다. 회막에서 제사하던 시기에는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17의 특별주제: 대제사장 예수를 보라.

▣ “그가... 드려” 이것은 70 인역의 사 53:11에 있는 것과 같은 용어인 “~을 지다”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를 암시한다고 이해한다.

▣ “이는 그가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한 번 드리신 죽음의 궁극성을 강조한다. 한번 행해진 구원과 용서가 영원히 성취되었다(참조, “한 번” [εἰς ἄριστος], 7:27; 9:12; 10:10 및 “단번에” [ἁπλοῦς], 6:4; 9:7,26,27,28; 10:2; 12:26,27). 이것은 성취된 제사임을 확증하는 반복적 주제이다.

▣ “자기를 드려” 이것은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며(참조, 시 110:4) 희생제물이다(참조, 53:10). 이것은 신약에서 대속적이며 대리적인 속죄에 대한 진리의 기둥을 이룬다(참조, 막 10:45; 롬 8:3; 고후 5:21).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것은 모세의 글에 따른 일의 진행과 시 110:4에 있는 “맹세”를 서로 대조시킨다.

▣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시기에 우월한 제사장이시다(즉, “아들,” 참조, 1:2; 3:6; 5:8). 이 언급은 왕 및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시 2편과 시 110편을 하나로 묶는다. 성부의 맹세대로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두 구약의 직임을 하나로 묶어 이루신다.

▣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고(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또 이 온전케 되심을 지속하신다(참조, 2:10; 5:8-9).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저자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개념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2. 레위가 멜기세덱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3. 시 110 편은 창 14:18-20 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4. 왜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사용되었는가?
5.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히브리서 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 예루살렘성경 (NJB)
더 좋은 새 언약에 따른 대제사장	새 대제사장의 제도	하늘의 성소와 새 언약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새 제사장직과 새 성소
8:1-6	8:1-6	8:1-7	8:1-2 8:3-6	8:1-5 그리스도는 더 위대한 언약의 중보이시다
8:7-13	새 언약 8:7-13		8:7-13	8:6-13
		8:8-13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히 8:1-13

- 가. 이 본문은 독자가 성숙해야 할 것에 대해 다루는 하나의 통일된 문맥의 한 부분이다. 이 단락은 5:11-10:18 에 속하며, 5:12-6:20 에서 경고를 주는 삽입구에 이어진다.
- 나. 2 장이 시편 8 편의 내용을 발전시켜 제시했듯이, 3 장과 4 장은 시 110 편을 사용하여 제시하며, 8 장은 램 31:31-34 의 내용을 사용하여 말한다(10 장은 시 40 편을 사용하게 된다).
- 다. 하늘에 있는 참 회막은 6:19-20 및 8:2 에서 암시되었으나 9 장에 이르러서야 충분히 논의된다.

개역개정 8:1-13

¹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²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³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⁴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⁵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⁶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⁷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⁸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⁹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¹⁰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¹¹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라

¹²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¹³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8:1

NASB, NKJV, NRSV “요점”

TEV “전체의 핵심”

NJB “원리가 되는 것”

이것은 “머리”(케팔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전체 금액의 합계를 나타낸다(참조, 행 22:28). 고대인들은 숫자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타내지 않고 그 반대로 나타내었다.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회화적 의미 - (1)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혹은 (2) 이미 제시한 논쟁의 요약 - 을 나타내었다.

▣ “제사장” 예수님께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만 나타난다(참조, 2:17; 3:1; 4:14-15; 5:10; 6:20; 7:26; 8:1,3; 9:11,25). 메시아의 제사장적 성격은 시 110 편 및 속 3 장과 4 장에서 드러난다. 그는 제사장이신 동시에 제물이시다(참조, 사 53 장). 그는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며,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

▣ “앉으셨으니” 이것은 시 110 편에 대한 계속적인 인용이다(즉, 2 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가리킨다. 한편, 이것은 함축적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나타낸다. 어떤 제사장도 자리에 앉지 않았고 오직 왕들이 자리에 앉았다(참조, 1:3).

▣ “우편에” 이것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뜻하는 신인동형적 구이다(참조, 1:3,13; 8:1; 10:12-13; 12:2; 행 2:33-35).

▣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인간의 용어와 이해로써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신인동형적 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혹은 에둘러 하나님을 지칭하는 방법이다(참조, 12:2).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수형인 “하늘들”로 되어 있다. 이 복수형은 다음의 여러 층을 가리킨다

1. 새들이 날고 구름이 있는 지상의 공간(참조, 창 1:1)
2. 천체의 빛, 해, 달, 별, 행성이 있는 영역인 우주(참조, 창 1:14)
3.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시며 천사들이 있는 영역

랍비들은 하늘이 삼층 천(참조, 고후 12:2)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칠층 천(즉, 성경에는 없지만 1 세기의 랍비문학에는 나타남)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 종종 토론을 벌였다. 천국의 여러 층에 대한 개념은 신 10:14; 왕상 8:27; 시 68:33; 148:4 에서 나타난다.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들에게 속하는 층’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여러 층의 천국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편,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지나가셨다(참조, 4:14). **우라노스(천국)의 복수형 대 단수형**은 히브리서에서 어떠한 신학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참조, 9:23 대 9:24).

8:2 “장막”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성막을 가리킨다(참조, 6:19-20).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광야 방랑시기에 그 식양을 따라 이것을 건축했다(참조, 출 25-40 장). 이것은 단지 하나의 복제본일 따름이었다(참조, 9:11,24).

▣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출 33:7(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의 번역(70 인역)을 암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상의 장막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11:10).

8:3 “드림을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적 속죄의 제사를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실 것이다.

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불린다(참조, 4:8; 7:11; 8:4,7; 10:2; 11:15).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가 아니라 왕의 지파인 유다에서 오셨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성취되었다.

8:5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는 용어는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저서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주전 20 년부터 주후 42 년까지 살았던 유대인 저술가요 철학가로서 플라톤의 사상을 따랐던 자이다. 그는 구약을 우화화함으로써 그것이 헬라 사회에 적합한 내용이 되게 하려고 했으며, 플라톤주의가 야웨에 대한 신앙을 밝히 드러낸다고 여겨 이를 추구했다.

한편, 이 본문은 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받았다는 유대인의 고대 전통을 가리킨다—광야 방랑 시기에 있는 성막. 이같은 종류의 논리가 사해사본에서 나타나, 이러한 견해가 필로의 독특한 사상(즉, 헬라 철학)이 아님을 드러낸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혹은 그 건축의 진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이 흥미롭다. 비록 대상 28:19에서 솔로몬의 건축계획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종류의 것임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물(들)을 지으라고 결코 명하지 않으셨다(참조, 출 25-40 장).

초기의 회막은 하늘에 있는 참 회막의 복사본이었다라는 유대인의 전통은 (1) 출 25:8,40 (2) 계 11:19; 13:6; 15:5 (3) 바룩 2서 4:5 (4)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기 7:10 (5) 지혜서 9:8 (6)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3.6.1에 나온다.

이 본문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실재적인 것이며 실제이기에 이것은 플라톤주의를 나타내지 않는다. 플라톤주의에서는 천국을 이상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 실재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실재로 제시한다. 천국은 단순히 이상/관념/원형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의 참된 측면이다(참조, 골 1:16).

천국에 있는 이 장막은 어느 날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참조, 계 21:22). 이것은 이 시대에서만 도움을 줄 뿐이고, 마지막 때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

특별주제: 형식(τυπος)

τυπος가 여러 용법을 가지기에 이 단어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따른다.

1. 물톤과 밀리간, *신약 헬라어의 어휘*, 645 쪽
 - ㄱ. 모형
 - ㄴ. 계획
 - ㄷ. 글을 쓰는 양식 또는 방법
 - ㄹ. 선언 또는 칙령
 - ㅁ. 선고 또는 결정
 - ㅂ. 병고침을 위해 신에게 드리는 공물로서의 인간 육체의 형태
 - ㅅ.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문장에서 사용한 동사
2. 로우와 니다, *헬라어-영어 사전*, 제 2 권, 249 쪽
 - ㄱ. 흉터(참조, 요 20:25)
 - ㄴ. 형상(참조, 행 7:43)
 - ㄷ. 모델(참조, 히 8:5)
 - ㄹ. 모범(참조, 고전 10:6; 빌 3:17)
 - ㅁ. 원형(참조, 롬 5:14)
 - ㅂ. 종류(참조, 행 23:25)
 - ㅅ. 내용(참조, 행 23:25)
3. 해롤드 K. 물톤, *개정된 분석적 헬라어 사전*, 411 쪽
 - ㄱ. 일격, 인상, 표시(참조, 요 20:25)
 - ㄴ. 묘사
 - ㄷ. 형상(참조, 행 7:43)
 - ㄹ. 구조식, 계획(참조, 롬 6:17)
 - ㅁ. 형식, 목적(참조, 행 23:25)
 - ㅂ. 모양, 복사물(참조, 고전 10:6)
 - ㅅ. 고대된 모양, 종류(참조, 롬 5:14; 고전 10:11)
 - ㅇ. 모델의 형식(참조, 행 7:44; 히 8:5)
 - ㅈ. 도덕 양식(참조, 빌 3:17; 살전 1:7; 살후 3:9; 딤후 4:12; 벰전 5:3)

이 문맥에서 볼 때 1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게 보인다. 복음은 교리적이며 동시에 삶의 양식에 연관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

▣ “**이르시되**” 이것은 출 25:40 의 인용이다. 성막은 모세의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인한 것이었다.

8:6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이같은 묘사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말하는 1:4 에서 사용되었다.

▣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 절에 있는 모든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앞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중보자”라는 용어는 법적 중재자를 뜻하는 용어이다.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서듯이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그 사이에 서신다(참조, 9:15; 12:24; 딤후전 2:5). 이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더 좋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세의 언약보다 우월한 예수의 권위를 드러낸다(7:7 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배를 건축하여야 했고 또 동물들을 모아 들여야 했다
4.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축복 및 저주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종교 및 사회 생활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을 받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이같은 긴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긴장 관계는 겔 18 장과 겔 36:27-37 을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동에 기초하는가 혹은 요구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 질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하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두 언약은 같은 목적 (1) 창 3 장에서 상실한 교제를 회복하는 일 (2)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의로운 백성을 형성하는 일을 갖는다.

렘 31:31-34 에 있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언약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긴장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법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내적인 갈망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그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바뀌었다.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함을 입증했다. 언약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에 문제가 있었다(참조, 로마서 7 장; 갈라디아서 3 장).

구약의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사이에 있는 긴장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거저 주시지만,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최초의 또한 계속적인)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법적 선언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받아 주심에 대한 직설적 진술이며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이다! 신자들은 자신의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참조, 엡 2:8-10). 경건한 삶은 받은 바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긴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

8:7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종종 불린다(참조, 4 절). 이것은 핵심적 논점이다. 명백히 잘못된 어떤 진술은 어떠한 신학적 사실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회복함과 의에 있어서 첫 언약은 필요로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8: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문제가 율법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약함에 있었다(참조, 롬 7:12,16; 갈 3 장).

▣ “주께서 이르시되” 8-12 절은 렘 31:31-34 를 인용한 본문이다. 여기서 “그”가 야웨를 가리키지만 10:15 에서는 성령을 가리킴을 주목하라. 구약의 영감성을 때로는 성령께 또 때로는 성부께 돌리고 있다.

▣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본문(참조, 31:31-34)은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유일한 언급이지만, 겔 36:22-38 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다.

▣ “이스라엘 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연합됨을 뜻한다. 통일왕국(사울, 다윗, 솔로몬)이 주전 922 년에 분열되었다. 여로보암 I 세가 이끄는 북쪽의 지파들은 이스라엘로,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쪽의 지파들은 유다로 불렸다.

8:9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본질이나 목적에 기인한 차이가 아니라 방법론적 차이였다.

▣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것은 야웨를 아버지로 나타낸다(참조, 호 11:1-4).

▣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내용은 70 인역(LXX)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맛소라 본문(MT)에는 “비록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을지라도”로 되어 있다.

8:10 “생각” 이것은 70 인역(LXX)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맛소라 본문(MT)에는 “그들 안에”로 되어 있다. 이 본문은 옛 언약이 새 언약과 어떻게 다른 지를 나타낸다. 겔 18:31 에서는 옛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겔 11:19; 36:26-27 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한다.

▣ “마음” 이것은 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참조, 신 6:6; 11:18; 30:6,14). 3: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의 언약적 표현 양식이다.

8:11 한 헬라이어 사본에 “시민”과 “이웃”과 관련하여 변이가 나타난다. ‘언약적 형제’에 대한 히브리적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변이는 해석상 차이가 없는 사소한 내용이다. 더 오래되고 더 신뢰도가 높은 헬라이어 사본에 비추어 볼 때(참조, P⁴⁶, x, A, B, D, K, L, 또한 후기에 속하는 많은 수의 소문자체 사본), “시민”이 가장 좋은 본문임을 알 수 있다.

8:12 이것은 새 언약에 따른 균등성을 나타낸다(참조, 램 31:31-34). 이 내용이 신약인 눅 22:20; 고전 11:25; 고후 3:6; 히 8:8; 9:15 에서 언급된다.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주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해 주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강한 이중 부정). 구약에 있는 바 완전한 죄 용서함에 대한 약속은 참으로 놀랍다(참조, 시 103:3,8-14;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NASB
NKJV
NRSV
TEV
NJB

“그러나 폐하게 되고 낡아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라지려 하느니라”

“이제 폐하게 되고 낡아지는 것은 없어지려 하느니라”

“그리고 폐하게 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것이니라”

“어떤 것이든 낡게 되며 닳아 버리는 것은 곧 사라질 것이니라”

“그리고 어떤 것이든 낡고 늙는 것은 사라지려 하느니라”

이 구는 몇 가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이것의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라.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달렸고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기를 고려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것은 구원의 방도로서의 율법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였다/계시이다(참조, 마 5:17-19). 모세의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참조, 갈 3 장). 율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및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율법은 약속의 성취로서 새 언약과 관련을 가진다. 범죄한 인류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해 율법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가능치 않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가?
2. 히브리서는 헬라철학(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는가?
3. 왜 램 31:31-34 에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가?
4. 12 절은 왜 중요한 약속인가?
5.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언약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히브리서 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지상의 성소	레위지파 제사장의 사역	지상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다
9:1-5	9:1-5 지상에 있는 성소의 한계	9:1-5	9:1-5	9:1-5
9:6-10	9:6-10 하늘의 성소	9:6-10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특성 (9:11-10:18)	9:6-10	9:6-10
9:11-14	9:11-15	9:11-14	9:11-14	9:11-14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새 언약을 인치시다
9:15-22	중보자의 죽음이 필요함 9:16-22	9:15-22	9:15 9:16-22	9:15-28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써 죄를 처리하심 (9:23-10:18)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의 위대성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가져감 (9:23-10:18)	
9:23-28	9:23-28	9:23-28	9:23-28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9:1-5

¹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²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³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⁴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짝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⁵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9:1 “첫 언약에도” 희생제사와 예배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에서 성막과 관련을 가진다.

▣ “언약” 이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는 없다. 대다수의 영어역본은 이 단어를 넣어 번역하였다. 자신의 책에서 H. E. 다나(*유대적 기독교*, 255 쪽)는 9 장이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본문임을 고려할 때 이 단어를 “첫 번째 사역”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참조, 8:6). 그는 255 쪽에서 다음과 같이 두 사역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지상에서의 사역-	하늘에서의 사역-
“이 세상에 속한”	“이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인간이 준비한 물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품-
“만든 성소가 있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외적 영향-	내적 영향-
“양심을 만짐으로써 예배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본질상 임시적임-	본질상 영속적임-
“건축의 시기를 유보하기 위해 세워진 육체의 계율”	“영원한 기업의 약속”

9:2 “장막” 이것은 광야시기에 있었던 이동식 장막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 25-27 장에 나오며 이것의 건축에 대하여는 36-38 장, 40 장에 나온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쪽에 있는 첫(외부의) 장막(성소)과 두 번째(안에 있는) 장막(지성소)으로 말한다.

▣ “등잔대” 이것은 성소에 놓은 등잔으로서 올리브 기름을 태우는 7 개의 가지로 된 한 등잔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하여는 출 25:31-40 및 레 24:1-4 에 나온다. 이것은 메노라로 불렸는데, 히브리어로 “등잔대”를 뜻한다. 솔로몬은 등잔에 열 가지가 있는 것으로 확장시켰다(참조, 왕상 7:49; 대하 4:7). 이것은 진리와 계시의 빛을 상징한다.

▣ “상과 진설병” 이것은 성소에 놓아 둔 상으로서 그 위에 열두 개의 커다란(7 kg) 빵을 올려 놓았다. 일 주일에 한 번씩 새 빵으로 교체하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다(참조, 출 25:23-30; 37:10-16; 레 24:5-9). 이 빵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 두 지파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었다.

▣ “성소” 이곳은 제사장들이 매일 섬겼던 곳으로서 지성소의 바깥 편에 있는 방이었다. 이 방의 크기는 9 미터 x 4.5 미터였다(참조, 출 25-27 장)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개 이 용어(*하기아*)를 **관사**와

함께 사용하여 지성소(참조, 3 절)로 불리는 안쪽 방을 일컫지만(참조, 9:8,25; 13:11), 이절에서는 **관사 없이 사용하여 성막의 바깥 쪽 방인 성소를 나타낸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다.

9:3 “둘째 휘장” 이것은 성막을 두 부분으로 구분지었다(참조, 출 26:31-35). 히브리서에는 두 가지 특별한 이름이 나온다: 하나는 바깥 쪽에 있는 휘장으로서 언제나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안 쪽에 있는 휘장으로서 항상 닫혀 있었다.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두 번, 참조, 레 16 장).

▣ **“지성소”** 이것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4.5 미터인 방이었다. 여기에 언약궤가 놓였는데, 그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야웨께서 상징적으로 계심을 나타내었다. 이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질적 임재하심을 상징했다(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9:4 “금 향로” 이것은 제단 모양의 가구로서 속죄일에는 그 위에 많은 양의 향을 피워 그 질은 연기로써 야웨께서 언약궤 위에 계신 것을 보이지 않게 했다. 우리의 저자는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구를 “향로”로 취하여 설명한다. 70 인역도 이 용어를 그렇게 번역하였다(참조, 레 16:12; 대하 26:19; 겔 8:11; 마카비 4 서 7:11). 한편 필로와 요세푸스는 이 헬라어가 제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구약에서 제단은 지성소와 상당히 동일시 되고 있다(참조, 출 30:1-10,37; 특별히 왕상 6:22).

회막문에 있는 큰 제단에서 취한 석탄을 이 작은 향로에 담았다. 불 위에 놓은 향에서 많은 양의 연기가 나왔다. 향내나는 이 놀라운 연기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곧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야웨를 볼 수 없게 하였다.

▣ **“언약궤”** 궤에 대한 설명은 출 25:10-22 및 37:1-9 에 나온다.

특별주제: 언약궤

I. 그 목적

- 가.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즉, 하나님의 발등상, 참조, 대상 28:2; 시 132:7; 사 66:1)로서 그룹의 날개 사이에 위치함
- 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참조, 이스라엘, 레 16 장과 왕상 8:27-30; 외국인, 8:41,43,60)

II. 내용물

- 가. 랍비들의 전통
 - 1. 야웨께서 십계를 기록하신 두 돌판(참조, 출 31:18; 32:15-16)
 - 2. 돌판들을 떠받치는 두 개의 은 기둥(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3. 이스라엘(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김을 인해 모세가 부순 원 돌판의 조각(참조, 출 32:19; 신 9:17; 10:2)
 - 4. 모세 오경전체의 사본(출 25:16)
 - 5.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의해 제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참조, 왕상 8:29)
- 나. 그 내용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물건들이 궤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옆에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함)
 - 1. 만나가 들은 향아리(참조, 출 16:31-36)
 - 2. 아론의 싹난 지팡이(참조, 민 17:4,10; 히 9:4)
 - 3.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봉헌한 속건제(5 금귀와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참조, 삼상 6:3-4,8)
 - 4. 십계의 복사본(참조, 신 10:4-5; 31:26)

다. 왕상 8 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 이 궤에는 단지 두 돌판만 들어 있었다고 말한(즉, 십계, 참조, 왕상 8:9)

III. 그것의 위치

가.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항

1. 시삭(주전 935-941 년)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제 오년(주전 926 년)에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이집트로 가져감(참조, 왕상 14:25-26; 대상 12:9)
2. 바로 느고 II 세(그는 다윗의 씨인 여호아하스[요시아의 아들]를 사로잡아감)가 주전 597 년에 이집트(소안, 타니스, 아바리스—세티 I 세가 삼각주 지역에 세운 수도를 일컫는 여러 이름)로 가져감(참조, 왕하 23:31-35; 대하 36:1-4)
3. 느부갓네살 II 세가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가고(주전 586 년) 성전을 불태울 때에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의 신전으로 가지고 감(참조, 왕하 25:9,13-17; 대하 36:18).

나. 유대인의 전통

1.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느보/비스가 산에 숨김
2. 외경인 바룩 2 서는 천사가 이것을 숨겼다고 말한다
3.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감추어졌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가지고 올 것이다(참조, 말 4:5)
4. 사마리아인들이 야웨의 성전을 세운 그리심산(세겜)에 감추임

▣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70 인역과 필로의 저서에서는 “금의”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만, 맛소라 본문에는 이 단어가 있지 않다(참조, 출 16:31-36). 요세푸스는 이 항아리가 2 리터들이었다고 말한다. 만나가 썩지않은 것은 기적이었다(참조, 출 16:18-21,22-25).

▣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고라가 반역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시기 위해 야웨께서 사용하신 표적이었다(참조, 민 17:1-11; 20:8-11).

▣ “언약의 돌판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십계명(열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을 가리킨다(참조, 출 25:16; 신 9:9,11,15; 10:3-5; 31:18; 32:15). 신명기서와 수 24 장은 히타이트 조약의 형식(주전 두 번째 천년)을 취하고 있다. 그들의 경우 조약을 체결시 항상 두 개의 문서를 만들어 하나는 봉신관계에 있는 왕에게 주어 매년 신전에서 그 내용을 읽게 하였다. 따라서 두 돌판은 같은 내용이 담긴 두 개의 판이었을 것이다.

9:5 “영광의 그룹들” 이것은 시온소(판)의 양 끝에 놓은 두 개의 천사형상을 가리킨다. 그들의 날개가 궤를 가렸다(참조, 창 3:24; 출 25:18-22; 겔 10:14; 그러나 겔 41:18 에서는 그들이 두 얼굴이 아니라 네 얼굴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출애굽기의 해독”이라는 역사 방송 비디오에 의하면, 이 천사들은 불사조였다. 성경은 천사의 세계에 대하여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호기심은 종종 계시된 진리를 앞서 나간다. 1:3 에 있는 “영광”에 대한 설명을 보라.

▣ “속죄소” 이것은 “언약궤”로 불리는 나무 상자를 덮는 금판을 가리킨다. 이것은 죄를 “가리는” 특별한 장소였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다음을 나타낸다

1. 야웨께서 두 천사 모양의 형상 사이에 거하심(랍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불렀다)
2. “열 말씀”(십계)이 담긴 상자
3. 속죄일(참조, 레 16 장)에 대체사장이 지성소에 두 번 나아가 피를 속죄소에 뿌렸다(한 번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또 한 번은 민족 전체의 계획적이지 않은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린 흠없는 짐승의 피는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아웨의 눈을 가렸다(생명이 피에 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

▣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알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은 보류를 뜻한다. 우리의 저자는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 성막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말하였다.

개역개정 9:6-10
⁶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⁷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⁸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⁹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¹⁰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9:6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제사장들은 *메노라*를 기름으로 채우고(참조, 출 27:20-21) 진설병을 매주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고(참조, 레 24:8-9) 향단에 소량의 향을 넣어야 했다(참조, 출 30:7-8).

9:7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그는 ‘욘 키푸르’로 불리는 속죄일(참조, 레 16 장)에 한 번 들어갔다. “키푸르”는 “덮다”(cover)를 뜻하는데, 동족어인 아카디아어에서는 “쓸어버리다”를 의미한다. 히 9 장은 속죄일의 예식에 대해 신약의 어떤 장에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죄만 제사제도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의도를 갖고 행한 죄나 “고압적인 죄”(sins of the high hand, KJV)는 속죄받을 수 없었다(참조, 레 4:2; 민 15:24,27, 30,31; 시 51:17). 속죄일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기 위한 예식의 날이었다.

9:8-10 이 세 절은 (1) 모세의 언약이 가진 예비적 성격 (2) 새 언약의 우월성을 나타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 어떻게 나오는가?

1. 옛 언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만 일 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은 죄를 속할 수 있었다(제한된 접근과 제한된 용서)
2.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죄 없으심을 인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고의적인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별없이 용서받게 되었다(완전한 접근과 완전한 용서)

새 언약(참조, 렘 31:31-34)은 외적 규정에 따른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서 예배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확신을 준다(새 마음, 새 영, 참조, 겔 36:20-27). 예식이나 예식절차(참조, 6:1-2)에 의함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이 확신을 갖게 된다.

9:8	
NASB	“바깥쪽 장막”
NKJV	“첫 장막”
NRSV	“첫 텐트”
TEV	“바깥쪽 텐트”
NJB	“옛 텐트”

히브리서의 저자는 장막의 바깥쪽에 있는 장소를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인 “첫 장막”으로 부른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에 따른 예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게 했음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헤롯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져(참조, 마 27:51),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여 나타냈다.

9:9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옛 언약은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죄의식을 몰아낼 수 없었다(참조, 14 절). 신약(구약이 아님)은 양심을 도덕적 안내자로 말한다(참조, 뱀전 3:21). 문화적으로 양심을 무디게 하거나 잠잠히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험성이 따른다(참조, 마 23:25-26). 이것은 왕상 19:12의 “세미한 소리” 혹은 “작고 잔잔한 소리”에 대한 신약적 대위법을 이룬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용어의 용법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로버트 B. 거들스톤(*구약의 동의어*)에 나온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본문에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히 9:9에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사람을 ‘양심에 관한 온전케 할 수’ 없었음을 안다. 즉,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막는 죄의식을 없앨 수 없었다. 제사가 죄를 없애지 못했다. 사실 제사의 성질상 죄를 없앨 수도 없었다. 만일 레위 지파를 통해 허락하신 이 방법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예배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죄악된 양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히 10:2).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죽음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또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히 9:14); 그리고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10:22).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고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장애가 되었던 죄의식을 해결받고,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써 살게 된 것이다”(73 쪽).

▣ “온전하게” 7:11의 특별주제를 보라.

9:10

NASB

“개혁할 어느 때”

NKJV

“개혁할 그 때”

NRSV

“일들이 바로 되게 하려고 그 시간이 온다”

TEV

“하나님께서 새 질서를 세우실 그 시간”

NJB

“일들이 바로 되게 하려고 온 그 시간”

이것은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언약을 가리킨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실 마지막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써 이 구를 사용했다. 이것은 렘 7:3,5에서는 도덕적 개념을 가진다.

개역개정 9:11-14

¹¹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¹²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¹³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¹⁴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9:11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1. 창조 전에(참조, 계 13:8)
2. 갈보리에서(참조, 12 절)
3. 성부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심, 참조, 9:24-25)

예수께서 자신을 두 번 드리셨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단번에”에 강조점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갈보리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지만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음을 뜻하거나 혹은 이것이 단순히 (1) 회화적인 신학적 묘사 혹은 (2) 영감받은 랍비들의 신비주의를 뜻할 것이다.

▣ “장래 좋은 일의” 고대 헬라이어 사본에 다음과 같은 변이가 나타난다: (1) “오는 일들,” \aleph , A (NASB, NKJV, NJB) 및 (2) “여기에 이미 일어난 일들,” P⁴⁶, B, D* (RSV, NEB, TEV, NIV).

▣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자들의 부활체(참조, 고후 5:1)와 예수님의 몸(참조, 막 14:58)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히 8:2; 9:24).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참조, 레 16:11) 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위한 것이었다(참조, 레 16:11). 구약의 제사제도(참조, 레 1-7 장)는 무흠한 짐승으로써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하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시함)이었다(참조, 레 17:11).

▣ “오직 자기의 피로” “디아”라는 헬라이어 전치사는 (1) “통하여” (NASB, NIV) 또는 (2) “을 가지고” (NKJV, NRSV, NJB)를 의미할 수 있다.

▣ “성소” 여기서는 이 단어가 하늘에 있는 장막의 “지성소”를 가리킨다.

▣ “단번에”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참조, 7:27; 9:28; 10:10).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마치신 제사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7:2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NASB, NKJV,

NRSV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TEV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NJB

“영원한 속죄를 거두셔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주어의 참여와 관심사를 강조하여 완성된 일을 나타낸다.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1) 그 일의 성격, “새 시대의 삶” 또는 (2) 그 일의 양, “끝이 없는 생명”과 관련을 가진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경교가 아주 강렬하기에 1 항의 설명이 더 적합하게 여겨진다. 6:2 의 특별주제: 영원함을 보라.

▣ “속죄” 이 단어는 가까운 친족이 돈을 지불하여 사람을 풀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약에서 “고엘”을 뜻한다(참조, 룻 4 장; 사 43:1; 44:22,23; 48:20; 12:9; 63:9; 호 13:14).

9:1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를 가리는 방법으로 모세의 희생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 “암송아지의 재”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정결케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다(참조, 민 19 장).

▣ “뿌려” 이것은 모세의 예식에서 액체(피 혹은 물과 섞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거룩함 혹은 깨끗케 하는 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로버트 B. 거들스톤은 *구약의 동의어*에서 흥미로운 사항을 말한다.

“히브리서에서 뿌림(*산티스모이*)은 특별히 두 종류의 일을 가리킨다—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일(히 9:13)과 옛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들과 책 위에 피를 뿌린 일; 또 성막 위와 성소에서의 섬김에 사용되는 여러 그릇 위에 뿌린 일(히 9:19,21). 이러한 행위는 예수의 피를 뿌림을 드러낸다. 그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이다(히 12:24)” (152 쪽).

9:14 “어찌 ~ 하지 못하겠느냐” 언약을 비교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참조, 2:1-3; 3:3; 8:6; 10:28-29).

▣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존재하시던 영의 상태 혹은 성령을 가리킨다.

세계성서공회의 *히브리서에 대한 핸드북*(엘링위스와 니다 공저)은 왜 ‘영’이 소문자 “s”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한편 대다수의 현대역본에서는 이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NASB, NKJV, NRSV, TEV, NJB, NIV).

1. 정관사가 없다
2. 저자가 종종 “성령”에 대해 말하는데, 그때 마다 이 긴 호칭을 사용한다
3. 이 구가 7:16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평행을 이룬다(196 쪽)

F. F. 브루스는 *새국재주석 시리즈*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40-54 장)에 대한 암시를 한다”고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이 단락에 속하는 42:1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다”라고 말한다(205 쪽). 구약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같은 종류의 책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

▣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다(참조, 요 10:17-18; 고후 5:21; 빌 2:8; 사 52:13-53:12). 2:17의 특별주제: 대제사장 예수를 보라.

▣ “흠 없는” 7:26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죽은 행실에서” 이같은 구가 6:1에서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구약예식과 그 절차를 가리킨다. 참된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취하신 대속적인 속죄에 있다(참조, 요 1:29; 요일 3:5). 죽은 행실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M. R. 빈센트(*신약에서의 단어연구*)의 설명에 나는 깊이 동의한다:

“이것은 행함에서 죽음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행함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이 요소는 최악된 것으로 인식되며 또 죄인이 행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미명아래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에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행위주의적 개념이 현저히 믿음의 종교에 있기에, 기독교는 행위에 대하여 가장 엄격하면서도 가장 철저한 조사로써 이를 점검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것에 대한 가장 엄격한 시험은 그가 율법주의적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심에 있다. 이러한 종류의 굴레는 ‘최악된 심각한 습관’의 지배를 벗어난 자들을 묶어버리고 있다”라고 브루스 교수는 신실하게 말한다(1139-1140 쪽).

▣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신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것임을 주목하라(참조, 롬 6 장). 구원은 죄의 통치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구원은 어떤 산물(천국행 표를 예매함 혹은 화재보험에 가입함)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곧 순종과 섬김의 삶에 들어서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받았으며(참조, 엡 4:11-12)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참조, 고전 12:7,12).

“살아 계신”이라는 형용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된 언어유희를 나타낸다. 이 이름은 “있다”라는 어근의 동사에서 유래했다. 야웨는 항상 살아 계시며, 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가장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삼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릿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사 9:46
4. 엘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값스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뿔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ἑλωσιτοσ**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 다. **엘로힘(복수형)** 및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아(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 이름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뿔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 (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 (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샤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칼*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필*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쓰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살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사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스.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오.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시다, BDB 217 & 841), 렘 23:6
- 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개역개정 9:15-22

¹⁵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¹⁶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¹⁷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¹⁸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¹⁹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²⁰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²¹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²²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15 “증보자” 8:6 의 설명을 보라(참조, 12:24; 딤후 2:5).

▣ “새 언약” 이것은 8:8,13 에서 처음 나오지만 7:22 에서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단 한 곳에서만 나오는 충격적인 용어이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15-18 절은 “언약”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인 ‘법적 계약 혹은 동의’(히브리어) 및 ‘유언과 증거’(헬라어 및 라틴어)와 관련을 가지는 언어유희이다.

▣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뛰어난 존재(인간)에게 사형선고를 가져왔다(참조, 엠 2:14-17; 골 2:14). 왜냐하면 창 3 장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 언약은 “행하여 살라”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이 요구조건을 온전히 따라 지킬 수 없었다. 옛 언약은 “죄를 범하는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선언한다(참조, 왕하 14:6; 겔 18:4,20).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죄 없으며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든 이를 위하여 단번에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을 보내시는 것이었다(참조, 사 52:13-53:12).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놓으신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3:1; 요 6:44,65; 롬 8:28,30; 9:24). 3:1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기업”이라는 개념은 레위인이 야웨와 갖는 독특한 관계를 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 새 언약의 신자들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슷하다(참조, 벧후 3:5,9; 계 1:6). 신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업이다(참조, 벧전 1:3-5).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 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룖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증재자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역할을 한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인 구속자/보수자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뱀전 1:18-19
- ㄷ. *퀴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 5. *안틸퀴트론*(참조, 딤후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인해 놓임을 받게 됨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후 2:14 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제물이시다(참조, 요 1:29; 3:16-17; 4:42; 딤후전 2:4; 4:10; 딤후 2:11; 뱀후 3:9; 요일 2:2; 4:14).
-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매우 특별한 차원에 속하는 면도 지니셨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에 속한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9:16-18 이 단락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1) 저자가 “언약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유언 혹은 증거”에 기초하여 랍비들의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갈 3:15). 이것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새 증거가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는 (2) 이 용어를 항상 “언약”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가장 좋은 논증이 M. R. 빈센트의 *신약의 단어연구*에 나온다:

“*디아세케*를 증거로 번역하지 않고 언약으로 번역함에 있어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ㄱ) *갑작스러운 변화 및 그것이 논리의 진행에 미치는 방해*. 연속적인 논증의 한 중간에 이 단어가 제시되는데, 그 논증은 새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과 비교되며 대조를 이루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8:6-10:18) (ㄴ) 그 유사점과 상이점을 다룸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은 두 언약이 *죽음*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또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그 죽음은 일반적인 자연사가 아니라 희생제사와 관련된 폭력적인 죽음으로서 그 본질상 피를 흘리는 일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성격은 15 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만일 *디아세케*가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6 절에 나오는 *싸나톤*(죽음)은 피흘림에 의하지 않은 자연사를 뜻함이 분명하다. (ㄷ) 상속과 관련지어 볼 때, 증거라는 용어는 히브리인들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클레로노미아*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있는 기업과의 관련을 항상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언약과 관련된 기업을 뜻하였다. 신 4:20-23; 대상 16:15-18; 시 105:8-11 을 보라. (ㄹ) 히브리서의 저자가 습관적으로 70 인역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역본에서 *디아세케*는 일반적으로 언약을 뜻한다. 이 단어가 대략 350 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 언약을 뜻한다. (ㅁ)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언약을 인정하는 일이 창 15:10; 시 1:5; 램 34:18 에서 입증된다. (ㅂ) 만일 16 절과 17 절에서 증거가 올바른 번역이라면, 저자는 수사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18 절 이하에서는 16 절과 17 절에 있는 전제사항에 대한 역사적 실례를 드러내기 위함이 분명함은 물론 예증을 한 사항과 전혀 다른 관점을 그 예들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려는 내용은 이렇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이후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첫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로서 견고히 되었다” (1144 쪽).

▣ “세운 것이” 10:20 에 있는 설명을 보라.

9:19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저자는 레 14:6-7 에 있는 내용인 문둥병자에게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것을 출 24:1-9 에 있는 내용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성별하게 한 일과 결합시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막은 24 장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참조, 출 40 장). 요세푸스는 피를 뿌리는 일이 출 40 장에 있는 예식의 일부였다고 말한다.

“염소”라는 단어가 여러 고대 헬라어 사본(P⁴⁶, κ^c , K, L)과 시리아역 및 오리겐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서 빠져 있다. 염소는 일반적으로 언약을 승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속죄제물로서 사용되었다(항상 그랬던 것은 아님, 참조, 창 15:9). 출 24:1-8 에서 “열 말씀”(토라)을 성별하는 일에 염소가 빠져 있다. 아마도 “염소”는 레 16 장에 있는 바 속죄일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그 본문에 있는 예식에서 염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관점에서 평가하여 행 7 장(스테반의 설교)과 히브리서 저자(고대 성막에 대한 9 장의 내용)의 설명이 정확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많은 고대 예식 내용이 있으며, 또 이 예식들과 관련된 랍비들의 전통이 항상 바뀌고 있었다.

9:20 이것은 출 24:8 의 인용이다.

9:22 “거의 모든 물건이” 구약의 제도에서 피를 사용하지 않고 정결케 되는 몇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었다: (1) 레 5:11 (2) 민 16:46 (3) 민 31:22-23 (4) 출 19:10; 32:30-32; 레 15:5; 16:26,28; 22:6 (5) 시 51 편. 다음의 설명을 보라.

▣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씻는 일은 (1) 불 (2) 물 (3) 피로써 가능했다. 이 저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 죄사함은 생명의 박탈을 수반한다(참조, 레 17:11,14). 구약의 제사제도(참조, 레 1-7 장)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참조, 마 26:28; 막 10:45; 고전 11:25; 고후 5:21).

구약에는 피흘림 없이 깨끗게 된 몇가지 경우/사람들이 있었다.

1. 불로써(참조, 레 13:52,55; 16:27; 민 31:23)
2. 물로써(참조, 출 19:30; 레 15:5; 16:26,28; 22:6; 민 31:24)
3. 소제로써(참조, 레 5:11-13)
4. 향으로써(참조, 민 16:46-48)
5. 중보기도로써(참조, 출 32:30-32)
6. 죄의 고백과 참회로써(참조, 시 32 편, 51 편)

개역개정 9:23-28

²³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²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²⁵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²⁶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²⁷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²⁸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상에서의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다는 개념은 특이한 내용이지만, 이 저자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참조, 롬 8:18-22). 이 장에서 아주 자주 암시하고 있는 속죄일은 성소를 의식적인 부정함에서 해마다 정결케 하는 일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출 30:10; 레 16:11-20). 하늘의 오염은 다음에 의해 일어났을 것이다

1. 인간의 타락(참조, 롬 8:18-22; 골 1:20)
2. 사탄이 존재함(참조, 요 1-2 장; 숙 3 장)
3. 랍비들의 전통에 따른 개념

9:24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은 두 단계로 성취되었다:

(1) 땅에서의 제사 및 (2) 하늘에서 제사장되심. 이 구는 두 가지로 이해된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 그가 드리신 희생적 죽으심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그가 계속하여 중보적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7:25; 롬 8:34; 요일 2:1).

“나타나시고”라는 용어인 *εμφανισμος*는 “드러나다”를 뜻한다(참조, 마 27:53). 26 절에서는 “드러내다”(파네로오, 참조, 고후 5:10; 골 3:4; 벧전 5:4; 요일 2:28; 3:2)를 사용하였고, 28 절에서는 “나타나다”(우토마이, 참조, 마 17:3; 눅 1:11; 9:21; 22:43; 24:34; 행 2:3; 7:2,30,35; 9:17; 16:9; 26:16)를 사용하였다. 저자가 서로 동의어를 이루는 세 단어를 사용한 점이 놀랍다.

9:25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자신을 “한 번” 주신 일을 히브리서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적 내용이다(참조, 7:27; 9:11,25-28; 10:10). 따라서 그의 제사장직, 희생, 성소는 구약에서 상응되게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9:26

NASB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NKJV

“그러면 그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NRSV

“그리하면 그가... 다시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TEV

“그리하면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NJB

“그렇지 않으면 그가... 계속 거듭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A. T. 로벗슨은 *신약의 워드픽처*에서 이것이 **조건절의 제 2 유형**을 취한다고 주장한다(제 5 권 404 쪽). 그 유형은 거짓된 결론에 이끌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술을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진 제사와 달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

▣

NASB

“세대들의 완성에”

NKJV

“세대들의 끝에”

NRSV

“세대의 끝에”

TEV

“이제 모든 세대들의 시간이 끝에 가까이 있는 때에”

NJB

“마지막 세대의 끝에”

“시간,” “영원,” “세대”와 관련을 가지는 여러 헬라어 단어가 있다. 9 장에 세 가지 시간적 표현이 나온다:

1. 9:9, “현재” 즉, 구약
2. 9:10, “개혁의 때” 즉, 신약(새 세대의 시작)
3. 9:26, “세대들의 끝” 즉, 의의 새 시대(새 세대의 절정, 참조, 마 13:39,40,49; 24:3; 28:20)

랍비들과 신약의 저자들은 두 세대를 바라보고 있었다(수평적인 이원론): (1)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특징짓는 현재의 악한 세대 (2) ‘메시아께서 시작하실 오는 세대’인 의의 날.

구약은 메시아께서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위엄있고 힘있게 오심을 강조하지만, 구약은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을 드러낸다. 한 번은 고난받는 종인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그 후에는 구약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오신다. 서로 구별되게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시는 일은 유대인이 가진 두 세대로 하여금 겹쳐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출생과 함께 도래했지만 이것은 그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두 영역인 ‘영원한 왕국과 일시적인 왕국’에 속한 시민이다.

9:27 이 절은 영혼이 떠돌, 혹은 윤회의 *카르마* 개념이나 전쟁의 교리를 완전히 배격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교리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에게 있어서 소름끼치는 교리이다!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기독교의 세계관은 복음전도의 절급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내용이 될 뿐 아니라, 보편적 구원론(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배격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것은 대위임(참조, 마 28:19-20)이 하나의 좋은 제안이나 선택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9:28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은 사 53:12 의 암시일 것이다(참조, 벧전 2:24). “많은”이라는 용어는 배제적인 개념(일부)이 아니라 53:6 에 있는 “모든 사람”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롬 5:18 에 있는 “모든”; 5:19 에 있는 “많은”).

“담당하다”라는 용어는 사 53:4,11,12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히브리 동사는 “감당하다” 혹은 “가져가 버리다”를 뜻한다(참조, 벧전 2:24).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지 않은 빛을 갚으셨고,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빛을 졌다.”

▣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심을 가리킨다. 이 주제는 신약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난다(참조, 마 24:3,27,30,37,39,42,44; 26:64; 막 13:20; 14:62; 눅 21:27; 요 14:3; 행 1:11; 고전 1:7; 15:23; 빌 3:20-21; 살전 2:19; 3:13; 4:15-16; 5:23;

살후 1:7,10; 2:1,8; 딤편 6:14; 딤후 4:1,8; 딤 2:13; 히 9:28; 약 5:7-8; 벧전 1:7,13; 벧후 1:16; 3:4,12; 요일 2:28). 1:14 의 특별주제: 구원을 뜻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보라.

한편 문맥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성공적으로 위대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늘의 장막을 떠나심을 이것이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참조, 미첼 마길의 *신약 번역의 개략*, 846 쪽 32 항과 35 항). 이것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를 나가는 일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NASB “구원을 위해 죄와 상관 없이”
NKJV “죄에서 떠나, 구원을 위해”
NRSV, TEV “죄와 관련없이, 오직 구하기 위해”
NJB “죄가 더 이상... 구원을 가져 오에”

이 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오신 일 및 그가 다시 오사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과 자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참조, 살전 4:13-18) 또 오실 것임을 암시한다(참조, 롬 8:19,23; 고전 1:7; 빌 3:20; 딤 2:13).

▣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것은 속죄일에 행한 예식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암시일 것이다.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 나오길 간절히 기다렸다. 그것은 야웨께서 그의 중보적 사역을 받아들이심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광야에 있던 고대의 장막에 대해 말하는가?
2. 왜 9:9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가?
3.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들어가사 희생제물을 드리신 하늘 장막이 실재하는가?
4. 저자가 15-18 절에서 “언약”으로서 나타내는 두 가지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로 죄가 없어짐 (9:23-10:18)	동물로 제사드림이 효력 없음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성격 (9:23-10:18)	그리스도의 제사가 죄를 없이함 (9:23-10:18)	옛 제사가 효력이 없음
10:1-4	10:1-4	10:1-10	10:1-4	10:1-10
10:5-10	10:5-10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화된 자들을 온전케 함		10:5-10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의 효력
10:11-14	10:11-18	10:11-18	10:11-14	10:11-18
10:15-18			10:15-18	
권면과 경고	너의 고백을 굳게 하라	권면과 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의 기회
10:19-25	10:19-25 오직 믿음으로 삶	10:19-25	10:19-25	10:19-25 배교의 위험
10:26-31	10:26-39	10:26-31	10:26-31	10:26-31 인내의 동기
10:32-39		10:32-39	10:32-39	10:32-39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8:1 에서 시작된 문맥이 10:18 까지 이어진다.
- 나. 이 본문은 예수의 사역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한 사역보다 우월함에 대해 세 가지를 시사한다.
1. 예수의 우월한 희생제사(자기 자신의 피, 참조, 9:12-14)
 2. 예수께서 단번에 모든 이를 위해 드리신 제물(7:27 에 있는 설명을 보라)
 3. 예수께서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심(참조, 9:11)
- 다. *텔레이오*라는 **동사**가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1. 2:10,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심
 2. 5:9,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며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심
 3. 7:19, 모세의 율법이 아무 것도 완전케 하지 못함
 4. 7:28,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심
 5. 9:9, 모세의 예식이 예배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음
 6. 10:1, 모세의 예식이 예배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음
 7. 10:1, 예수께서 드리신 제물이 신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함
 8. 11:40,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온전케 됨
 9. 12:33, 의인의 영이 온전케 됨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0:1-10

¹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²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³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⁵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⁶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⁷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⁸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⁹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¹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1 “그림자” 모세의 율법규정(“율법”)과 이에 따른 예식은 예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행하신 대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는 모형이며 그림자였다(참조, 8:5; 9:23-28).

제롬 성경 주석은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여기서 저자는 그가 8:5 에서 하듯듯이 ‘그림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8:5 에서는 바울이 사용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올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개념(참조, 골 2:17)이 아니라, 플라톤적 체계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대비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 . . 매해 속죄일에 반복하여 드린 제사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 그 행위는 단지 예수께서 드리시는 제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399 쪽).

▣ “장차 올 좋은 일의” 9:11 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었다.

- ▣
- NASB “바로 그 형태가 아니므로”
- NKJV “그것들의 바로 그 이미지가 아니므로”
- NRSV “이 실재들의 참된 형태가 아니므로”
- TEV “참 실재들의 온전하고 충실한 모델이 아니므로”
- NJB “그것들의 참 이미지가 아니므로”

이것은 실재에 상응하는 정확한 복제를 뜻하는 의미를 가진 *이콘*이라는 용어이다(참조, 고후 4:4; 골 1:15). 여기서서는 이러한 개념을 부정하고 있으며, 문법적으로는 “그림자”와 연결된다.

▣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예수께서는 한 번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들은 거듭하여 제사를 드렸다.

▣ “온전하게 할 수” 이 용어는 “완성을 가져오다” 혹은 “완전히 성취하다”를 뜻한다. 이 단어(*텔레이오오*)는 이 책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오는 주제이다.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텔레오스라는 용어는

1. “완성,” “목표에 도달함,” 혹은 “끝”을 뜻한다(참조, 3:6,14; 6:11)
2. 히 5:14 에서 *텔레이오스*는 성숙한 사람을 나타낸다
3. 6:1 에서 *텔레이오테스*는 성숙함을 가리킨다
4. 7:11 과 9:11 에서는 멜기세덱의 사역 및 하늘에 있는 성막과 연관성을 가진다

▣ “나아오는 자들을” 구약에서 이것은 제사장이 야웨께 예배나 사역을 위해 가까이 나아감을 뜻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새 언약 아래서(참조, 렘 31:31-34)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모든 신자들(참조, 약 4:8)을 가리킨다(참조, 4:16; 7:19,25; 10:1,22).

10:2

- NASB, NRSV, NJB “그렇지 아니하면”
- NKJV “그 때에는”
- TEV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종종 불린다. 거짓된 주장은 강하게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참조, 4:8; 7:11; 8:4,7; 10:2; 11:15).

2 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1.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하는 질문, NASB, NRSV, NAB 에서 그러함
2. 부분적인 질문, NKJV, NIV 에서 그러함
3. 선언, TEV, NJB, REB 에서 그러함

▣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것은 성전이 아직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참조, 11 절; 7:28); 따라서 히브리서는 주후 70 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해에 성전(예루살렘도)이 로마 장군(후에 황제가 됨) 티투스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다.

▣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것은 모세의 예식이 가진 문제였다: 이 행위는 심령과 마음 속에 있는 죄의식을 정결하게 할 수 없었다(참조, 9:9,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깨끗해진 양심)!

10:3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것은 속죄일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레 16 장). 9 장 이후로는 이것이 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것은 제사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성소와 국가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필요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반복하여 죄를 범하며 또 그 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였다(참조, 갈 3 장).

10:4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6:6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 6:4(헬라어에서 이러함, NASB 역에서는 6:6 에 있음),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회개하게 하기가 불가능함
2. 6:18,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일이 불가능함
3. 10:4,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는 일이 불가능함
4.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불가능함

히브리서의 저자는 “불가능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렵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10:5

NASB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그가 이르시되”

NKJV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가 이르셨으되”

NRSV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가 이르셨으되”

TEV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막 오시려던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이르셨으되”

NJB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가 세상에 임하는 때에 . . . 이르셨던 이유이다”

이것은 시 40:6-8 의 인용문(참조, 5-7 절)을 시작하는 내용이다. 이 인용문은 그들이 믿음에 따른 삶이 없이 드린 구약의 제사를 야웨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 우리의 저자는 시 40:7 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암시로 사용한다.

이 인용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재하셨음을 나타낸다(참조, 요 1:1-2; 8:57-58; 고후 8:9; 빌 2:6-7; 요일 1:1).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시간이 결코 없었다! 그가 성부와 본질상 같은 분이심에 대하여 요 5:18; 10:30; 14:9; 10:28 이 증거한다.

▣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70 인역의 시 40:6 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를 위해 한 귀를 과 주셨도다”로 되어 있다.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몸의 한 지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1 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사람이셨다.

10:6 이같은 본문이 구약의 여러 곳에 있다(참조, 삼상 15:22; 사 1:11-17; 호 6:6; 암 5:21-27; 미 6:6-8). 그 본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 제도는 인간의 죄 및 교제의 문제를 제한된 시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도였다.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담긴 회개와 믿음으로써 나아오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인 예식과 의식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함께 하지 않고 또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이’ 그저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예식과 의식을 거부하시는 것이었다(참조, 사 1 장).

10:7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것은 완료 수동으로서 구약을 가리킨다. 원래 구약은 단락 별로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 1947 년에 발견된 사해사본 가운데 길이가 8.7 m 에 이르는 이사야 사본 하나가 들어 있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 세워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새 언약이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히 10:9). 희생제물으로써 죽는 짐승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참조, 요 10:17-18).

10:8 “제사” 8 절에 나오는 네 가지 항목은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레 1-7 장). “제사”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를 가리킨다.

▣ “예물”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를 가리킨다.

▣ “번제” 이것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 전체를 태워 드린 제사였다.

▣ “속죄제” 이것은 레 4-5 장에서 규정한 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이었다.

▣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저자의 목적은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가 레위인들이 드린 제사보다 더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구약의 제사가 적합한 자세와 절차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10:9 “내가” 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불명확하다. 이 단어는 언약을 시작하신 이이신 성부를 나타낼 수 있다. 10 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는 그가 주어가 아님을 뜻한다. 한편, 시 40:6-8(5-7 절)의 인용문에서는 모든 동사가 그리스도를 주어로서 지칭한다.

▣ “그 첫째 것” 이것은 모세의 언약을 가리킨다(참조, 골 2:14).

- ▣
- NASB, NKJV “치우심은”
- NRSV “폐지하심은”
- TEV “버리심은”
- NJB “폐지하심은”

이것은 “멸망시키다”(아나이레오)라는 강한 뜻을 가진 헬라어 용어이다. 이 용어를 구약과 관련지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로서 이것은 영원하다(참조, 마 5:17-19). 바울은 종종 구약을 인용하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한다. 한편, 구원의 방법 혹은 죄 용서함의 방법으로서 구약은 단지 초기적 단계에 속한다(참조, 갈 3 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완성되었고 더 뛰어나게 되었다. 문맥에 의해 이 용어를 “치우심은”(성취된) 혹은 “폐하심은”(파괴시키다)으로 번역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 “둘째 것”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을 가리킨다(참조, 램 31:31-34; 겔 36:22-36).

- 10:10
- NASB, NKJV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 NRSV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니라”
- TEV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에게서 정결케 되었노라”
- NJB “그리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 뜻”은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는가(참조, 7,9 절 및 NASB, NJB) 아니면 성부의 뜻을 말하는가(NRSV, TEV)? 5 절에서 말씀하는 이가 예수이시기에(참조, 9 절), 문맥은 ‘그리스도의 뜻’을 지지한다.

▣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 분사이다. 기독교는 의로운 백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구약의 목적이기도 했다. 거룩함 또는 거룩하게 됨은 기본적으로 저주 및 타락함의 결과(참조, 창 3 장)를 제거하는 일이다. 타락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켰다. 새 언약은 두 가지 면에서 이 필요에 대해 제시한다: (1) 법적으로 주어진 신분에 대한 선언(직설법) (2) 거룩함으로의 부르심(명령법).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의 대속적 희생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응답함을 통해 신자들은 의롭다함과 거룩케됨을 입는다. 한 번 구원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참조, 롬 8:29; 갈 4:19; 엡 1:4) 내적인 법, 내적 소망(새 마음과 새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지위 및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새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 2:1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참조, 사 53:6; 롬 3:10-18);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 나서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자신과의 사귄으로 돌아오게 길을 준비하셨다(참조, 마 10:45; 고후 5:21; 사 53 장).

▣ “단번에”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7:27; 9:12,28; 10:10; 7:27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예수의 희생이 모세의 언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드러진 제물보다 우월함을 나타낸다(참조, 11-12 절).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누구라도 나아올 수 있다”(참조, 롬 10 장).

개역개정 10:11-18

¹¹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¹²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¹³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¹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¹⁵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¹⁶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¹⁷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¹⁸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0:11 “제사장마다”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A에는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다. 저자는 종종 예수께 대해 두 용어를 사용한다.

▣ “서서” 제사장은 매년 서서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앉아 계신다”(12 절). 그가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이다!

10:12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께서는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를 인해 멸망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구원 받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장애가 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셨다.

디에네케스라는 헬라어는 “영원히” 또는 “항상”으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세 번 사용되었다(참조, 7:8; 1:12,14). 이 단어는 보통 그 앞에 나오는 용어나 구와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이 단어는 “죄를 위한 한 제사”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 110:1의 인용문에 있지 않은 부분이다.

▣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은 시 110:1a 에 대한 반복적인 암시이다(참조, 1:3; 8:1; 12:2). “우편”은 왕의 권세, 권위, 뛰어난을 나타내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이곳은 중보의 장소이기도 하다(참조, 롬 8:34; 히 7:25; 요일 2:1).

예수께서는 제사장이시며(참조, 시 110:4) 왕이시다(참조, 시 110:1-3). 뿔기세택처럼(7 장) 그는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10:13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것은 시 110:1b 에서 취한 또 하나의 인용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으나(참조, 골 2:15) 그것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10:14 이 절은 성도의 안전과 관련하여 책 전체의 긴장을 드러낸다. 예수께서 드리신 한번의 제사는 신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였다(완료 능동 직설법,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구속 사역에 있어서, 그 희생은 적합하며 온전한 것이었다(모세의 언약과 달리, 참조, 7:11,19; 9:9).

신자들은 반드시 계속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여야만 한다. 이 믿음의 응답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현재 수동 분사). 구원을 확신함에 있어서 각 개인의 지속적인 믿음이 그 열쇠이다. 새 마음과 새 심장(참조, 겔 36:22-38)은 신자들이 하여금 자신들이 거저 받되 온전하며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책에서는 예수께서 드리신 희생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질문도 제기하지 않는 반면, 각 사람의 응답(한 종류는 초기에 믿음을 고백함이고 두 번째 종류는 지속적인 믿음의 고백임)에 대해 질문을 한다.

10:15 “성령” 이것은 구약의 영감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나타낸다(참조, 마 5:17-19; 딤후 3:16).

10:16-17 이것은 램 31:33-34 의 인용인데, 그 구의 순서가 뒤바뀌어 나타난다. 이 본문이 맞소라 히브리 본문 및 70 인역과 차이를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인용은 8:10-12 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나타난다(만일 그 순서를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라면).

10:18 이것은 신자의 논리 및 우리의 큰 소망의 절정을 이룬다(첫 방법이 지나가 버렸다, 참조, 8:13).

개역개정 10:19-25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²³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²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²⁵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0:19

NASB, NRSV “그러므로 우리가 . . . 담력을 얻었나니”

NKJV “담대함을 가졌나니”

NJB “우리가 온전한 담력을 가졌나니”

“파레시아”라는 용어는 “담대함” 또는 “말할 자유”를 뜻한다(참조, 3:6; 4:16; 10:19,35). 이 용어는 신자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새롭게 얻었고 또 친밀함을 누리게 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줄 수 없는 내용이었다(참조, 9:9)! 믿음으로써 이 확신을 굳게 가져야만 한다(참조, 3:6,14; 4:14).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희생사역에 기초하지(참조, 엡 2:8-9) 인간의 행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은 경건한 삶에 의해 유지된다(참조, 엡 2:10).

특별주제: 담대함 (파레시아)

이 헬라어 단어는 “모두”(παν)와 “연설”(르헤시아)의 합성어이다. 연설에 있어서 자유와 담대함은 종종 반대와 거부하는 가운데에서의 담대함을 의미했다(참조, 요 7:13; 살전 2:2).

이 용어는 요한의 글에서(13 번 사용됨) 종종 공공적인 선포를 의미한다(참조, 요 7:4, 또한 바울의 글, 골 2:15). 그러나 때때로 단순히 “분명히”를 의미한다(참조, 요 10:24; 11:14; 16:25,29).

사도행전에서, 아버지와 그의 계획과 약속에 대하여(참조, 행 2:29; 4:13,29,31; 9:27-28; 13:46; 14:3; 18:26; 19:8; 26:26; 28:31)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같은 방법으로(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말한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하고(참조, 엡 6:19; 살전 2:2) 복음을 따라 살도록(참조, 빌 1:20) 기도를 요청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둔 종말론적 소망은 그때의 악한 시대에서 그가 복음을 설교하는데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었다(참조, 고후 3:11-12). 그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고후 7:4).

이 단어에 대한 또 한 가지 다른 면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참조, 히 3:6; 4:16; 10:19,35) 독특한 의미로서 그것을 사용한다. 믿는 자들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 갖는 담력, 확신, 담대함
 - ㄱ. 사람(참조, 행 2:29; 4:13,31; 고후 3:12; 엡 6:19)
 - ㄴ. 하나님(참조, 요일 2:28; 3:21; 4:12; 5:14; 히 3:6; 4:16; 10:19)
2. 사실대로 숨김없이 명료하게 말함(참조, 막 8:32; 요 7:13; 10:24; 11:14; 16:25; 행 28:31)
3. 공공연히 말함(참조, 요 7:26; 11:54; 18:20)
4. 이와 관련된 형태(파레시아조마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함을 뜻한다(참조, 행 18:26; 19:8; 엡 6:20; 살전 2:2)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단어는 종말론적 확신을 가리킨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에 확신에 찬 열정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린다.

▣ “성소에 들어갈” 이 책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사역과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을 통해 용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감’임을 기억하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일 년에 두 차례(참조, 9:25) 속죄일에 들어 갔다(참조, 레 16 장).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모든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또 다른 은유적 표현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일이다, 참조, 마 27:51; 참조, 막 15:38).

▣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은 마술적인 피가 아니라 인간의 피였다. 이 피는 예수께서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써 죽으신 것을 나타낸다(참조, 행 20:28; 롬 3:25; 5:9; 엡 1:7; 2:13; 골 1:20; 히 9:12,14; 12:24; 13:12; 뱀전 1:2,19; 계 1:5; 5:9).

10:20 “새로운” 이것은 프로스파토스로서 “새로 죽임을 당한”이라는 뜻이며,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 “살 길” 이것은 부활을 확증해 준다.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참조, 계 5:6)!

■	
NASB	“시작된”
NKJV	“우리를 위해 기록하게 된”
NRSV, TEV	“그가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신”
NJB	“우리를 위해 열린”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이 “새로운 살 길”은 성취된 역사적이며 영적 실재이다. 월터 바우어가 저술하고 알른트, 깅그리치, 당커가 내용을 증보한 *헬라이어-영어 신약사전*은 이 문맥에서 사용한 이 용어의 번역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1. 길을 열다(10:20)
2.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여 시작하다 또는 봉헌하다(9:18) (215 쪽).

이 문맥은 나에게 신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된 이 단어의 용법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하게 한다. 언약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다시 드러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길을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

■ **“휘장”** 이것은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세마포 휘장을 가리킨다(참조, 마 27:51). 여기서 휘장은 예수의 “육신”을 뜻한다. 이 단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상하게 된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사 52:13-53:12).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전(성소)의 바깥 쪽이 육체의 영역을 가리키고, 안 쪽(지성소)이 영적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하늘에 있는 성막은 땅에 있는 것과 대조된다(참조, 6:19).

10:21 **“큰 제사장”** 2:17의 특별주제: 대제사장 예수를 보라.

■ **“하나님의 집”** 이것은 구약(참조, 3:5)과 신약(참조, 3:6; 딤후 3:15; 벰전 4:17)의 신자들을 나타낸다(참조, 엡 2:11-3:13). 모세는 하나님의 집 사환이었으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며 아들이시다!

10:22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가정법**이다. 신자들의 확신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혜택과 특권도 반드시 포함된다! “가까이 나아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감을 뜻한다. 과정의 진행을 주목하여 보라:

1. 진실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22 절)
2. 우리의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하자(23 절)
3.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것인지를 생각하자(24 절)

새 언약(참조, 렘 31:31-34)은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것이다; 내적 사랑과 외적 율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인해 거저 누리는 은혜이지만, 이것은 열매를 맺음과 눈에 나타나는 변화를 요구한다! 구원의 확신은 경건한 삶을 낳는다! 이것은 신조를 받아들이는 행위나 어떤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님)을 전적으로 말한다!

“가까이 나아감”에 따르는 요구 사항을 주목하라.

1. 신실한 마음으로
2.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3. 악한 양심에서 깨끗하게 되는 피뿌림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4.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써 씻음을 받아

■ **“참 마음”** 믿음에 따른 새 언약에 있어서 적합한 자세가 열쇠이다(긍정적, 참조, 겔 36:22-36; 부정적, 사 29:13). 3: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확신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확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회심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삶(참조, 약 2:14-26)
2.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참조, 고후 5:21)
3. 성령의 증거(참조, 롬 8:16)

인간의 노력은 구원이나 확신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편,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고 있는 믿음은 그가 참으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입증한다. 기록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산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확신은 ‘어떤 교리적 사항을 인정하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야 할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 무관심하며 돌아보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이며, 열매가 없고, 결실을 맺지 못하며,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아무런 확신이 없다! 3:14의 특별주제를 보라.

▣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것은 첫 언약에 따른 예식의 시작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출 24:8; 벧전 1:2). 새 언약에 따른 피뿌림은 타락한 인간의 죄책을 깨끗게 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참조, 9:9,14).

▣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것은 구약이 제거할 수 없는 영역이다(참조, 9:9; 10:2). 한편, 벧전 3:21은 침례(세례)와 깨끗한 양심 사이에 비슷한 관련성을 제시한다.

▣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현재 수동 분사**이다. 이 내용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행한 일에 대한 암시로서, 저자가 이를 ‘뿌림에 의해 깨끗게 되는 구약의 씻음’에 대한 역사적 유추로서 사용하는 본문일 가능성이 있다(참조, 레 8:6; 16:4; 출 29:4; 30:17-21; 민 19:7-8). 이것은 기독교의 침례(세례)를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식에 따른 씻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또 다른 암시이다. 이것은 물을 사용한 예식이 (1) 죽음, 장사, 부활을 의미하며(참조, 롬 6:1-11; 골 2:12) (2) 죄를 씻어 버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참조, 행 22:16; 고전 6:11; 엡 5:26; 딤후 3:5; 벧전 3:21). 물이 기계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하듯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표로써 앞 쪽에 나아올 수가 없었다. 침례(세례)는 그들이 한 공개적인 신앙고백이었으며 선언이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죄 사함과 성령을 받고 또 이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지만(참조, 행 2:38) 이 예식이 그러한 수단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0:23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예상되는 믿음(의존적인)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은 세 **현재형 가정법** 가운데 두 번째 것이다.

▣ “**소망**” KJV에서는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헬라어 사본도 이 번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소망”이라는 용어는 종종 재림시 우리가 누릴 영화를 가리킨다(참조 3:6; 6:11,18; 7:19; 요일 3:2).

▣

NASB	“이는 약속하신 그가 신실하시기에”
NKJV	“이는 약속하신 그가 신실하시기에”
NRSV	“이는 약속해 주신 그가 신실하시기에”
TEV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에”
NJB	“왜냐하면 약속을 하신 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기에 있는 유일한 동사는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분사인 “약속하신”이다. 이것은 22-24 절에 있는 바 “우리가 ~하자”라는 세 문장과 신학적 균형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셨으며 보호하시는 바 ‘거저 누리는 역설적 구원’은 인간이 반드시 이에 대해 언약에 따른 적절한 응답을 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함께 성경적 진리이며 반드시 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자에게 아주 강한 확신을 준다(참조, 11:11). 하나님의 약속들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10:24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저자는 신학적 주제에 관한 우리의 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1. 고려하다, *카타노에오*, 1:1; 10:24(참조, 눅 12:24,27)
2. 지키다, *세오레오*, 7:4
3. 고려하다, *아나로기조마이*, 12:3
4. 고려하는, *아나세오레오*, 13:7

신자는 반드시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 다음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

1. 왜 이것이 진리인가
2.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어떻게 다른 이를 도울 것인가
4. 무엇이 주요 목적인가

▣ “격려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강한 헬라이어 용어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단 두 번만 사용되었다. 또 한 곳은 행 15:39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나오는 본문이다. 이 단어는 아마도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나타낼 것이다. 이 그룹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은 히 6 장이다(“우리를,” “너희가,” “그들을”).

▣ “사랑과 선행을” 이것들은 기독교인의 참된 열매이다!

10:25 24-25 절에는 신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한다.

1.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 함께 모이고(“회당”의 어근이 나타내는 의미,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됨)
3.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격려하는 신약의 유일한 본문이다. 이 점은 기독교에 대해 로마의 박해가 직접 있는 반면(인가되지 않은 종교)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인정받았던 역사적 상황(인가된 종교)을 반영한다. 이것은 또한 서로 달랐던 예배일을 반영한다. 기독교가 유대교 속으로 퍼져가던 초기에, 랍비들(즉, 바리새적 유대교가 주후 90년 경에 암니아에서 부흥함)은 회당의 모든 회원에게 강요한 “저주”서약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 대한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신자가 안식일에 있는 회당에서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일 예배를 계속드렸다. 약 2:2은 “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인의 예배장소를 나타내는데, 히 10:25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 “그 날” 이것은 재림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절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심판의 날과도 관련이 있다.

개역개정 10:26-31

²⁶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²⁷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²⁸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²⁹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³⁰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³¹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0:26 “우리가” 이것은 전형적인 조건절은 아니다. 아마도 **소유격 절대형**(*하마르타논톤 해문*)이 **전제절**(if 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저자는 문법적으로 자신을 의지적으로 죄짓는 그룹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2:3 에서와 같이 문학적 기교(편집자의 복수형)에 속한다. 일인칭의 사용이 그를 자동적으로 26-29 절에서 언급되는 무리와 동일 인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일인칭을 사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문학적 기교는 고전 13:1-3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짐짓 죄를 범한즉**” “의도적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강조를 나타낸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고압적으로” 범하는 죄에 해당할 것이다(참조, 5:2 의 설명). 이 **동사의 문법적 형태(현재 능동 분사 소유격 남성 일인칭 복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어떤 이들로 하여금 여기게 했었다. 만일 그들이 죄를 그친다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설명은 6 장 및 10:26-29 의 불길한 문맥과 들어맞지 않는다. 이것은 죽게 되느냐 살게 되느냐에 대한 경고로서, 한 번 배반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됨에 대한 경고이다! 계시의 밝은 빛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함은 가장 어두운 영적 밤을 가져온다.

▣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받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 능동 부정사**이다. 이 구는 해석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만일 그들이 진리(정판사와 쓰임)의 온전한 경험적 지식(에피그노스코)을 한 번 받았다면,’ 이 내용은 신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6:4-6 에 나타난 신학적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내용의 해석이 쉽거나 분명하거나 명백하지 않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내 자신이 가진 편견이 ‘아주 분명한 본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이다. 영감받은 강력한 이 본문을 어떤 신학적 교단적 입장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 본문의 핵심이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에 있지 않고, 믿기를 그만 둔 신자들에게 있다! 나는 (1) 구원이 인간의 행함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신학이나 (2)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교리적인 선언에 두는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구원받고, 또 잃어버렸다가 구원받고, 또 다시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음을 주장하는 신학’을 배격한다! 나는 지속적인 믿음과 삶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이 전혀 없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도 배격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석의한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 문학적 문맥, 문법적 면, 사용한 용어들, 장르,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고려한다. 내가 6:4-6 및 10:26-29 를 연구한 바에 의한다면,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편,

1. 역사적 배경, 이 책의 유대적 경향, 박해가 있음은 주요 주제를 이룬다
2. 문학적 문맥(참조, 5:11-6:12) 및 세 그룹의 사람들(참조, “우리를,” “너희,” “~한 자들”)은 회당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체하는 유대적 환경을 제시한다
3. 성막, 회당을 뜻하는 용어(참조, 10:25), 믿음에 대한 점호와 관련이 있는 수 많은 구약의 인용은 그들이 구약에 친숙한 자들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본문을 석의한 나로서는 R. E. 클레이즈 Jr.(*결코 쉽지 않은 구원*, Insight 출판사, 1966)가 제시한 역사적 재구성이 가장 설득력있다고 평가한다(그의 견해도 문제와 제한점을 가지지만).

히브리서는 독특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책이다. 이 말은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인가? 영감받은 이 저자(또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일서서의 저자)가 주는 경고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속하도록 격려한다(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124-125 쪽을 보라)! 그 답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easy believism), 두려움에 가득찬 율법주의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신 바 ‘완전하게 성취된 최종적인 구원’(참조, 10:14)은 인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함’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다.

10:27 “심판” 저자가 거듭 거듭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반대쪽 면도 강력한 진술을 이룬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참조, 9:27; 갈 6:7).

▣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은 사 26:11 을 암시한다. 불은 종종 거룩함이나 정결케 함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이시다; 그의 창조세계는 윤리적 실재를 이룬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 자기 자신을 부숴뜨릴 뿐이다.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스후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스후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스후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벴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에서 사용한 다른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10:28

NASB

“모세의 법을 폐한 누구라도”

NKJV

“모세의 법을 거부한 누구라도”

NRSV

“모세의 법을 범한 누구라도”

TEV

“모세의 법을 불순종한 누구라도”

NJB

“모세의 법을 존중치 않은 누구라도”

이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함을 뜻하는 강한 의미를 내포한다. 엘링워스 및 니다는 *히브리서의 핸드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강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언약 전체를 깨뜨리는 죄를 가리킨다(겔 22:26). 예를 들면, 우상숭배(신 17:2-7), 거짓된 예언(신 18:20), 신성모독(레 24:13-16)이 이에 해당한다”(236 쪽).

▣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에서의 사형은 항상 두 증인을 요구했다(참조, 신 17:6; 19:15). 불순종에는 결과가 다르다!

10:29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것은 더 작은 것(모세의 언약)에서 출발하여 더 큰 것(예수의 언약)에 이르는 논리적 접근이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다.

▣ “깃뵈고” 이 회화적 표현은 경멸히 여김을 나타낸다(참조, 6:6).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완료된 행위를 의미한다.

▣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뜻한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 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예수님과 관련된 용법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장; 시 2 편, 89 편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종말론적 왕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낸다(예수와 복음서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인의 두 묵시적 저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 호칭을 나타낸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37,52; 14:9 과 예녹 1 서 105:2).

이 호칭이 예수께 대해 사용될 때 그것의 신약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동정녀) 출생(참조, 마 1:23; 눅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눅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13; 눅 4:1-13.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귀신들(참조, 막 1:23-25; 눅 4:31-37,41; 막 3:11-12; 5:7)
 - ㄴ. 불신자들(참조, 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마 14:33; 16:16
 - ㄴ. 요 1:34,49; 6:69; 11:27
7. 예수님 자신의 확인
 - ㄱ. 마 11:25-27
 -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ㄱ.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심

- 1) 막 14:36
- 2) 롬 8:15
- 3) 갈 4:6

ㄴ. 자신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 및 그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를 취하여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교도적 배경을 인하여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여기고” 이것은 사실을 숙고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옴을 뜻한다.

▣ “부정한 것으로” 이것은 어떤 것이 예식상 부정하고, 주어진 목적에 적합지 않음을 가리킨다.

▣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이 구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동사(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이 새 언약을 처음에 거부함을 가리키는가 혹은 새 언약에서 돌아섬을 가리키는가? 앞에 있는 구의 부정과거 분사들 및 뒤에 나오는 구의 부정과거 수동 분사는 ‘처음에 거부함’을 가리킨다.

이 구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거룩하게 된”이 사용된 히브리서의 각 본문이 신자들을 가리키는데에 있다(참조, 2:11; 9:13; 10:10,14; 13:12). 나는 문제의 핵심이 언약을 지킴에 있다고 본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하여 한 언약을 주셨다. 구원을 거저 받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인간의 자유의지), 그 일은 단지 감정적인 응답이나(참조, 마 13:20-22)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가 아니다(참조, 요일 2:19). 믿는 것이 핵심이다. 믿는 자/믿음을 가진 자/신뢰하는 자(*피스투오*를 번역한 모든 종류의 단어)가 구원을 받으며 확신을 갖는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중적 경고는 (1) 복음을 받아들이고 (2)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에 실패한다면—심판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믿기를 중단한다면—심판을 받는다!

▣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그는 죄를 확신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침례(세례)를 주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신자인 우리 안에 이루신다(참조, 요 16:8-11). 성령께서 찾아가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을 불신자들이 거부할 때에, 성령님은 모욕을 받으시며 격노하신다.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는 명백한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어떤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서론에서 ‘수신자들’을 보라).

10:30 “원수 갚는 것이” 이것은 70 인역 신 32:35a 및 36a의 인용이다. 이것은 분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이들’을 정의로써 엄격하게 다루심을 뜻한다.

▣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70 인역 신 32:36a의 또 다른 인용이다. 히브리 본문에는 “심판”대신에 “정당성을 입증하다”로 되어 있다.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이 구가 암시하는가? 대개의 경우 구약 본문의 한 면을 엄두에 두고 인용한다. 아마도 이 인용문의 핵심은 ‘원래의 문맥에서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심”에 있을 것이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거부하셨음에 기초하여, 저자가 이 책 전체에 걸쳐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다.

10: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구(참조, 3:12)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반영한다(참조, 출 3:14). 이 이름은 “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참조, 마 16:16). 2:7의 특별주제를 보라. 불신앙은 영원한 심판을 거둔다!

개역개정 10:32-39

³²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³³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³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³⁵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³⁶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³⁷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³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³⁹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32 “전날에 . . . 을 생각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으로서, 5:12을 가리킬 것이다.

▣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6:4에 있는 믿지않는 그룹에 대해 사용되었다. 나는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1. 믿는 친구들의 삶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유대인들
2. 회당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

32-36절에 나오는 “너희”는 26-31절과 대조를 이룬다(6:9-12도 6:4-8과 대조를 이룬다).

▣ “견디어 낸 것”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경기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12:1,2,3,7).

▣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것은 아마도 회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난 박해를 가리킬 것이다. 그 이유는 로마제국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단은 그들이 박해받는 자들을 도왔고, 그 결과 비난을 어느 정도 받았음을 시사한다(참조, 33-34절; 6:10).

10:34 “갇힌 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갇혔는데, 그들은 이 서신의 수신자가 아니다. 신자였지만 교회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자들이 수신자다. 이 수신자들은 여전히 회당에 참석하고 있던 유대 신자였음을 이 본문이 지지한다(서론에서 ‘수신자’를 보라).

KJV 역에서는 “내 속박에”라는 구가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바울의 저작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여러 가지 사본적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1) “속박에”(P¹³, A, D*, 벌게이트, 페쉬타역) (2) “속박 위에”(P⁴⁶, Ψ, 오리겐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 (3) “내 속박 위에”(x, D², K, L, 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

▣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및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참조, 9:15; 11:16; 13:14; 마 5:12; 눅 6:22-23; 롬 5:3; 8:17).

▣ “더 낮고” 7:7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0:35-36 이 두 절은 믿는 자들이 가진 필요를 제시한다: (1) 그들의 확신을 내버리지 말 것(참조, 3:6; 4:16; 10:19) (2) 견딜 것(참조, 12:1-3). 여러 면에서 이것은 계 2-3 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비슷하다(참조, 계 2:3,5,7,10,11,13,16,17,19,25,26; 3:2,3,5,10,11,12,20). 참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참조, 요일 2:19).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약속을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4:14의 특별주제를 보라.

성도의 견인은 ‘분투하는 신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믿음의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오늘날 서구 교회의 대중’에 관련된 문제이다. 쉽게 믿도록 이끄는 주의(easy believism)와는 ‘성도의 안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더불어 기껏해야 갓난 아기 기독교인으로 심한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잃어버려진 사람들’로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운다! 물질주의적, 재물지향적, 퇴폐적인 오늘날의 서구 문화에서 ‘제자도 및 근본적인 거룩함에의 부르심’이 실종되어 버렸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성장’ 대신에 어떤 산물(‘자기 중심적 삶을 한껏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표’ 혹은 ‘마음껏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화재보험 증서’)로 구원이 바뀌어 버렸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일(산물) 뿐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은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라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라 도우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 성도의 안전은 ‘섬기는 삶과 제자도’의 부산물에 속한다.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성경의 교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인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쪽을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의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응답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계속적인 노력이 이에 필요한가?

인내의 주제에 대하여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 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17,20; 3:5,12,21)
 - ㄴ.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절)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피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2. 하워드 마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십, 1969
3. 로버트 쉥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 곧 (1) 열매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게 하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일에 대해 말한다.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못 취하여 일부 국한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이 문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역사상 어거스틴 대 펠리기우스, 칼빈 대 알미니우스(반-펠라기우스) 사이에 신학적 논란이 있었다. 논쟁의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과 열매맺음을 위해 인내할 필요가 있는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 지지하는 성경 본문(요 10:27-30; 롬 8:31-39; 요일 5:13,18; 뵤전 1:3-5) 및 엡 2:5,8 에 있는 **완료 수동 분사** 같은 **동사시제**를 내세웠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붙들라,” “건너라,” 또는 “계속하라”라는 경고를 주는 성경 본문을 앞세웠다(마 10:22; 24:9-13; 막 13:13; 요 15:4-6; 고전 15:2; 갈 6:9; 계 7:7,11,17,26; 3:5,12,21; 21:7).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히 6 장과 10 장을 배교에 대한 경고로서 사용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 13 장과 막 4 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요 8:31-59 도 그러하다. 칼빈주의자들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완료 시제 동사**가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고전 1:18; 15:2; 고후 2:15 과 같은 **현재 시제**로 된 본문을 인용한다.

이것은 신학적 체계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목적으로 오용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대개의 경우 ‘어떤 신학적 체계의 틀이 되는 중요 권리나 중요 본문’은 그것을 통해 다른 본문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어떤 자료에서 온 틀일지라도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논리에서 온 것이다. 성경은 동양의 책이다. 이것은 긴장 곧 역설로 보이는 짝으로 가득한 진리를 제시한다. 기독교인들은 두 쪽을 다 받아들여야 하며, 그 긴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신약은 신자에게 그가 안전함과 또 그에게 계속적인 믿음과 경건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한다. 기독교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 있은 후에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이 뒤따르는 응답이 있기를 요구한다. 구원은 어떤 산물(천국행 표나 화재보험 증서)가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결단이요 제자의 삶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모든 **동사 시제**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부정과거 (완료된 행위),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딤텔 3:5

완료 (완료된 행위가 계속적인 결과와 함께 있음), 엡 2:5,8

현재 (계속적 행위), 고전 1:18; 15:2; 고후 2:15

미래 (미래의 사건 혹은 어떤 사건), 롬 5:8,10; 10:9; 고전 3:15; 빌 1:28; 살전 5:8-9; 히 1:14; 9:28

10:36 이 절은 만일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다!

▣ “하나님의 뜻” 13: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에 따른 약속들을 의미한다(즉, 9:15)!

10:37-38 이것은 70 인역 합 2:3-4 의 인용이다. 하지만 마지막 두 절이 강조를 위해 뒤바뀐 순서로 제시된다.

▣ “오실 이가” 히브리 맛소라 본문에서는 “그것”으로 되어있는데, 헬라어 사본인 70 인역에서는 사람 즉 메시아를 나타낸다.

10:38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가. 개인과 공동체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ㄱ. *칼* 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 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1) 사람, 사 8:2; 53:1; 렘 40:14

(2) 물건, 사 22:23

(3) 하나님, 신 7:9,12; 사 49:7; 렘 42:5

ㄷ. *히팔* 형 - 굳게 서다, 믿다, 신뢰하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 창 15:6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다, 출 4:31; 14:31(신 1:32 에 반대의 내용이 나옴)

(3) 야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 출 19:9; 시 106:12,24

(4)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사 7:9

(5) 누구든지 그것/그를 믿는 자는, 사 28:16

(6)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믿다, 사 43:10-12

2. 명사(남성형) - 신실함(즉, 신 32:20; 사 25:1; 26:2)
3. 부사 - 진실로, 참으로, 내가 동의하여, 그렇게 되기를(참조, 출 27:15-26; 왕상 1:36; 대상 16:36; 사 65:16; 렘 11:5; 28:6). 이 용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의 예식적 용법을 이룬다.

나. *에펠*(BDB 54) 여성형 명사, 단단함, 신실함, 진리

1. 사람, 사 10:20; 42:3; 48:1
2. 하나님, 출 34:6; 시 117:2; 사 38:18,19; 61:8
3. 진리, 신 32:4; 왕상 22:16; 시 33:4; 98:3; 100:5; 119:30; 렘 9:4; 슥 8:16

다. *에무나*(BDB 53), 굳음, 견실함, 충성됨

1. 손, 출 17:12
2. 시간, 사 33:6
3. 인간, 렘 5:3; 7:28; 9:2
4. 하나님, 시 40:11; 88:12; 89:2,3,6,9; 119:138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나. 그는 *아판*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1. 창 15:6 - 아브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창 12 장)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가져 왔다(창 12-22 장). 바울은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에서 이 점을 암시한다.
2. 사 28:16 - 믿는(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견고히 머릿돌로 세우신 이를)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결코 보지 않는다
 - ㄱ. 롬 9:33, “부끄러움을 당한다” 또는 “실망한다”
 - ㄴ. 롬 10:11, 위의 내용과 같음
3. 합 2:4 -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렘 7:28). 바울은 이 본문을 롬 1:17 과 갈 3:11 에서 사용한다(또한 히 10:38 의 설명을 보라).

IV. 베드로가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베드로는 단어를 합성하고 있다

1. 사 8:14 - 뱀전 2:8(걸려 넘어지는 돌)
2. 사 28:16 - 뱀전 2:6(모퉁이돌)
3. 시 111:22 - 뱀전 2:7(건축가들이 버린 돌)

나. 그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독특한 표현인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을 다음에서 취하였다

1. 신 10:15; 사 43:21
2. 사 61:6; 66:21
3. 출 19:6; 신 7:6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교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V. 요한이 사용한 구약의 개념

가. 이 단어의 어원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투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요 8:31-59 과 행 8:13,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초기에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31-32).

나.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문이다
 - ㄱ. 그의 이름 안에(요 1:12; 2:23; 3:18; 요일 5:13)
 - ㄴ. 그 안에(요 2:11; 3:15,18; 4:39; 6:40; 7:5,31,39,48; 8:30; 9:36; 10:42; 11:45,48; 17:37,42; 마 18:6; 행 10:43; 빌 1:29; 벧전 1:8)
 - ㄷ. 내 안에(요 6:35; 7:38; 11:25,26; 12:44,46; 14:1,12; 16:9; 17:20)
 - ㄹ. 아들 안에(요 3:36; 9:35; 요일 5:10)
 - ㅁ.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ㅂ. 빛 안에(요 12:36)
 - ㅅ. 하나님 안에(요 14:1)
2. *엔*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3. *에피*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벧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티*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였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성경적인 믿음은 다음을 뜻한다

1. 개인적 관계(최초의 믿음)
2. 성경의 진리를 확인함(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3. 그 진리에 대한 적합한 순종(매일의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천국행 표나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참조, 창 1:26-27)과 창조에 대한 목적이다. “친밀함”이 핵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지위가 아니라 교제를 바라신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녀들이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즉, 기록함, 참조, 레 19:2; 마 5:48; 벰전 1:15-16). 타락(참조, 창 3 장)은 적합하게 응답해야 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참조, 겔 36:27-38). 새 마음과 새 영은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세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고(히브리어와 헬라이어적 의미에서) 또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믿음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에 있어서 인간의 신실함은 그 결과이지(신약) 그 기초가 아니다(구약).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 믿지 않던 자들이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 “나의” 이 인칭 대명사의 **선행사**와 관련하여 헬라이어 사본에 혼동이 있다. 이 단어는 “의” 혹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맛소라 본문과 770 인역에 모호성을 사용하여 (1) 메시아께서 오심과 (2) 신자들이 신실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고대 헬라이어 대문자체 사본인 A 와 C 에서는 “나의”를 ‘의’와 연결시켜 제시한다. 70 인역, 페쉬타, D*에서는 “나의”를 믿음과 연결시킨다. P¹³, D^c, H^c, K, P 와 공인성경에서는 “나의”를 생략하고 있다(바울이 합 2:4 를 롬 1:17; 갈 3:11 에서 인용할 때에도 이 단어를 생략함).

이 절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만일”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0:39 자신의 독자들이 인내할 것에 대해 저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참조, 6:9-12)!

▣ “뒤로 물러가면” 이것은 70 인역의 합 2:4 에 대한 암시이다—“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끝까지 신실해야 함’을 중요하게 다룬다. 가장 커다란 위험은 “뒤로 물러남”이다.

이 절에서 해석을 위한 질문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누구를 가르키는가 이다.

1. 하박국 당시의 이스라엘
2. 히 6:1-12 에 있는 두 그룹,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그룹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제시된 복음의 증거에서 뒤로 물러가 멸망을 향해 감
3. 신실함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한 믿는 자 모두

이 책 전체의 문맥 및 6:9-12 를 고려할 때 2 항의 설명이 적합하다

▣ “멸망할” 이 용어는 종종 영생을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해 사용되었다(참조, 마 7:13; 빌 1:28; 3:19; 살후 2:3; 딤펴전 6:9; 벰후 2:1,3; 3:7). 이것은 불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멸망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생명이 잃어버려짐을 가리킨다. 같은 종류의 은유적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다. 지옥과 관련된 신비와 고통은 지옥의 영원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단 12:2; 마 25:46).



NASB
NKJV
NRSV
TEV
NJB

“그러나 영혼을 보존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러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의”

“그러나 믿음을 가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

“대신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뒤로 물러남”의 반대는 신실함이다. 하박국에서 인용한 이 본문을 사용하여 바울은 ‘행위와 상관없이 가져야 할 최초의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참조, 롬 1:17; 갈 3:11). 한편,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이 진술은 11 장에 있는 바 신실함에 대한 점호를 위한 단계를 준비한다. 이러한 점호는 믿음에 종종 박해(심지어 죽음)가 따랐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구약의 신자들이 비록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참조, 32-33 절) 계속하여 믿었음을 강조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가진 그의 독자들이 끝까지 계속하여 믿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주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어떤 것이며 언제 이루어 지는가?
3. 신약의 용어인 “온전한”(τέλος)을 정의하라.
4. 속죄일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구약의 제사가 10:8 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
5. 왜 우리의 저자는 예수님과 성령님께 대한 것으로 구약의 본문을 제시하는가?
6.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 지는 일인가(10 절) 아니면 하나의 과정인가(14 절)?
7. 왜 10:18 이 대단히 중요한가?
8.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 우리가 삶에서 격려를 받는 실제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열거해 보라.
9. 26-29 절은 배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인가?
10.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서로 모이기를”이 왜 중요한 내용이었는가?
11.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받으시는가? (참조, 32-36 절)

히브리서 1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영웅의 점호	믿음	우리 선조들의 모범적 믿음
11:1-2	11:1-3	11:1-3	11:1-2	11:1-2
11:3	역사의 여명에 있는 믿음		11:3	11:3
11:4-7	11:4-7	11:4-7	11:4 11:5-6	11:4 11:5-6
	신실한 아브라함		11:7	11:7
11:8-12	11:8-12	11:8-12	11:8-10	11:8-10
	하늘에 있는 소망		11:11-12	11:11-12
11:13-16	11:13-16	11:13-16	11:13-16	11:13-16
	족장들의 믿음			
11:17-22	11:17-22	11:17-22	11:17-19 11:20 11:21	11:17-19 11:20-22
	모세의 믿음		11:22	
11:23-31	11:23-29	11:23-28	11:23 11:24-26 11:27-28	11:23-29
	믿음으로 그들이 극복함	11:29-31	11:29	
	11:30-40		11:30-31	11:30-31
11:32-38		11:32-38	11:32-35a 11:35b-38	11:32-40
11:39-40		11:39-40	11:39-40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11 장은 구약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했던’ 여러 사람들을 본으로 제시한다(그 반대되는 예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온다). 이 장은 이 서신의 원 독자 및 각 세대에 속한 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에 신실할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다(참조, 10:32-39).
- 나. 이 장은 이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믿음의 고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옛 언약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한 것임을 주목하라. 끝까지 신실함이 처음에 참된 시작을 하였음을 입증한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계속하여 믿고, 또 믿음을 갖고 죽는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자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 뿐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신실한 믿음의 결론(마지막)’에 비추어 그들의 믿음을 평가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1:1-7

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²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³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⁵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⁷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1:1 “**믿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체에 있어 믿음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이 단어가 24 회 사용되었다. 구약의 주된 관점은 “신실함”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이다. 이것은 배교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믿음” (*피스티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되었다: “믿음,” “신앙,” “신뢰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및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열쇠이다.

■	
NASB, NRSV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NKJV	“바라는 것들의 실질이에요”
TEV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함이에요”
NJB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의 보증이에요”

“확신”을 뜻하는 이 헬라이어 용어(ἠποτασις)는 기본적으로 “~밑에 두다” 혹은 “~밑에 서다”를 의미하여, 어떤 것의 근원적인 기반이나 기초를 굳게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헬라의 철학서에서 ‘어떤 것을 분명히 제시함’을 의미했다. 이 단어는 실현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실재에 속하고 참인 것’을 가리킨다.

1. 히 1:3 에서 이것은 본질을 가리킨다
2. 히 3:14 에서 이것은 신자들이 하는 고백/신앙의 고백의 실재성을 가리킨다
3. 히 11:1 에서 이것은 복음의 약속을 가리킨다. 이 약속을 갖고 현재를 살지만, 이 약속은 장차 완성될 것이다

이 용어는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부동산 권리증서”를 뜻한다(참조, NJB). 이 문장에서는 성령을 “계약금(물)”으로서 사용한 바울의 용법을 가리킨다(참조, 고후 1:22; 5:5; 엡 1:4).

70 인역에서 사용한 이 헬라이어 단어의 용법은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토해렛을 번역한 것임을 시사한다(케임브리지 성경역사, 9 쪽).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 확신있는 기대를 가진 상태”(즉, 소망)를 뜻한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신약의 저자들이 70 인역의 번역을 사용하여 신약을 코이네 헬라이어로 기록한 것임을 기억하라.

어떤 이는 이 문맥의 가장 명확한 뜻을 10:38 에 있는 구약의 인용문(합 2:2-4)에서 찾는다. 11 장은 “뒤로 물러가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한다. 이 본문은 위험에 직면한 첫 수신자들이 행한 일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증거”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시험을 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이다. 1 절에 있는 두 구는 서로 평행을 이룬다(둘 다 현재 수동 분사임); 따라서, “확신”과 “증거”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신실한 자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것들의”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1) 하나님께서 현재 및 미래에 행하시는 일에 소망을 가졌고 (2)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약속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산 자들이었다(참조, 10:23). 그들의 환경이나 물질주의, 혹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세계관’이 그들의 매일의 삶에 내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물질적 실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보다 하위에 있다(참조, 3 절). 물질적 실재는 오감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실재가 아니기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참되고 영원한 실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참조, 27 절); 따라서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것을 붙들어야만 한다. 한편,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실재가 매우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기에, 이 실재는 그들이 가진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11:2	
NASB	“인정을 얻었느니라”
NKJV	“좋은 증거를 획득하였느니라”
NRSV	“인정을 받았느니라”
TEV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느니라”
NJB	“알려졌느니라”

이것은 롬 1:17; 갈 3:11 에서 바울이 사용한 “믿음”의 용법과 비슷하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삶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증거하였다(참조, 약 2:14-26).

11:3

NASB, NKJV, NRSV “세계들”

TEV, NIV “우주”

NJB “세대들”

이것은 현재의 물질 세계를 일컫기 위해 사용한 두 헬라어 용어(코스모스, 참조, 1:6 및 아이온, 이곳) 가운데 하나이다. “아이온”은 영적 시간과 절기를 뜻하는 용어로서 물질 세계 및 영적 세계를 포함한다(참조, 1:2; 6:5; 롬 12:2; 고전 1:20; 2:6,8; 3:18; 고후 4:4; 엡 1:21; 6:12). 1:2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rhēma)라는 헬라어로서, 말로써 하신 말씀을 나타낸다. 이것은 따라서 ‘명하신 말씀을 뜻하는’ 피알(fiat)으로써 창조하심을 가리킨다(참조, 창 1:3,6,9,14, 20,24; 시 33:6,9). 히 1:2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성부께서 하신 창조의 대리자였음을 알게 된다(참조, 요 1:1,10; 고전 8:6; 골 1:16).

이 믿음의 확증은 신자들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질 세계관을 이루었다. 이 말은 과학적인 연구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를 믿음의 관점 안에 둬를 뜻한다. 신자들은 창조된 세계의 질서(자연계시)에 있는 기작을 발견하는 과학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 궁극적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주장한다(존 L. 왈튼, *창세기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다.

▣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를 확증하려는 본문이 아니다. 단지 1 절에 있는 바 실제 대 비실재를 대조하기 위한 실례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신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이것은 신조에 따른 신학이라기 보다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나타낸다.

11:4 “아벨” 그는 아담과 하와의 둘 째 아들이었는데,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참조, 창 4:3 이하).

▣ “더 나은 제사” 그러한 차이를 가져 온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떠한 자세(믿음)로 드렸는가에 기인한다. 이 본문은 피를 드린 제물이 더 우월함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 없다.

▣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은 창 4:10; 히 12:24에 기록되었다. 문맥상 이것은 ‘믿음을 인해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됨’을 확증한다. 독자들이 박해를 인해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반드시 아벨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

11:5 “에녹” 그는 타락 이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었다(참조, 창 5:24).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구약이 확인해 준다.

▣ “ 옮겨졌으니 ” 이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를 뜻한다. 이것은 엘리야의 경우처럼 “부활”이 아니라 “옮겨짐”을 뜻한다(참조, 왕하 2:11). 성경에는 이러한 차이를 서로 분명히 구분하여 나타낸다

1.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갖게 됨(소생, resuscitation)
2.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옮겨짐(옮겨짐, translation)
3. 예수께서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지심(부활, resurrection)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이것은 70 인역을 따른 내용이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로 되어 있다.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이 문학적 단위에서 핵심을 이루는 진술이다. 이것은 단순히 최초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을 뜻한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신실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 또 약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구원과 제자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창조, 계시)을 믿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현재(박해, 고난, 죽음)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구원, 천국)을 믿는 것이다.

6:6 에 있는 “불가능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반드시 ... 믿어야 할지니라**”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에서 세 가지로 번역되었다: “믿음”(faith), “믿다”(believe), “신뢰하다”(trust). 이 용어의 핵심은 어떤 사실의 인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심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곧,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에 있다! 이것은 어떠한 확인이라기 보다 ‘삶의 양식’을 말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이것이 묶여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를 뜻한다. 믿음이 필요하다!

▣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것은 ‘최초에 믿음으로 하는 응답’과 ‘계속적인 믿음의 응답’ 두 가지를 다 가리킨다.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에 믿음의 패턴이 나타난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행했다.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 그들의 행동은 순전히 빈 말이 아니었다! 짐승들이 들어갈 그렇게 큰 방주를 물가에서 아주 떨어진 곳에서 노아가 짓는 동안 그가 받았을 멸시와 천대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 “**방주**” 이것은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니라, 통나무처럼 떠 있기 위한 목적의 배였다. 이것은 언약궤같은 “궤”를 뜻하는 단어였다.

▣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정죄하였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그가 가진 믿음의 행동을 통해 (2) 그의 설교를 통해(참조, 벵후 2:5).

▣ “**의의 상속자**” 창 6-8 장에서 노아는 “의로운” 자로 불린 최초의 사람이다(참조, 벵후 2:5). 이것은 노아가 죄없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가진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여 걸었음을 뜻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처럼(참조, 창 15:6), 노아의 믿음도 그러했다. “의”에 대한 단어연구를 위해서는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1:8-12

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⁹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¹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¹¹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¹² 이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8 “아브라함은 . . . 순종하여”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종류의 짧은 글은 이 사람들의 삶을 이상화시켜 제시한다. 구약은 고대 문학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잘한 것과 잘못된 것 양쪽을 다 기록한 독특한 책이다.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가진 인물이었다.

1. 두려움

- ㄱ.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기와 아버지와 롯과 함께 떠났다
- 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는 사라의 종을 통해 아기를 낳으려 했고, 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사라를 이집트 왕과 블레셋 왕에게 넘겨 버렸다

2. 믿음

- ㄱ. 그가 정말로 우르를 떠났다
- 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실 것임을 그가 정말로 믿었다
- ㄷ. 그는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참조, 창 22 장)

하나님께서 “아주 빼어난 성도”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지만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며’ 또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11:9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것은 “거류하다”로서 그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뜻한다(참조, 13 절).

11:10 “그가 . . . 을 바랐음이라”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그는 계속 바라보았다!

▣ “성” 이것은 에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시 거하실 장소에 대한 성경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참조, 11:16; 12:22; 13:14; 요 14:2; 갈 4:26; 계 3:12; 21:2).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살면서 바라본 것은 현재의 실재가 아니라 약속된 실재였다. 믿음은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확실하다”라고 말한다; 믿음은 “내가 보는 것이 실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재이다”라고 말한다!

특별주제: 이사야서의 두 “도시”

가. 24-27 장은 한 문학적 단락으로서 사 13-23 장에 나오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 예언의 결론 부분에 위치한다.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영원하며 모든 이를 향한 것이며 구속의 계획을 갖고 있다!

나. 이 단락 전체는 두 도시에 대한 내용이다.

- 1. 범죄한 가계인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 시도했다(즉, 창 10-11 장).
- 2. 시온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으로서(즉,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분께 나아와 그를 예배하는 장소였다(참조, 2:2-4; 19:18-25; 히 11:10; 12:22; 13:14; 계 21:1-2).

다. 도시는 민족/국가를 대표한다.

인간의 도시

- 1:7,8, 유대의 성읍을 불사름
- 1:21,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 6:11, 유다가 황폐하게 됨
- 14:17,21,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됨
- 14:31, 블레셋의 성읍
- 17:1-3,9, 시리아의 성읍이 파괴됨
- 19:2, 이집트의 성읍이 서로를 멸망시킴

하나님의 도시

1:26,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

19:18-22,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

19:23-25,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됨

22:2,9, 즐거워하던 성 예루살렘이 망한다

23, 두로가 망함

24:1-25:5, 성읍들이 다 망함

25:10-12, 모압과 그 궁전, 성벽이 있는
도시들이 짓밟힘

25:6-9, 하나님의 산(즉, 예루살렘)에서의
잔치

26: 5, 난공불락의 성읍, 아마도 모압

26:1; 강력한 도시, 예루살렘이 회복됨

27:10, 성벽이 있는 도시들이 망함

29:1, “아리엘”(예루살렘)

33:2,19, 즐거워하는 성읍(예루살렘)

48:2, 이름만 거룩한 도시

45:13, 내 도시(참조, 44:23)

52:1-6, 거룩한 성읍

60:14, 야웨의 성읍

62:12, 버리지 아니한 성읍

66:6, 환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림

11:11 “사라” 어떤 고대 헬라어 사본(P⁴⁶, D)에는 “아기를 못낳는”이 추가되어 있다. 족장의 아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임신할 수 없었음이 특이하다(레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장자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을 주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가졌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주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웃었다(참조, 창 18:12).

11:12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였다(참조, 창 15:5; 22:17; 32:12). 그들의 아내(레아를 제외하고는)가 하나같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음을 기억하라.

▣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행했다. 이구는 10:23 의 내용과 비슷하다(참조, 6:17-18). 독자들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개역개정 11:13-16

¹³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¹⁴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¹⁵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¹⁶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11 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 가진 믿음을 막 “뒤로 물러나려는” 믿는 유대인 수신자들의 경우와 대조시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다(참조, 10:38; 또한 벨후 2:20-22).

▣ “보고 환영하며 ... 증언하였으니” 세 설명적인 구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

▣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문자적으로, 이방인 객은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참조, 70 인역의 창 23:4; 시 39:12; 빌 3:20; 뱀전 2:11). 물질적 실재가 참이 아니라 영원한 실재가 참이다. 이 세상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11:1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로 종종 불린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11:16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하늘에 있는 도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에서 보듯이 참된 실재는 영적이다(참조, 11:10).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참조, 2:11; 11:2,39; 13:14). “나라”와 “성”(10 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학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개역개정 11:17-22

¹⁷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¹⁸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¹⁹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²⁰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²¹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²²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창 22:1 을 마 6:13 및 약 1:13-14 와 비교해 본다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한편, 헬라어에 “시험”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나타낸다. 한 단어는 멸망시킬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이고(페이라조), 다른 단어는 인정하고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나타낸다(도키마조). 2: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정도는 그가 13 년을 기다린 후에 받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우고자 함에서 드러난다(참조, 약 2:21).

이삭에 대해 쓰인 모노게네스(“독생자”)라는 단어는 “독자”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구는 “약속의 아들,” “특별한 아들”을 뜻함이 분명하다. 이것은 요 3:16 의 의미이기도 하다.

11:18 이것은 창 21:12 의 인용으로써 시험 이전에 주신 말씀이다!

11:19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과 함께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참조, 창 22:5). 이 본문은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 히브리서는 그가 소성케 되는 일을 기대했던 것으로 제시한다.

▣ “비유컨대” 저자는 구약을 ‘현재의 실재’에 대한 모형이나 그림자로서 사용한다(참조, 9:9; 10:1; 11:19). 여기서 이 모형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실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11:20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 27:27 이하에 나온다. 야곱이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 48:14 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 49 장에 나온다. 일단 축복을 한 이후에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이것은 저자가 선택적으로 구약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역대기서도 그렇다). 그는 긍정적인 면만을 언급하고 있다.

11:21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것은 70 인역 출 47:31 의 인용이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침대의 머리에서 절했다”로 되어 있다. “침대”와 “막대”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mth*), 나중에 가서야 각각 다른 모음부호로 나타내게 되었다. 구약의 문맥에서 볼 때, 야곱은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창 37:5-11). 따라서 야곱은 요셉이 가진 공적 권위를 예언을 통해 인식하였거나 혹은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임을 인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자”였다.

11:22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후에 있는 출애굽 때에, 그들이 그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와 약속의 땅에 묻었다(참조, 창 50:24-25; 출 13:19; 수 24:32).

개역개정 11:23-29

²³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²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²⁵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²⁶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²⁷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²⁸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²⁹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11:23 “그 부모가” 70 인역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맛소라 본문에서는 “어머니”로 되어 있다.

▣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는 신체적으로 아름다운 아이였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여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강조점을 놓친다. 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였다.

▣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을 의식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참조, 27 절).

11:24 “바로 의 공주의 아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집트인의 호칭으로서 권위를 상징하였다.

11:25-26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혹과 또 다시 관련을 지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현재의 상황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 및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1:27 “애굽을 떠나” 이것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일을 가리킨다(참조, 출 2:14-15). 저자는 또 다시 모세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웨의 거룩하심을 인해 그를 보는 일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믿었다(참조, 창 16:13; 32:30; 출 3:6; 33:17-23; 삿 6:22-23; 13:22; 왕상 19:11-13; 행 7:32).

11:28 이것은 출 12 장에 대한 암시이다. 이 마지막 재앙은 고센 땅을 포함하여 온 이집트에 영향을 미쳤다.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행해야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일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 “장자”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떨하는 자” 이것은 죽음의 천사를 가리킨다(참조, 70 인역의 출 12:23; 삼하 24:16-17).

11:29 이것은 출 14:21 이하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다.

개역개정 11:30-31

³⁰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³¹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11:30 “성이 무너졌으며” (참조, 수 6:20; 고후 10:4)

11:31 “기생 라합” 이 가나안 여인은 믿는 자가 되었다(약 2:25). 그녀의 이름은 마 1:5 에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랐다.

개역개정 11:32-38

³²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³³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³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³⁵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³⁶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³⁷ 돌로 치는 것과 툽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³⁸(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11:32 “기드온” (참조, 수 6-8 장)

▣ “바락” (참조, 수 4-5 장)

▣ “입다” (참조, 수 11-12 장)

▣ “다윗” (참조, 삼상 16:1)

▣ “사무엘” (참조, 삼상 1:20)

11:33 “의” 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것은 삼손, 다윗, 다니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건을 가리킬 것이다.

11: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에서 구출을 받는 것에 관한 이 내용은 특별히 단 3 장의 사건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구출이 고전 13:3 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과 관련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전 13:3 과 관련하여 헬라어 사본에 문제가 제기된다. 고대 헬라어 사본인 P⁴⁶, α , A, B 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카우케소마이)로 되어 있지만, C, D, F, G, K, L 사본에서는 “내가 불타야 할”(카우췌소마이)로 되어 있다. 처음 것이 (1) 더 나은 사본이며 (2) 바울이 자주 사용한 용어에 속한다.

▣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참조, 고후 12:9)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함이다(참조, 왕상 17:17-23; 왕하 4:31-37). 유일한 부활은 예수께서 영원한 몸을 가지신 경우 뿐이다.

▣ NASB, NKJV, NRSV “더 좋은 부활”
TEV, NJB “더 좋은 생명”

이것은 순교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일이며 승리임을 나타낸다.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회복함을 받지만(즉,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 처음 것도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믿음 곧, 끝까지 믿는 것에 대한 더욱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것은 영적 보상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의 여건(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 신자들은 담대히 믿음(야웨와 예수)에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승리는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야웨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신자들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있어서 반드시 신실해야 한다. “더 좋은”에 대하여는 7: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1:36 “조롱과 채찍질” 이것은 아마도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마카비 1 서 1:62-64; 7:34; 마카비 2 서 6:18-20; 7:1-42).

11:37 “돌로 치는 것과” 전통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했다. 스가랴로 불리는 한 제사장(구약의 스가랴서의 저자가 아님)이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대하 24:20-21; 눅 11:51 에 있다.

▣ “톱으로 켜는 것과” 전통(이사야의 승천기 5:1-14)은 므낫세의 명령에 따라 이사야를 빈 통나무에 넣은 후 톱으로 켜 돌로 자른 일에 대해 말한다.

▣ “시험과” 이것은 박해와 고문에 대한 여러가지 특별한 언급을 하는 가운데 제시한 보다 일반적인 진술로 여겨진다. 고대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에서는 이 구가 생략되어 있다. 이와 연결되는 구인 “그들이 돌로 침을 당했다”(에프리스췌산)가 “그들이 시험을 받았다(에페이라스췌산)와 매우 비슷하기에 ‘이 부분은 아마도 서기관들이 일찌기 본문에 삽입시킨 내용’이라고 본문비평가들은 추정한다. 헬라어 사본에 많은 변이가 나타난다(용어의 순서, 용어의 시제). 세계성서공회 헬라어 본문 제 4 판은 이 구를 생략하고 있다.

▣ “칼로 죽임을 당하고” (즉, 왕상 19:10,14; 렘 2:30; 26:23).

11:38 이것은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 잔혹한 역사에 대한 것이다. 왜 현재의 독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박해를 인하여 놀라야 하는가?

개역개정 11:39-40

³⁹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⁴⁰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39 “증거를 받았으나” 이것은 2 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참조, 2:11). 무서운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1:40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사회 경제적 층, 각 교육수준의 정도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참조, 갈 3:28; 골 3:11).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가져 오실 새 날을 바라보았다. 이 날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으며, 그리스도께서 동쪽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기다리는 소망이 되었다(참조, 요일 3:2).

▣ “더 좋은” 7: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온전함” 10:1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라.
2. 명하신 말씀(*fiat*)과 무에서의 창조(*ex nihilo*)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3.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하시는가(참조, 11:17 대 약 1:13-14)?
4. 박해받은 자들에 대한 특별한 영예가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는가?
5.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주께서 시키시는 훈련 12:1-3	믿음의 경주 12:1-2	권고와 경고 12:1-2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12:1-2	예수 그리스도의 본 12:1-4
12:4-11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 12:3-11	12:3-11	12:3-11	12:3-11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12:5-13
12:12-13	12:12-17	12:12-13	12:12-13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에 대한 경고 12:14-17		12:14-17	12:14-17	신실하지 않음에 처벌이 있다 12:14-17
12:18-24	영광스러운 무리 12:18-24	12:18-24	12:18-21	12:18-29
12:25-29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12:25-29	12:25-29	12:22-24 12:25-27 12:28-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12:1-2

¹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²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2:1 “이러므로” 1 절은 특별히 세 단어로 된 합성어(토크그램)로서 이곳 및 살전 4:8 에서만 사용되었다. 독자들은 앞에서 예로 든 신실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 “구름” “구름”은 헬라 문학에서 종종 무리를 일컫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참조, 헤로도투스 VIII, 109).

▣ “증인들” 이 용어는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법정에 있는 법적 증인
2. 같은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
3.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해 죽임(순교)을 당한 사람들
4. 11 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

11 장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절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가진 바 충성된 삶을 모본으로 삼아 이를 보고 따라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NASB 연구성경, 1798 쪽). 나는 이 절이 다음과 같이 종종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즉, 믿다가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신자들이 서로를 잘 알게 될 것이며 또 부활의 날에 교제로 연합될 것이지만, 성경은 ‘임종시 갖는 재연합’ 혹은 ‘죽은 자들이 땅 위에 사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엘링워스 및 니다는 *히브리서의 핸드북*(세계성서공회)에서 정반대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구약의 위인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그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어떻게 경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11.40)” (287 쪽).

▣ “(우리가 ~하자)” 이것은 가정법을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처음 동사형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가정법은 “우리가 경주하자”에 이르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자들이 신실했던 구약의 증인들의 삶에 비추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주목하라.

1.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자, 1 절
2.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자, 1 절
3.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1 절
4.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자, 2 절

▣ “벗어 버리고”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로서 “옷을 벗어 옆에 치우다”를 뜻한다(참조, 행 7:58). 이 문법적 형태는 개인의(즉, 중간태) 결정적(즉, 부정과거 시제) 결단을 나타낸다. 한편, 바울은 이것을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도덕적인 뜻을 나타내었다(참조, 롬 13:12; 엡 4:22,25; 골 3:8-9 및 “입다,” 엡 4:24; 골 3:10,12,14).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거저 받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참조, 빌 2:12-13). 우리가 달음박질 해야 할 경주가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증인의 역할이 있으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즉, 빌 3:12-14)!

■	
NASB	“모든 짐”
NKJV, NRSV	“모든 무게”
TEV	“길에 걸리적 거리는 모든 것”
NJB	“우리를 내리 누르는 모든 것”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지방” 혹은 “무게”이다. 헬라의 운동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임했다. 이 표현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1. 문자적으로는 몸의 지방
2. 운동을 위한 연습에서 사용하는 무게 추
3. 헬라 문학에서 은유적으로 자랑을 말함
4. 철학적으로는 “좋은 것”에 마음을 두어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함을 가리킴

■ “죄를” 이것은 (1) 죄된 속성 (2) 끊임없이 붙어다니는 죄 (3) 불신앙 혹은 (4) 이 독특한 문맥에서 제시하는 의미인 “뒤로 물러남”(참조, 10:38)을 뜻한다. 이 서신/책/설교는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 불신자들에 주시는 말씀이다.

■	
NASB	“우리를 쉽게 얹매는”
NKJV	“우리로 쉽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NRSV, NJB	“꼭 달라붙는”
TEV	“우리를 아주 단단히 잡고 놓지 않는”

고대 파피루스 사본인 P⁴⁶에서는 “쉽게 주의를 흘뜨리는”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자가 생명을 걸고 경주를 함에 있어서 그를 넘어뜨리는 모든 종류의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반복적인 죄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욕망이나, 여러 좋은 물건/일들의 제시일 수 있다—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은사를 받은 내용/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 “경주를 하며”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이것은 만일의 사태를 고려하면서 행하는 지속적인 행동을 뜻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는 네 가지 경고를 전체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낸다.

■ “인내로써” 이 장은 “견담”(명사, 참조, 10:32,36)과 관련된 랍비들의 언어유희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능동) 인내하며(수동) 견담”을 뜻한다. 2 절, 3 절, 7 절에는 동사가 나오고 1 절에는 명사가 나온다. 이것은 이 책의 주제인데, 특히 이 마지막 몇 장에서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참고 버텨라!

■ “경주” 이 체육용어는 아고나라는 헬라어로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agony”(극도의 고통)가 나왔다. 이 단어는 경기를 위해 정해진 코스를 종종 나타낸다.

■ “우리 앞에 당한” 이것은 현재 수동(디포) 분사이다. 기독교인의 삶이 종종 운동경기로 표현된다(참조, 고전 9:25; 빌 1:30; 딤후 2:5; 경기, 고전 9:24,26; 갈 2:2; 5:7; 빌 2:16; 격투, 고전 9:26; 딤후 1:18; 6:12; 딤후 4:7; 레슬링, 엡 6:12).

12:2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집중하여 바라봄”을 뜻한다. 우리가 면류관이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새 언약(복음)에 계속하여 집중함을 회화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 NASB “믿음의 저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 NKJV “우리 믿음의 저자요 또 완성하시는 이”
- NRSV “우리 믿음의 개척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 TEV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깊이있게 하시는 이”
- NJB “우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끄시며 또 이것을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이”

첫 단어인 알케오스는 2:10 에서 예수께서 구원의 저자이심을, 행 3:15 에서는 예수께서 생명의 왕자(저자)이심을, 행 5:31 에서는 예수께서 왕자(지도자)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두 번째 단어(텔레이오테스)는 “온전케하고 완전케 하시는 자”를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예수께서 다 완성하심을 가리킨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참조, 계 1:8) 및 처음과 나중(참조, 계 1:17; 2:8)이라는 칭호와 비슷하다. 이 저자는 “온전케 하심”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 여러 번 사용하였다(참조, 2:10; 5:9; 6:1; 7:11,19,28; 9:9; 10:1,14; 11:40; 이곳). 7: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믿음” 피스티스는 다음의 내용을 뜻할 수 있다

1.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개인적으로 가지는 친밀한 관계
2.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
3. 기독교의 교리(참조, 유다서 3,20 절)

기독교는 영접되어야 할 분을 말하며, 믿어야 할 분에 대한 진리(복음)이며, 그 분처럼 살아야 할 삶이다(즉, 그리스도를 닮는 삶).

▣ “기쁨을 위하여” 안타라는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때문에”나 “~을 인하여”라는 뜻을 가지나, “~대신에”도 의미할 수 있다. 그 첫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신 일(참조, 빌 2:5-11)을 말하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가지신 기쁨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사 53:10-12).

▣ “그 앞에 있는” 1 절에 있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싸움(경기)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하신 씨름’을 나타낸다. 이것은 저자가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주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에 큰 기쁨을 누리셨듯이, 그들도 경기를 다 마치면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 “십자가를”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신 21:23 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했다.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한다(참조, 갈 3:13).

▣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객관적 증거이다(참조, 요 3:16 및 롬 5:8). 이것은 강한 의미를 갖는 헬라어 단어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겸손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을 바라보셨다(참조, 사 53:10-12). 십자가가 쉬웠던 일이 아니며, 구속을 위해 쓴 값을 치르신 것도 아니었다!

▣ “앞으셨느니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 완료된 일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시 110:1 에 대한 계속되는 암시이다(참조, 1:3,13; 8:1; 10:12).

▣ “우편에”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능력” “권위” “뛰어남의 장소”를 뜻하는 성경의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행 2:33-36).

▣ “하나님 보좌” 타락한 인간은 영적 영역에 속한 영광과 위엄을 상상할 따름이다. 이것은 물질적 묘사로 나타낼 수 밖에 없다(황금으로 된 길, 진주 문, 유리 바다).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영원하시며 편재하신 분이시기에, 그 분께는 어떤 보좌도 너무나 작다(참조, 왕상 8:27). 3:11의 특별주제: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신인동형적 언어를 보라.

개역개정 12:3-11

³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⁴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⁵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⁶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⁷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⁸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⁹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¹⁰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¹¹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3 “생각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더하라”로서 어떤 것에 대한 주의깊은 분석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고대인들은 더하는 수자를 위쪽에 놓고 더해 갔으며 맨 위에 선을 그어 그 위에 전체의 합을 기록했다.

▣ “참으신 이를”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예수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셨듯이,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참조, 요일 3:16).

▣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단수형 대명사가 모든 현대 번역본에 나온다. 한편, 대다수의 고대 헬라어 사본과 역본과 교부들의 인용문은 복수형을 지지한다([1] *에이스 헤아우투스, ἑαυτοῦ, D** [2] *에이스 아우투스, P^{13,46}, ἑαυτοῦ, K²* [3] *에이스 헤아우톤, A, P, D^c, K, L*). 가장 특이하며, 가장 어려운 본문이 원래의 것으로 본문비평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즉, 부록 II를 보라), 여기에 있는 복수형은 이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주어가 명백히 예수를 뜻한다. 이러한 사본적 변이는 고대 서기관들의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서, 대다수의 파피루스 사본이 기록되기 이전인 첫 세기나 두 번째 세기에 생긴 변이임이 분명하다.

▣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운동과 관련을 가진 용어로서, 경주하는 자는 힘든 경주를 마친 후에 지쳐 쓰러짐을 뜻한다. 우리의 저자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비록 힘들지라도 계속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격려하고 있다. 이 경고의 내용은 15 절 및 25-29 절에 계속된다.

12:4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원래의 독자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죽기까지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참조, 10:32 이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들도 기꺼이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죽어야 한다.

▣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것은 1 절에서 사용된 단어의 경우처럼 운동과 관련을 가진 또 다른 용어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고통”(agony)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 전체 문맥에서 “죄”는 다음을 뜻한다

1.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와 관련이 있는 ‘불신앙의 죄’
2. 믿는 유대인들의 무리와 관련이 있는 ‘배교의 죄’ (“뒤로 물러감” 10:38)

12:5 “너희에게 권편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은 **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단어는 다음을 나타낸다

1. 완전히 망각함(즉, 시제에 대한 강조)
2. 일부러 망각함(즉, 태에 대한 강조)

▣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70 인역의 잠 3:11-12 의 인용이다. 두 단어가 모두 부정 **불변화사**와 사용된 **현재 명령**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 “주의 징계하심” 이 용어는 “어린이를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5-11 절에는 이 용어와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것은 가족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이다. 지상의 부모가 자기들의 자녀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를 훈련하신다(참조, 고전 11:32; 계 3:19).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것은 왜 신자들이 믿음을 인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참조, 마 5:10-12; 행 8:1b,4; 14:22; 살후 1:4-10).

▣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것은 70 인역의 잠 3:11-12 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 여러 번 “아들”로 불리셨는데, 구약에서는 “종”들로 불렸다. 이제 신약의 신자들이 “아들들”로 불려진다(참조, 7-8 절). 성부께서는 아들들을 여러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신다

1. 아버지가 목적인 바를 위해
2. 아들의 유익을 위해
3. 온 가족의 유익을 위해

12:7 “너희가 참음은”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 혹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헬라어에서는 같은 형태를 가진다). 5 절이 두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기에, 이것도 **명령**일 것이다. 이 단어는 “자원함으로 하는 견고한 인내”를 뜻한다(참조, 1,2,3 절; 10:32; 36). 이 시험은 더 강한 믿음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라는 이 주제는 신 8:5 및 호 11:1-4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이 동사는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서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가져 오”를 뜻하는 용어로서 종종 희생제물을 지칭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동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제사를 통해(의미상) 죄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나타낸다.

12: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훈련받아야 한다(**완료 능동 직설법**).

12:9 “영의 아버지께” 이것은 “영혼”의 기원과 하등 관련이 **없다**. 이 표현은 모든 생명의 참된 원천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들과 대조를 이루신다(참조, 9-10 절).

▣ “살려 하지” 성부께서 하시는 훈련은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

12:10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신자가 구원을 받을 때에 거룩하게 되고(신분상)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는다(2:1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모든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마 5:48; 롬 8:28-30; 고후 3:18; 7:1; 갈 4:19;

엡 4:13; 살전 3:13; 4:3,7; 벧전 1:15). 신자들은 기록함으로 예정받았다(참조, 엡 1:4). 이것은 훈련과 관련이 있는 문맥에서만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히 5:8; 롬 8:17).

12:11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며, 인정을 받은 것(믿음으로 인한 신분)에서 삶으로 나아간다(믿음의 삶, 참조, 롬 5:3-5; 약 1:2-4). “의”에 관한 단어 연구를 위해서는, 1:9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2:12-13

¹²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¹³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12 이것은 사 35:3에 대한 암시로서, 12장 전체에 걸쳐 다루는 내용의 배경을 이룬다. 성숙한 자는 약한 자(뒤로 물러서려는 자)들을 강하게 해야 한다. “강하게 함”은 문자적으로 “곧게하다”로서,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온다.

12: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것은 70 인역의 잠 4:26에 대한 암시이거나, 의를 가리키는 구약의 은유적 표현인 “곧은 길”을 사용한 잘 알려진 어떤 격언을 가리킨다.

▣ “어그러지지 않고” 이 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두 개의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참조, 왕상 18:21),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웨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림
2. 도로를 고쳐놓아 저는 자들이 떨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함을 뜻하는 헬라 문학의 표현(참조, M. R. 빈센트, *신약의 단어연구*, 1168 쪽)

▣ “고침을 받게 하라” 서로 격려하는 일은 회복을 가져온다(참조, 갈 6:1; 약 5:16).

개역개정 12:14-17

¹⁴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¹⁵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¹⁶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¹⁷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2:14-17 이것은 계속되는 경고의 내용이다(참조, 2:1-4; 3:7-4:11; 5:11-6:12; 10:19-39; 12:14-17).

12:14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문맥에서 이것은 다음을 뜻한다

1. 외적 박해
2. 친구들 사이의 불신앙(믿는 유대인과 함께 있는 유대인 불신자들이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음)
3. 속에 있는 의심(“뒤로 물러남”의 위험(참조, 10:38); 화평함에 대한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

“화평함”과 관련있는 여러 본문이 있다.

1. 시 34:14,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추구하라”
2. 막 9:50, “서로 화평하라”

3. 롬 12:18, “할 수 있다면(이것이 너희에게 달려 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라”
4. 고전 7:15, “만일 믿지 않는 이가 떠나면 그로 떠나게 하라. .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5. 딤후 2:22,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10 절과 관련을 깊게 가지며, 따라서 “훈련받음”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훈련시키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이 용어는 신분적(즉석의) 거룩함을 뜻하지 않고 경험적인(점진적인) 성화를 뜻한다. 복음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긴장이 가득한 두 개의 면으로 제시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완성되었고, 단번에 거저 받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직설법)이지만, 이것은 또한 믿음과 순종과 섬김과 예배의 삶이다(명령법). 많은 신자들은 어느 한 쪽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쪽을 강조한다(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칼빈 대 알미니우스). 신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관계는 회개와 믿음의 순간에 시작되지만, 이것은 또한 죽음의 순간이나 재림의 때 까지 나아가야 한다. 신실함, 의로움, 오래참음은 참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고 참된 증거가 된다.

성화에 대한 다음의 본문을 서로 비교하여 보라.

신분적(직설법)

행 20:32;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14; 13:12
 벰전 1:2

점진적(명령법)

롬 6:19
 고후 7:1
 엡 1:4; 2:10
 살전 3:13; 4:3-4,7; 5:23
 딤후 2:15
 딤후 2:21
 히 12:14
 벰전 1:15-16

▣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역설적인 내용이다: (1) 신자들이 어느 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참조, 욥 19:25-27; 시 17:15; 마 5:8; 요일 3:2; 계 22:4) (2) 신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다(참조, 출 33:20; 요 1:18; 딤후 6:16; 요일 4:12).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 곧 복음에 응답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 문맥에서는 “이해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일 것이다.

12:15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을 뜻한다. 이 단어가 4:1 에서는 “언지 못하다”를 나타내는데, 이 절에서는 전치사 “~멀리 떨어져”(απο)가 사용되어 “이전에 가진 어떤 것에서 떨어져 나감”(참조, 6:4-6; 10:23,38-39; 12:25)을 뜻하는 하나의 전치사 구이다. 배교는 이 문화적 상황에서 실제적인 문제였다. 3:12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또는, 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1) 믿는 유대인들은 “뒤로 물러남”의 위협에 처해있었고(15 절) (2)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회당에 있는 믿는 신자들의 삶과 증거를 인해 복음을 명확히 이해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다(25 절). 어느 이론이 맞는 것이든 간에, 명확한 진리는 구원이 어떤 산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점이다. 구원은 초기에 나타내는 응답 이상의 것이다. 경고의 내용이 심각하며 도전을 주며 실질적이다. 이 문맥에서는 “뒤로 물러날” 위협에 처한 신자들을 도우라는 말이다(참조, 10:38).

▣ “쓴 뿌리” 이것은 70 인역 신 29:18 의 암시일 것이다. 그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개인과 공동체)에게 우상숭배의 위협을 경고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오직 믿는 신실한 남은 자들만 바른 관계에 있었다. 신명기에서 “쓴 뿌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이 떠난 자들”과 평행을 이룬다.

▣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불평하는 사람 하나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태도가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가!

12:16 “살피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관찰함”(επισκοπος)을 뜻하는 현재 능동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용어는 목회자를 뜻하는 한 형태의 단어와 관련을 가진다(문자적으로는 주교, *επισκοπος*, 참조, 빌 1:1; 딤후 3:2; 딤후 1:7 및 예수께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한 벰전 2:25). 여기서 이 단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숙한 신자들로서 ‘다른 이를 돌보아야 하는 자’를 뜻할 수 있다. 성숙함으로서 배교를 극복해야 한다. 이 신자들은 성숙함을 따라서 행해야 할 절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참조, 5:11-14).

어떤 그리스도인도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참조, 고전 12:7). 기독교는 팀을 이루어 하는 경기이다! “성도”라는 단어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타난다(빌 4:21 이 유일한 예외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는 집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켜주는 자이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수고를 결코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전체의 건강을 위해 은사를 받았고, 또 이 일에 기여해야 한다.

▣ “에서”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그를 매우 악한 자로 나타낸다(참조, *주빌리* 25:1,8 및 *Genesis Rabba* 70d,72a).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그 약속에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를 제시한다.

12:17 “축복을” 족장들이 한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다. 이것은 ‘말의 힘’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이 가진 개념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창 1 장 및 사 55:10-12).

▣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이 문맥에서, 이 사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한 후에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을 때 가진 슬픔을 말한다. 저자는 그 사건을 이 서신의 저자들에게 경고로 주고 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시간이 있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보존할 것’에 대해 경고를 준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6:6; 10:26).

특별주제: 회개

회개(믿음과 더불어)는 옛 언약(*나캄*, BDB 636 예, 13:12; 32:12,14; *슈브*, BDB 996 예, 왕상 8:47; 겔 14:6; 18:30)과 새 언약의 언약적 요구이다.

1. 침례(세례)요한(마 3:2; 막 1:4; 눅 3:3,8)
2. 예수(마 4:17; 막 1:15; 눅 5:32; 13:3,5; 15:7; 17:3)
3. 베드로(행 2:38; 3:19; 8:22; 11:18; 벰후 3:9)
4. 바울(행 13:24; 17:30; 20:21; 26:20; 롬 2:4; 고후 2:9-10)

그러나 무엇이 회개인가? 이것은 슬퍼함인가? 이것은 죄를 그치는 것인가? 신약에서 이 개념의 여러 함축적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7:8-11 인데, 이 본문은 다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3 가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슬픔”(κρη, 참조,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이것은 슬픔이나 번민을 뜻하며 신학적으로는 중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2. “회개”(μετανοεω, 참조, 9,10 절). 이것은 “후에”와 “마음”의 합성어로서 새 마음, 생각하는 면에서의 새로움, 삶과 하나님께 대한 새 자세를 뜻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3. “후회”(μεταμέλλομαι, 참조, 8 절[2 회], 10 절). 이것은 “후에”와 “돌봄”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마 27:3 에서 유다에 대해 사용되었고 히 12:16-17 에서 에서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슬퍼함을 뜻한다 회개와 믿음이 언약의 행위로서 요구된다(참조, 막 1:15; 행 2:38,41; 3:16,19; 20:21).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몇 본문이 있다(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응답에 필요한 것으로 이 의미를 나타낸다.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원받은 자는 새 마음과 심령을 받는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 “나를 위해 무엇이 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한다. 회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나 혹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과의 새로운 교제로서 신자가 점차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한다.

▣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창 27:34,38 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12:18-24

¹⁸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¹⁹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²⁰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들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²¹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²²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²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²⁴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12:18-21 이 단락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참조, 출 19:16-25; 신 4:11-14).

▣ “침침함과 흑암” 이것은 아마 신 5:22 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12:19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팔소리와 같았다(참조, 출 19:16,19; 20:18).

▣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시내산에서 나타내신 야웨의 두려운 능력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참조, 출 20:19; 신 5:22-27; 18:16).

12:20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들로 침을 당하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다. 이것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두려운 거룩하심’이 강림하신 것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출 19:12-13).

12:21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신 9:19 의 인용으로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킨다. 랍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를 해석한다.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것은 강한 대조를 나타낸다. 이 믿는 독자들은 시내 산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성인 새 시온 산을 신뢰한다. 갈 4:21-31 에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두 산을 사용하여 같은 종류의 유추를 제시한다(시내 산 대 시온 산).

▣ “시온 산” 저자는 시내 산에서의 첫 언약을 하늘에 있는 새 성과 관련된 새 언약과 대조시킨다(참조, 11:10,16; 13:14; 계 3:12; 21:2,10).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이 이름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 야웨는 항상 살아계시며, 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 2: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12:23 “장자들의 모임” 출 4:22 의 내용을 인해 어떤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구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뜻한다(참조, 11:40). “장자”라는 표현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1. 많은 형제들의(하나님의 형상, 롬 8:29)
2. 모든 피조물의(하나님의 형상, 골 1:15)
3. 죽은 자들의(골 1:18 및 고전 15:20,23[첫 열매])

이 문단에서 새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모든 표현을 주목하여 보라.

1. 시온 산
2.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3.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4. 천사들의 무리

“교회”에 관하여는 2: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장자”에 대하여는 1:6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두 책에 대해 말한다(참조, 단 7:10 및 계 20:12). 한 책은 생명책이다(참조, 출 32:32; 시 69:28; 단 12:1; 눅 10:20; 빌 4:3; 계 3:5; 17:8; 20:12,15; 21:27). 또 한 책은 기억의 책이다(참조, 시 56:8; 139:16; 사 65:6; 말 3:16). 처음 책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책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참조, 계 14:13).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에 속한다.

▣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자주 말한다(참조, 창 18:25; 시 50:6; 96:13; 98:9; 사 2:4; 51:5; 렘 11:20; 렘 3:59; 겔 7:3,27). 오실 메시아도 심판자로 언급된다(참조, 사 11:3-4; 16:5). 성부는 모든 심판을 성자의 손에 맡기셨다(참조, 요 5:22-23,27; 9:39; 행 10:42; 17:31; 딤후 4:1; 벰전 4:5).

▣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로서, “하나님께 의해 온전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가 남아 있음”을 뜻한다. 11:40 에서 볼 때, 이들은 11 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 및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온전하게 된”에 대하여는 10:1 의 설명을 보라.

12:24 “증보자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신 예수께서는 (1) 우리를 위하여 성부 앞에서 계신다 (2) 또 더 나은 언약을 가져 오신다(참조, 7:22; 8:6,9-10; 9:15; 렘 31:31-34; 겔 36:22-36).

▣ “뿌린 피니라”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개시되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였다(참조, 9:19; 10:22; 벰전 1:2).

▣ “더 나은 것을” 7:7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원수갚음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예수의 피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위해 부르짖었다.

개역개정 12:25-29

²⁵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²⁶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²⁷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²⁸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²⁹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2:25 “너희는 삼가”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15 절에서 사용한 단어와는 다른 헬라이어 단어이다. 이같은 경고가 3:12 에 나타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우월성에 비침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이에 대해 적합하게 응답함이 매우 중요하다. 진리를 알되 그에 따라 살지 않는 것에 위험이 따른다(불신자 및 신자 모두에게).

▣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은 두 가지 주요 경고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가정법이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믿음의 저자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더 나은 언약과 더 나은 분을 거부하는 일에 무서운 결과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또 한 번 이 명령의 핵심을 이룬다.

12:26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것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을 가리킨다(참조, 출 19:18-19). 한편, 이것은 70 인역의 학 2:6 을 풀어서 표현한 내용이다. 이 예언은 하늘과 땅이 다시 새롭게 진동할 것에 대해 말하며, 그 일이 새로 있을 포로기 이후의 성전과 관련됨을 제시한다(참조, 학 2:6-9). 이 새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새 성전은 처음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새 성전은 평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12:27 “이 또 한 번이라” 이 세계는 지나가 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의 세계와 매우 비슷하게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조, 벧후 3:10). 하지만 창 3:14,17; 슥 14:11; 계 22:3 에 나오는 바 저주는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 사람, 동물(참조, 사 11:6-9)을 정원을 배경으로 성경이 시작되며(참조, 창 1-2 장) 똑 같은 방법으로 성경이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12:28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것은 새 언약의 영적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마지막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것은 새 언약에 속한 신자들이 가질 적합한 응답을 가리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할데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섬김의 삶을 말한다(참조, 13:15,21; 롬 12:1-2). 우리는 섬김을 위해 곧, 믿음의 가족을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참조, 고전 12:7; 엡 4:12).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상 8:7; 시 10:16; 24:7-9; 29:10; 44:4; 89:18; 95:3 사 43:15; 44:4, 6)과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참조, 시 2:6; 사 9:6-7; 11:1-5)로 여겨졌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 (주전 6-4 년),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권세와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7-35). 침례(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참조, 마 3:2; 막 1:15). 예수님은 자신 안에 또 자신의 가르침 안에 왕국이 임재함을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4:17,23; 9:35; 10:7; 11:11-12; 12:28; 16:19; 막 12:34; 눅 10:9,11; 11:20; 12:31-32; 16:16; 17:21). 그럼에도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8; 24:14; 26:29; 막 9:1; 눅 21:31; 22:16,18).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행을 이룸을 본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주된 주제로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로서 어느 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마 6:10 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구(하늘의 왕국)를 좋아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이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 및 대부분의 비유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구를 단지 두 번만(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 “영생”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은유적 표현이다.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이 이 긴장을 야기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군사적, 재판적, 영광스런 오심—초점을 둔 반면, 신약은 그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와 속 9:9 의 겸손한 왕으로서 처음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대인의 두 세대인 악한 세대와 의의 새 세대가 겹쳐진다. 예수는 지금 신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참조,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 쪽).

12:29 “소멸하는 불” 이것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신 4:24). 우리는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감히 잊어서는 안된다(참조, 10:31). 불은 깨끗게도 하고 정결케도 할 뿐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키기도 한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시며 또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의 심판자이기도 하시다. 우리가 예수께 어떻게 행하며 또 계속하여 어떻게 하는지가 그 여부를 결정짓는다. 믿으라! 견뎌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1장과 12:18-29에 나오는 인물로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을 말하라.
2. 1절은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의 삶을 보고 있음을 가르치는가?
3. 저자가 왜 이 장에서 운동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가?
4. 책 전체와 관련하여 볼 때 이 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5.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가?(10,28 절)

히브리서 1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이어 본문 (UBS ⁴)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13:1-6	결론적으로 하는 도덕적 지시 13:1-6	결론적인 훈계 13:1-6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13:1-3 13:4	마지막 권고 13:1-6
13:7-16	결론적으로 하는 종교적 지시 13:7-17	13:7-16	13:7-9 13:10-16	13:7-16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함
13:17		13:17	13:17	13:17-19
13:18-19	기도를 요청함 13:18-19	개인적 메시지 13:18-19	13:18-19	
축복과 마지막 인사 13:20-21	축복, 마지막 권고, 작별인사 13:20-25	축복 13:20-21	끝맺는 기도 13:20-21	소식, 기원 및 인사 13:20-21
13:22-25		후기 13:22-25	마지막 말 13:22-23 13:24 13:25	13:22-22 13:23-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 (ix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여러 가지 사항이 “가설적인” 역사적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1. 기독교 지도자들
 2. 유대인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
- 나. 이 마지막 장에는 바울의 여러 색체가 나타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6

¹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²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³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⁵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⁶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13:1

NASB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NKJV	“형제 사랑을 계속하자”
NRSV	“친밀한 사랑을 계속하자”
TEV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NJB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NASB 역이 제시하는 것처럼 **가정법이** 아님)으로서 “거하다” 혹은 “계속하다”를 뜻한다. 독자들이 계속하여야 할 내용은 “형제사랑”(필라델피아, 참조, 롬 12:10; 살전 4:9; 벧전 3:8)이다. 그들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참조, 6:10; 10:32-35), 이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 받는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분명한 표이다(참조, 요 13:34-45; 15:12,17; 요일 2:10; 3:11,14,17-24; 4:7-21; 요이 5 절).

여러 가지 단어가 **필로오**와 합성어를 이룬다.

1. 형제 사랑, 1 절
2. 나그네에 대한 사랑, 2 절
3. 돈을 사랑함, 5 절

1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이 단어는 “**필레오**”와 “나그네”의 합성어로서 “나그네를 사랑함”을 말한다.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다. 값이 비싸고 부도덕한 여인숙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순회하는 사역자들을 자기들의 집에 모시도록 요청을 받았다(참조, 마 25:35; 롬 12:13; 딤후전 3:2; 딤후 1:8; 벧전 4:9; 요한이서; 디다케 11:4-6).

▣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것은 창 18 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천사를 만났다(참조, 또한 토빗 4-7 장). 천사들이 기드온(삿 6 장), 마노아(삿 13 장), 룻(창 19 장), 하갈(창 21 장)에게도 나타났다. 이 내용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옛 사람들이 나그네를 돌아보아 축복을 받았듯이 신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13:3 “간힌 자를 생각하고”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그들이 다른 신자들을 도운 것에 대해 언급하는 히 10:32-36 에 비추어 볼 때, 이 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 25:44-45 에서 하신 말씀을 따랐다. 그 신자들이 간힌 이유는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다(참조, 벧전 4:14-15). 그 당시 감옥에 갇히는 일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것은 (1) 박해나 갇히는 일을 당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리킬 수 있다(참조, 고후 12:2, 같은 헬라어 문장이 나옴) 혹은 (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한다(비록 본문에는 헬라어 *관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

13: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기에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직설법**으로 이 문장을 취해 “~이다”를 넣는다면, 이 진술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는 내용이 된다(참조, 고전 7:38, 이 본문은 결혼이 도덕적으로 볼 때 독신보다 못하다고 말함; 혹은 딤후전 4:3). 만일 우리가 **명령법**으로 이 문장을 취해 NASB 의 1 절과 같이 “~이 되게 하라”를 넣는다면, 이 내용은 이교도 문화의 부도덕한 경향에 대항하는 격려의 내용이 된다(두 번째 견해가 4 절에 더 적합하다).

▣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표준이다(참조, 창 1:28; 9:1,7). 이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헬라의 금욕주의적 철학에서는 몸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여, 육체의 필요를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사상이 초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또 지금도 그러하다! “더럽히다”는 용어가 7:26 에서도 사용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적으로 정결하심을 말한다.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 간음에 대해 사용된 용어이다.

성적인 난잡함에 대한 이 경고는 이 책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놀라운 내용이다. 1 세기의 이방인 문화는 성적 착취로 특징되어 나타나지만 유대인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과 수신자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

▣ **“음행하는 자들과”** 구약에서 이 용어는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의 성적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성적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 헬라어에서 “의설물”(pornography)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 **“간음하는 자들을”** 이것은 어느 한 쪽(혹은 양 쪽)이 결혼한 두 사람의 성적관계를 말한다. 성적인 죄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교도의 부도덕한 문화와 예배가 창궐하였기 때문이었다(참조, 갈 5:19-21).

▣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부적절한 성생활에 있음이 롬 1:24-32; 갈 5:19-21; 엡 4:19; 골 3:5; 계 21:8; 22:15 에 나타난다. 한편 고전 5:5 및 딤후전 1:9-11 같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는 신자들에 대해 말한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삶에 있는 부도덕성에 직면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다.

1. 그들이 회개하여야 한다
2. 다른 신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참조, 갈 6:1; 약 5:16,19-20)
3. 신자들은 부도덕한 신자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참조, 고전 5:9-13).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 행복한 결혼생활, 호의를 베풀고, 형제사랑은 1 세기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강력한 증거의 삶이 되고 있다.

13:5
NASB
NKJV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특징이 되게 하기를 분명히 하라”
“탐심 없이 행하라”

NRSV, TEV
NJB

“너희의 삶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탐욕을 너희의 삶에서 내버리라”

여기서도 동사가 없지만 명령을 넣어 번역하였다. 이 명사는 다음의 합성어이다

1. 알파 접두사
2. *필레오*(1 절이후로 세 번째 나오는 *필레오*의 합성어임), 사랑하다
3. 은전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님”을 뜻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이다(참조, 눅 12:15; 16:14; 딤후전 3:3; 6:10,17-19; 딤후 3:2).

▣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이것은 현재 수동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이 행복의 열쇠이다. 이것은 물질과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는 세계관을 나타낸다. 만족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써 그렇게 매일 살아야 할 내용이다(참조, 고후 9:8; 빌 4:11-12; 딤후전 6:6-10).

▣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취한 바, 강조를 나타내는 이중 부정이 있는 느슨한 형태의 인용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하신다(참조, 신 31:6-7; 수 1:5; 대상 28:20; 사 41:10,13,14,17).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 근심해서는 안된다(참조, 마 6:19-34).

13:6 “주는” 이것은 70 인역 시 118:6 의 인용이다. 이같은 진리가 시 56:4,11 에서도 발견된다.

▣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시 118 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임재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강력한 내용이다.

“돕는 이”라는 명사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히 2:18 에서는 동사가 사용됨). 그러나 이 단어는 70 인역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도움을 주시는” 혹은 “나를 구출하기 위해 오시는”을 뜻한다.

▣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놀라운 진리(참조, 시 56:4,11; 118:6)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롬 8:31b 에서 나오며 그것에 대한 실례를 8:32-39 에서 들고 있다.

개역개정 13:7-16

⁷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⁸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⁹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¹⁰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¹¹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¹²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¹³그러즉 우리도 그의 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¹⁴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¹⁵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¹⁶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3:7 “생각하며”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존중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3 절에 있는 단어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으로 섬기는(참조, 3 절) 교회의 지도자들(참조, 7,17,24 절; 살전 5:12-13)을 높여 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17 절과 24 절은 현재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7 절은 복음을 먼저 전해주었으나 지금은 죽은 자들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이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행하는 일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발견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한다. 이를 인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알아주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가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지도자들은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동안 또 죽기까지 신실하였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실된 것임을 증거한다.

▣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진 믿음을 본받으라고 요청한다. 바울은 종종 신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였다(참조, 고전 4:16; 11:1-2; 빌 3:17; 4:9; 살전 1:6; 살후 3:7,9).

13:8 “예수 그리스도는 . . . 동일하시니라” 11 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좋은 본이 되었다; 이전의 지도자들과 현재의 지도자들도 좋은 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모본이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참조, 시 102:26-27, 이 내용이 히 1:12 에서 인용됨). 이같은 신학적 진술이 말 3:6 에서 야웨께 대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도 그러하다.

13:9 “끌리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수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일부 청중이 “뒤로 물러나는” 일을 고려하고 있었다(참조, 2:1; 10:38). 이 수동태는 사탄이나 귀신의 활동을 암시한다.

▣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비슷한 정죄가 골 2:16-23 에서 나타난다.

13 장의 일부는 회당에게 보낸 서신에 바울이 쓴 글을 첨가시킨 것으로 나는 거의 확실히 생각한다. 이 장의 일부(즉, 4-5 절)은 회당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함께 있는 교회에 더 적합한 내용이다.

▣

NASB	“이는 은혜로써 마음이 강건하게 됨이 좋기에”
NKJV	“이는 은혜로써 마음이 세워짐이 좋기에”
NRSV	“이는 은혜로써 마음이 강건하게 됨이 좋기에”
TEV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적 강건함을 받는 것이 좋다”
NJB	“내적 강건함을 위해 은혜에 의지함이 더 좋다”

이것은 현재 수동 부정사이다. 이 청중들은 굳건하게 되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일은 동물이나 음식과 관련된 율법규정을 따라서 드리는 예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즉, 복음, 참조, 7 절).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성부의 불변한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첫 언약의 과정과 약속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죽으심(복음)을 통해 아주 분명히 제시된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과 사랑을 이해하게 된 일은 신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내용이다.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의 지식’ 및 ‘큰 목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강하게 된다. 이 일은 외부적인 의식이나 절차(모세의 옛 언약)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종종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적 주제를 다룬다(3:8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는 구약의 여러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1. 3:8,15; 4:7,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시 95:8)
2. 3:10,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시 95:10)
3. 8:10,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한다”(렘 31:33)

그는 이렇게 한 후에 이러한 진리들을 3:12; 4:12; 10:22에서 정리하여 제시한다.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의지적 면을 나타낸다. 기독교는 타락한 인류의 내적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유대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 “마음” 3: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레 11장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음식규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 버렸다(참조, 마 15:11; 막 7:18-23; 행 10장; 골 2:16-23). 그 규정은 신자들이 구원 받음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참조, 갈 3장; 행 15장).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여전히 “더 약한 형제들”을 의식하여 그들의 약한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참조, 행 15:19-20; 롬 14:1-15:6; 고전 8장; 10:23-33).

13: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유추는 영적(하늘에 있는) 장막을 뜻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제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께서 신자들을 대신하여 행하신 희생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은유적 표현이다.

▣ “떡을 권한이 없나니” 이것은 레 16장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이다.

13:11 “죄를 위한 짐승의...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은 속죄일에 행해진 바 레 16:27에 있는 절차에 대한 암시이다.

13:12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제물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한 랍비적인 언어유희이다. 예수께서는 예수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13:13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이 책 전체의 핵심구절이다.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가정법으로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라는 요소’를 가미하여 어떤 일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함을 말하는 문장이다(이 문장은 “뒤로 물러섬”에 대한 마지막 권고와 경고를 이룬다).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어야 하며, 또 이에 따르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가 당하신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이 절은 회당에 “대피한” 이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대위임을 향해 완전히 나아가갈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참조, 마 28:19-20; 행 1:8).

13:14 “도성” 이것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용하여 천국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11:10,16; 12:22; 요 14:2). 이 같은 종류의 은유적 표현이 11:14에서는 “나라”로 제시되었다.

13:15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은 12 절에서 언급한 이름인 예수를 뜻한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자기 자신의 피로써 드린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케 하셨다. 모든 영적 축복이 그를 통하여 온다!

▣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진 시키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제도에는 5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다.

가. 두 가지 의무적인 제사

1. 속죄제
2. 속건제

나. 세 가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1. 번제
2. 소제(곡식)
3. 화목제

찬송과 감사라는 개념은 마지막에 제시한 세 가지 종류의 제사와 관련이 있다(참조, 레 7:12). 레 1-7 에서는 자세히 이 제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편에서는 찬송의 제사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참조, 시 27:6; 50:14; 69:30; 107:22; 116:17). “찬송의 제사”라는 용어는 70 인역에서 왔다(참조, 레 7:1,3,5; 대하 29:31; 33:16; 시 49:14,23; 106:22).

▣ “입술의 열매” 이 표현은 70 인역의 사 57:19 및 호 14:3 을 반영한다. 포로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사용하여 짐승으로써 드리던 제사를 언어로써 표현하여 드리는 찬송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주전 586 년에 신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성전은 주후 70 년에 로마에 의해 또 다시 파괴되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알 수 없다.

▣

NASB	“그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NKJV	“그의 이름에 감사드리면서”
NRSV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TEV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NJB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그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 28:19-20; 롬 10:9-13) 주님으로(참조, TEV, 이 내용이 빌 2:6-11 에 나옴) 고백함을 뜻한다 (호모로게오).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 명령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참조, 빌 4:18).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함”(코이노니아)은 구제를 의미할 것이다(참조, 마 6:1). 회당의 구성원들이 매주 돈을 기부하여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샀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의로운 행위로 여겼다.

▣ “나누어 주기를”

특별주제: 코이노니아

“교제”(코이노니아)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을 뜻한다

1. 어떤 사람과의 가까운 사귄
 - ㄱ. 성자와(참조, 요일 1:6; 고전 1:9)
 - ㄴ. 성령과(참조, 고후 13:13; 빌 2:1)
 - ㄷ. 성부및 성자와(참조, 요일 1:3)
 - ㄹ. 다른 언약적 형제/자매와(참조, 요일 1:7; 행 2:42; 갈 2:9; 몬 17 절)
2. 어떤 대상 또는 그룹과의 가까운 사귄
 - ㄱ. 복음과(참조, 빌 1:5; 몬 6 절)
 - ㄴ. 그리스도의 피와 (참조, 고전 10:16)
 - ㄷ. 어두움과(참조, 고후 6:14)
 - ㄹ. 고난과(참조, 빌 3:10; 4:14; 뱀전 4:13)
3. 관대함으로 주는 선물 또는 공헌(참조, 롬 12:13; 15:26; 고후 8:4; 9:13; 빌 4:15; 히 13:16)
4.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및 그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인간이 창조주께)에 의해 이루어진 수평적 관계(사람 대 사람)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와 기쁨을 강조한다. 동사의 시제는 이러한 공동체적 경험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그것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참조, 1:3[2 회], 6, 7).
기독교는 공동체적 삶이다!

▣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 절에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제사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두 가지가 동시에 복음이다!

개역개정 13:17

¹⁷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3:17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은 현재 수동(A. T. 로벳슨은 이것을 중간태로 봄) 명령과 현재 능동 명령이다. 비록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우리는 성장과 섬김을 위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만 한다(참조, 7 절; 고전 16:16; 살전 5:12-13).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복종함을 권면하는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권위라도 다 거부하며 개인의 권리와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늘날 더욱 더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셨다(민 16:3-5의 설명을 보라). 우리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 훈련받고 헌신하고 섬김을 인해 그들을 존경한다. 한편, 정반대쪽 “면”을 보아야 한다. 어떤 권위주의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남용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사이에 친밀한 존경심,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되도록 균형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 서로 복종하도록 모든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엡 5:21).

▣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용어는 “깨어 있음,” “방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참조, 막 13:33; 눅 21:36; 엡 6:18). 이것은 부지런히 깨어 있어 섬김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사 62:6; 겔 3:17; 33:7-9).

▣ “자신들이 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역에 책임을 지며 또 하나님께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다(참조, 고전 3:10-15). 그들은 청지기들이다!

▣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회중들의 태도가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사역의 과정이 즐겁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한다.

개역개정 13:18-19

¹⁸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¹⁹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3: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 및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참조, 엡 6:18-19; 빌 4:6; 살전 5:25; 딤후 2:1-2,8). 여기서 복수형은 디모데를 포함한 사역자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23 절).

▣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세와 삶이 기초를 이룬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다(참조, 9:9,14; 10:2,22; 13:18). 예수께서 속량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의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및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없애 주시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확신으로써 채워주셨다!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은 구원의 투구이다(참조, 엡 6:17; 살전 5:8).

어떤 주석가들은 이 절이 저자에게 대해 있었던 어떤 종류의 비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린도전서 및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난 바울의 상황과의 유사점).

13:19 이것은 수수께끼 같은 절이다. 저자가 돌아오는 일이 어쨌건 그들의 기도와 관련을 가졌다. 이 내용은 바울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하다(참조, 문 22 절). 기도는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주석가들(예, H. E. 다나, *유대적 기독교*, 268 쪽)은 이 내용이 저자의 질병이나 투옥을 가리킨다고 추측한다(“곧”이라는 용어가 23 절에서 디모데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개역개정 13:20-21

²⁰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²¹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20 “평강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호칭은 이곳과 바울서신에서만 나온다(참조, 롬 15:33; 16:20; 고전 14:33; 고후 13:11; 빌 4:9; 살전 5:23; “평강의 주님” 살후 3:16).

▣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신약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설명한다(참조, 행 2:24; 3:15; 4:10; 5:30; 10:40; 13:30,33,34,37; 17:31; 롬 6:4,9; 10:9; 고전 6:14; 고후 4:14; 갈 1:1; 엡 1:20; 골 2:12; 살전 1:10). 이 진술은 성부께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제사를 받으심을 나타낸다. 한편, 성령(참조, 롬 8:11) 혹은 성자 자신(참조, 요 2:19-22;

10:17-18)에 의해 부활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본문이 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모두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 “양들의 큰 목자이신” “목자”라는 용어는 다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1. 야웨(참조, 창 49:24; 시 23:1; 78:52; 80:1; 전 12:11; 사 40:11; 63:11; 렘 31:10; 겔 34 장)
2.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참조, 렘 10:21; 50:6-7; 겔 34:2-3; 슥 11:3,5,15,17)
3. 오실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참조, 시 78:70-72; 겔 34:23-24; 37:24; 미 5:4; 7:14; 슥 13:7; 요 10:2,11,14; 뱀전 2:25; 5:4)

구약에서는 여러 번(참조, 민 27:17; 왕상 22:17; 대하 18:16; 겔 34:5; 슥 10:2)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 없이 흩어진 자들’로 나타내었는데, 이제 큰 목자께서 오셨다. 그는 우리를 구해내셨으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

▣ “피로” 이것은 새 언약을 시작하시기 위해 주신 그의 생명을 가리킨다(참조, 슥 9:11; 막 14:24; 고전 11:25).

▣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서로 구별하여 내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드러내듯이 모세의 언약이 인간의 언약함을 인해 영원하지 않고 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구약은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을 제시한다(즉, 출애굽기, 창 15:16-21).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곧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은 무조건적(즉, 영속적인 언약)인, 따라서 영원한 언약이다(참조, 창 17:7,13,19; 시 105:9-10).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삼하 7 장에서 처음 제시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따라서 영원한 언약이다(참조, 시 89:3-4). 새 언약은 ‘약속된 의의 새 날’(성령의 새 시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을 나타낸다(참조, 사 55:3; 59:21; 61:8; 렘 31:33; 32:40; 50:5; 겔 16:60; 37:26).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항상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가 아닌 ‘구원의 다른 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참조, 갈 3 장). 6:2의 특별주제: 영원한을 보라.

특별주제: 영원히(올람)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단지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을 뜻하는 과장법,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께서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램 10:10
- (7) 단 12:7
- ㄱ.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램 32:40; 50:5
- ㄴ. 다윗과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ㄷ.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ㄹ.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5) 사 59:21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ㅊ.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에 따른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트.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프. 시편에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으로 말하는 내용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 3. 시간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있는 것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와의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인 내용이다(즉, 램 7 장). 이렇듯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 신학을 사용하여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다루려는 태도에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한다.

13:21

NASB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너희가 준비되게 하사”
NKJV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NRSV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TEV	“너희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공급하사”
NJB	“모든 선한 행동에 . . . 너희를 준비하사”

이 동사(카타리조, 드물게 사용된 부정과거 능동 회귀법, 이 법은 소망이나 원함을 나타냄)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이 온전히 적절하고 충족하게 됨이나 완전히 자격을 갖추게 됨을 뜻한다(참조, 눅 6:40; 고전 1:10; 고후 13:11; 살전 3:10; 벧전 5:10). 신학적으로 이 내용은 엡 2:10 과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이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참조, 롬 8:29) 경건한 삶이다. 이러한 삶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고난받는 중으로 오사 성부의 뜻을 이루셨다(참조, 10:7).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참조, 10:36).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벨레마)

요한복음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참조, 4:34; 5:30; 6:3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것(참조, 6:39)
- 아들을 믿는 모든 자(참조, 6:29,40)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응답받는 기도(참조, 9:31; 요일 5:14)

공관복음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마 7:21)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참조, 마 12:5; 막 3:35)
- 어떤 것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마 18:14; 딤후 2:4; 벡후 3:9)
- 갈보리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마 26:42; 눅 22:42)

바울서신

- 모든 믿는 자들의 성숙과 봉사(참조, 롬 12:1-2)
-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참조, 1:4)
- 하나님의 뜻은 그의 구속 계획이었다(참조, 엡 1:5,9,11)
- 성령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사는 믿는 자들(참조, 엡 5:17)
-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믿는 자들(참조, 골 1:9)
-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골 4:12)
- 거룩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살전 4:3)
-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는 자들(참조, 살전 5:18)

베드로 서신

- 옳은 것을 행하는 믿는 자들(즉,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 따라서 잠잠한 어리석은 자들, 이들은 복음전도의 기회를 제공한다(참조, 벡전 2:15)
- 고통 받는 믿는 자들(참조, 벡전 3:17; 4:19)
-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믿는 자들(참조, 벡전 4:2)

요한서신

-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2:17)
-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5:14)

▣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구가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에서 아주 자주 나오기에 애매함을 갖는다. 이 구가 어떤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참조, 롬 11:36; 엡 3:21; 벡전 4:11; 5:11; 유 25 절; 계 1:6; 7:12). 어떤 경우에는 이 구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지만(참조, 딤후 4:18; 벡후 3:18), 어떤 경우에는 두 쪽을 다 가리킨다(참조, 롬 16:27; 딤후 1:17; 계 5:13 및 이곳). 신약의 저자들은 종종 같은 호칭, 같은 행위, 같은 구를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 두 쪽을 다 지칭함으로써 나사렛 예수의 신성 및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표현한다.

▣ “아멘” 이것은 “확실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다. 이 단어는 신실함, 의지할 수 있음,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발전되었다(참조, 합 2:4). 이 단어는 어떠한 특별한 진술을 “내가 확증한다” 혹은 “내가 동의한다”라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아멘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1. “진리”(에메쓰, BDB 49)
 2. “진실성”(에문, 에무나, BDB 53)
 3. “믿음” 또는 “신실함”
 4. “신뢰”(아만,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렘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1. 기둥, 왕하 18:16(딤펴전 3:15)
 2. 확신, 출 17:12
 3. 견실함, 출 17:12
 4. 안정성, 사 33:6; 34:5-7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 *바타*(BDB 105), 신뢰
 2. *야라*(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펴전 1:17; 6:16; 딤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정 13:22-24

²²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²³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²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22-24 끝맺는 부분인 22-24 절은 바울이 서기관이 대필한 자신의 편지를 끝마치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는 펜을 들고 자신의 편지에 개인적 사향과 축복의 말을 몇 가지 적어 넣었다.

13: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자는 자신의 책을 “권면의 말”로 부른다. 그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종종 권면하였다(참조, 3:13; 10:25; 12:15; 13:15,22).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며, 예수를 따라야 하며 또 예수를 섬겨야만 한다!

▣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주어의 관여를 강조하며 계속하여 듣기를 명하는 말이다. “권면의 말”이란 구는 행 13:15 에서 회당에서 행한 설교를 나타낸다. 많은 이들은 히브리서가 원래 권면의 말(설교)이었는데 후에 서신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3:23 “형제 디모데”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온다(참조, 롬 16:23; 고전 1:1; 16:12; 고후 1:1; 2:13; 빌 2:25). 이러한 용법은 바울의 저작설을 반대하는 핵심적 증거가 된다. 디모데에 대한 언급은 이 책이 쓰여진 시기로서 바울이 살아 있던 때 혹은 그가 죽은 직후(주후 68 년, 아직 디모데가 죽지 않은 시기)의 기간을 제시한다.

▣ “놓인 것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우리는 성경이나 다른 자료에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던 것을 모른다. A. T. 로벗슨은 *신약의 워드 픽처*(451 쪽)에서 디모데가 딤후 4:11,21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바울을 방문하였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놓인 것”(완료 수동 분사)은 (1) 마 27:15; 요 19:10; 행 3:13; 4:21,23; 5:40 에서 감옥에서 풀려남을 가리키고 (2) 행 13:3 에서는 사역적 과제를 수행함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디모데와 함께 일하고 여행하였음을 암시한다.

13:24 “성도들” 6: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는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저자가 이탈리아에 있다
2. 저자가 이탈리아에서 오다
3. 저자의 선교팀 가운데 일부가 이탈리아에서 왔다
4. 저자가 이탈리아로 편지를 쓰고 있다

H. A. 다나는 *유대적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절은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유대파들에게 쓰여진 것임을 암시한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주후 97 년에 한 말이 히브리서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270 쪽). 한편, 나는 이것이 신자들이 구성원을 이룬 어떤 유대인의 회당(아마도 로마)에 보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경고가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다: 믿는 유대인 그룹(6 장에 나오는 “너희”)에게는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참조, 10:38) 경고하며, 믿지 않는 그룹(6 장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할 것에 대해 말하며, 동시에 두 그룹 모두 기독교를 온전히 붙들라고 권면한다.

개역개정 13:25

²⁵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3장에서 히브리서가 분명히 편지로 보이는데, 이 책에 왜 인사말이 없는가?
2. 13장은 유대인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인가?
3. 왜 이 장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4. 왜 23절이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와 관련을 가지는가?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이었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페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므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엡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ὑπο*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δια*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ἐκ*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유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범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 라. 희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희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어를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 나. 여기에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 ㄱ. *에피, 에페이테, 호포테, 호스, 호테, 호탄* (주어) - “언제”
 -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 ㄷ. *호탄, 에판* (주어) - “언제나”
 -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 (주어) - “까지”
 - ㅁ. *프리브* (부정사) - “이전에”
 -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 ㄱ. 목적
 - (1) *히나*(주어), *호포스* (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 (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2) *히나*(주어) - “그 결과”
 - (3) *아라* - “그래서”
 - ㄷ. 원인 또는 이유
 - (1) *가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 (3) *에페이, 에페이테, 호스* - “때문에”
 - (4) *디아*(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 ㄹ. 추론의
 -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 (4) *토이눈* - “따라서”
 - ㅁ. 부사적 또는 대조
 -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 (3) *카이* - “그러나”
 - (4) *멘토이, 운* - “그러나”
 -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 (6) *운* - “그렇지만”
 - ㅂ. 비교
 -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 (2) *카타*(합성어에서, *카소, 카소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 (4) 호스태(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5) 예 - “보다”
- ㅅ. 계속 또는 시리즈
 - (1) 테 - “그리고,” “지금”
 - (2) 카이 - “그리고”
 - (3) 테이 - “그리고”
 - (4) 히나, 운 - “그래서”
 -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 3. 강조적 용법
 -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 ㄷ. 가르 -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 ㄹ. 데 - “정말”
 - ㅁ. 예안 - “조차”
 -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 ㅅ. 멘토이 - “정말”
 - ㅇ. 운 - “정말,” “결단코”

VII. 조건절

-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갈 1:10).
-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벰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VIII. 금지

-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꺾쇠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 나. 부정과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때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XI. 관사

-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에 초점이 있다.
-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 ㄱ. 연결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보충어
 - ㄴ. 타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목적어
 - (4) 간접 목적어

- (5) 전치사 구
- ㄷ. 명사 구에서
 - (1) 명사
 - (2) 수식어
 - (3) 전치사 구
-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 ㄴ. 요 14:1(새 주제)
 - ㄷ. 롬 1:1(새 단락)
 -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 ㄷ. 수사법
 -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 (3) 의인화(고전 15:55).
 - (4) 모순(갈 5:12).
 - (5) 시적 본문(빌 2:6-11).
 -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 ㄱ) “교회”
 - 1) “교회”(엡 3:21)
 - 2) “부르심”(엡 4:1, 4)
 -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 ㄴ) “자유로운”
 - 1) “자유한 여인”(갈 4:31)
 - 2) “자유”(갈 5:1)
 - 3) “자유한”(갈 5:1)
 -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 마. 헬라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이어/한국어 행간 성경.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엄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개 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 ㄱ. 1901년판 *미국표준역*
 -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리아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귀절이 있다.

부록 2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 나. 신약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부호, 악센트, 난외주, 쉼표, 본문비평 각주는 6 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 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굼, 페쉬타, 벌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 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 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 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 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그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너를 인해 당황하게 되듯이.”
 - (3) 사 52:15 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 ㄴ)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흠을 것이다”
 -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사 21:8 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 (2) 사 21:8 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 . 계속해서 파수대 위에서 있습니다.”
 -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 을 명확하게 한다
 -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되거나, 그는 만족하게 된다”
 -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 .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나. 신약

1. 5,300 개가 넘는 헬라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 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 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인설)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 세기 경부터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700 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배에 쓰인 대략 2,100 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א**(알레프)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센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인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흠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 (1) P⁷⁵, P⁶⁶(주후 200 경), 복음서
 - (2) P⁴⁶(주후 225 경), 바울서신
 - (3) P⁷²(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 (5) 오리젠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 **א**, C, L, W, 33
 -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아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 (2) 이레니우스의 인용
 -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 ㄷ.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 (2) 시리아 안디옥의 교부인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데오오렛의 인용
 - (3) C 사본, 복음서만
 -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본문”이다
 -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 (2) P⁴⁵와 W가 이에 속한다.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의 이론과 문제점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 (2) 헬라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ㄷ. 이른 시기의 헬라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른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채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 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 ㄴ.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절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테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에서도 명백히 “삼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붙이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2. 브루스 메츠거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승, 개약, 회복*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부록 3

사도시대에 속하는 랍비들의 해석학 및 그 해석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

- I. 성경을 반드시 그 자체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 가.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성경본문을 해석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좋은 예는 약간 다르게 기록된 십계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출 20 장은 유목적 회중을 대상으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다
 2. 신 5 장은 같은 계시의 진리를 정착한 회중에게 적합하게 모세가 제시하는 내용이다
- 나. 왕하 22 장에는 요시야의 지도력에 의해 성전을 개조하고 보수한 기록이 나온다. 힐기야는 율법서의 사본을 발견하였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 다. 이전의 계시를 새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연결시킨 또 다른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온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사 36 장)을 사용하되 ‘달라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다(참조, 렘 23-28 장).
- 라. 해석학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의 예는 에스라가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하고 또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성경의 의미를 해석한 경우이다(참조, 느 8:8).
- 마. 포로기 이후부터 서기관직이 생겼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제사장들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제사가 아니라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서기관들은 신바벨론제국의 상황에 맞게 옛 율법을 해석할 필요를 느꼈다.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 ‘대회당’으로 알려진 서기관들의 공식 모임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오스본의 미간행물, 4 쪽).
- II. 해석 원리의 기본적 필요성
- 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내용은 상당히 모호하다. 인간이 들을 수 있게 의사소통을 할 때조차도 때때로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성경을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 나. 해석학은 원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인간의 논리와 문법적 규칙을 기록된 본문에 적용하는 시도이다.

다. 사도들의 시대에 영향을 준 독특한 방법론이 유대교 안에서 시작되었다.

1. *페살* - 본문에 있는 단어의 분명하고 명백한 의미
2. *레메즈* - 본문의 어떤 내용에 기초한 우화적 의미(암시)
3. *데라쉬* - 비교나 예화를 사용한 은유적 의미(설교)
4. *손* - 비밀스런 지식에 근거한 감추인 의미(카발라)

III. 랍비들이 사용한 해석학의 발전

가. 바벨론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고대의 성경(특히, 오경)을 당시에 맞게 해석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났다.

1. 오경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했다.
 - ㄱ. *페살*으로 불린 문자적 해석법
 - ㄴ. *미드라쉬*로 불린 다양한 방법으로써 고대의 본문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시도
2. 구전으로 불린 “생울타리”라는 개념이 오경에 대하여 발전되었다. 시내 산에서 구두로 모세에게 구전을 주신 것이라고 말해졌다(미슈아 아볼 1.1). 이 내용은 후에 바벨론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탈무드(후자는 결코 완성되지 못함)로 경전화되었다. 이러한 문서는 토라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 행해진 것이었다.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 권위있는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는 일은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종종 사용되었다.

나. 쌍벽을 이루는 학파

1.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그룹이 형성되었다(즉,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 이 학파들은 토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토론하는 대화방법을 추구했다(길버트, 7 쪽). 이 학파들은 서로 반대쪽에서 본문에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한 학파는 분명한 의미를 추구하고 다른 학파는 설교적 교훈(비교와 예증)을 추구했다.
2. 이 학파들은 토라를 해석하는 원리로서 미드라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할라킵 본문). 이들은 성경 자체를 다루려고 했지만, 대개의 경우 각 본문에 감추인 의미(*손*)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이 방법은 고대의 본문을 그들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전에 성경을 사용하여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게 해주었다.
3. 랍비들의 해석학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지침이 있었다.
 - ㄱ. 토라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
 - 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신 27-28 장)
 - ㄷ.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할 지침

다. 초기의 몇 가지 방법론

1. 탈군으로 불린 히브리 본문의 아람어역(길버트, 16-17 쪽; 오스본, 5 쪽; 파테, 55-58 쪽):
 - ㄱ. 번역을 위한 분명한 지침들은 다음과 같았다

- (1) 애매한 것을 명료하게 하기
 - (2) 모순되는 것을 조화시키기
 - (3) 예언의 내용을 밝히기
 - (4) 신인동형적 표현을 명확히 하기
- ㄴ. 번역을 위한 분명한 원리들은 다음과 같았다(파테, 65-81)
- (1)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수, 철학적 다양성 등)
 - (2) 성경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
 - (3) 역사를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큰 사건들(아브라함을 부르심, 출애굽, 회막/성전, 포로됨, 새 시대)을 망원경적으로 다루었다. 이 방법은 해석할 본문에서 역사적 요소를 제거시켰다.
 - (4) 강조점을 신학적 진리가 아니라 본문의 모든 요소가 가지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적용에 두었다.
2.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은 구전 전통을 거부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구전 전통을 중시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 영역과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도 거부했다. 이 그룹은 주후 70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시 절정에 이르렀던 유대인의 반란과 더불어 사라졌다. 그들이 사용한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파테, 125-128 쪽):
- ㄱ. 성경을 언약의 약속과 저주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신 27-28 장).
 - ㄴ. 영감된 성경은 오경(창세기-신명기)으로 끝나쳐졌다
 - ㄷ.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해석은 매우 실용적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알기 원했다.
 - ㄹ.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의 해석학은 단지 그들의 종교적 생활에만 영향을 미쳤다.
 - ㅁ. 언약에 대한 이러한 강조가 “의의 선생”으로 불리는 에센파의 분리주의적 종교 운동에서 그들과 관계없이 발전된 점이 흥미롭다.
3. 에센파 혹은 콤란의 해석학적 방법
- ㄱ. 이들의 방법은 모든 예언의 내용을 그들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려는 시도였다(페쉴르). 그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규범적인 제도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선택된 공동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 ㄴ. 그들의 해석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브라운리, 60-62):
- (1) 고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이 종말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
 - (2) 고대 선지자들이 난해하게 기록하였기에, 그 예언의 내용은 특별히 오실 선생에 의해서만 분명해진다
 - (3) 고대 예언서의 의미는 그들이 쓴 본문의 서로 다른 사본에서 알 수 있다(본문적 차이나 정자법적 차이)
 - (4) 본문적 변이도 해석에 힌트를 제공한다
 - (5) 다른 절에 나오는 비슷한 상황에 근거하여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
 - (6) 우화적 방법에 근거하여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

- (7) 고대 예언서의 의미를 각 용어들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정의나 어원적 의미에 의해 추론할 수 있다
 - (8) 때때로 참된 의미가 감추어져 있기에, 동의어에서 유래한 한 가지 의미만 사용한다
 - (9) 때때로 히브리 단어의 자음 순서를 재조정하여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10) 때때로 히브리 단어와 비슷한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대치하여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11) 때때로 한 단어를 두 단어로 나눈 다음 그 각 부분의 의미를 해석하여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12) 때때로 고대 선지자들이 축약적 방법을 사용하여 참 의미를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축약적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 (13) 종종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다
4. 독특한 해석학적 방법을 처음으로 저술한 사람은 바벨론의 장로였던 힐렐이었다 (주전 30년-주후 9년). 힐렐은 자신과 쌍벽을 이루었던 학파에 비하여 볼 때 상당히 자유주의적 해석을 한 사람이었다. 삼마이는 그와 반대 입장을 취했다(롱벡커, 6 쪽). 힐렐이 사용한 유명한 원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다’는 원리였다(스트랙, 94 쪽).
- ㄱ. 그들에 대한 기록은 아불, 데 랍, 나탄 XXXVII 및 토셉프타 산헤드린 c 7 (탈무드)에 나온다:
 - (1) “가볍고 무거운” - 이것은 기본적으로 더 작은 진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함을 뜻한다
 - (2) 유추의 영향 - 이것은 비슷한 어구나 어휘에 근거하여 두 본문을 서로 연결시켜 해석함을 뜻한다
 - (3) 한 가지 핵심적 본문에 기초하여 여러 본문을 해석하기
 - (4) 두 가지 핵심적 본문에 기초하여 여러 본문을 해석하기
 - (5) 일반적 원리에서 출발하여 특별한 경우로 가거나 혹은 그 반대 방법
 - (6) 서로 모순적으로 보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두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 3의 본문을 사용하기
 - (7) 일반적 문맥을 사용하여 본문의 한 절을 해석하기
 - ㄴ. 본문에 대한 이러한 자동적인 접근 방법을 이스마엘과 라쉬가 더욱 발전시켰다 (파랄, 67 쪽).
5. 필로는 뛰어난 유대인 우화주의자였다(즉, 신플라톤주의자, 주전 20년-주후 54년?)
- ㄱ. 필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 철학자였다. 그는 초기의 우화주의자였던 아리스토틔레스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자신의 철학적 체계에 들어 맞도록 하기 위해 신플라톤주의 및 스토이즘에 기초한 우화적 방법 및 비역사적 해석법을 사용하였다(그란트, 52 쪽; 파랄, 22 쪽).

- ㄴ. 필로의 해석법은 기존에 유대교에서 사용한 **손으로 불리는 기교**를 따랐다. 본문의 감추인 의미를 추구하는 이 기교는 **에센 공동체**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언어유희
 - (2) 게마트리아(수자)
 - (3) 유추
 - ㄷ. 그가 사용한 원리들은 그가 쓴 “Quod Deus Immutabilis, II 및 De Sommiss, 1:40 에서 추론할 수 있다(파탈, 22-23 쪽, 149-151; 미켈센, 29 쪽)
 - (1) 진술이 하나님께 대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우화화한다
 - (2) 모순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우화화한다
 - (3) 우화임이 분명할 때에는 우화화한다
 - (4) 표현이나 단어가 중복되어 나타날 때에는 우화화한다
 - (5) 문장에 너무 많은 용어가 사용된 때에는 우화화한다
 - (6) 알려진 사실이 반복된 때에는 우화화한다
 - (7) 다양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우화화한다
 - (8) 동의어가 사용될 때에는 우화화한다
 - (9) 언어유희일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우화화한다
 - (10) 어떤 단어의 철자를 약간 바꿀 수 있을 경우에는 우화화한다
 - (11) 문법적으로 성, 수, 시제가 조금이라도 일반적 용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우화화한다
6. 랍비 이스마엘(주후 60-121 년)은 시프라(서론)에서 13 가지 유명한 원리를 제시한다:
- ㄱ. 이것은 힐렐이 제시한 일곱 가지 원리를 확장시킨 내용이다. 이스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은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베라칼, 31b
 - ㄴ. 그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 (1) 작은 전제에서 큰 전제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 (2) 여러 본문에서 사용한 유사한 단어나 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3) 한 본문에서 발견한 어떤 일반적 원리를 관련이 있는 모든 본문에 적용시킨다
 - (4) 일반화시킨 본문을 특별화시킨 경우에는 특별화시킨 것만 적용한다
 - (5) 특별화시킨 본문을 일반화시킨 경우에는 일반화시킨 내용에서 암시하는 모든 면을 적용한다
 - (6) 먼저 일반화시킨 후 특별화시킨 본문을 다시 일반화시킨 경우에는, 특별화시킨 내용이 암시하는 바에 따라야만 한다
 - (7) 명확성을 위해 일반화 과정이 특별화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특별화 과정이 일반화를 요구하는 경우일 때, 4 항과 5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8) ‘일반화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중에 특별화될 때, 그 내용 자체를 인하여서만 아니라 일반화에서 암시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부가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 (9) ‘일반적 법에서 가장 먼저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 법에 유사한 조항들을 뜻하는 것으로 나중에 특별화될 때, 그 조항의 엄격함을 가중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특별화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 (10) ‘일반적 법에서 가장 먼저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 법에 유사하지 않은 조항들을 추가시키기 위해 나중에 특별화될 때, 어떤 면에서 그 특별한 조항의 엄격함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그 엄격함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특별화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 (11) ‘일반화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새로운 내용을 결정짓게 하기 위해 나중에 특별화될 때, 그 일반적 법의 용어가 성경에 명백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그 용어들을 성경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 (12) 불명료한 단어나 본문을 문맥 혹은 이어 나오는 표현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
- (13) 만일 성경의 두 본문이 서로 모순을 이룰 경우에는 다른 본문을 사용하여 조화시켜야 한다(야콥스, 367-369 쪽)

7. 랍비 엘리에셀 벤 요세 하-겔릴리(주후 130-160 년)

- ㄱ. 랍비 이스마엘의 원리들은 토라에 대해 사용되었고, 랍비 엘리에셀의 원리들은 구약의 다른 부분(학가드 본문)에 대해 사용되었다
- ㄴ. 이러한 원리들은 설교, 이야기, 전승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 원리들을 아불와리드 이븐 고라가 처음으로 인용했다. 후에는 치논의 삼손이 세페르 크리틀에 이 원리들을 포함시켰다
- ㄷ. 32 개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스타, 96-98 쪽):
 - (1) ‘아프,’ ‘감,’ ‘엘’이라는 불변사는 내포(inclusion)를 나타낸다
 - (2) ‘악,’ ‘락,’ ‘민’이라는 불변사는 제한, 배제, 감소를 나타낸다
 - (3) 위의 두 항에 나오는 불변사 가운데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추가된 내용을 나타낸다
 - (4) 만일 제한 또는 배제를 나타내는 두 개의 불변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확대를 나타낸다
 - (5) 명백한 추론, a minori ad maius 및 그 반대의 경우(힐렐의 11 항)
 - (6) 그러한 추론이 추측에 지나지 않을 때
 - (7) 힐렐의 2 항과 같음
 - (8) 힐렐의 3 항과 같음
 - (9) 축약이나 생략된 표현은 제거된 용어의 추가를 요한다
 - (10) 반복적 표현은 강조를 나타낸다
 - (11) ‘숲 과숙’ 혹은 분리적 액센트에 의해 끊어지는 문맥을 다른 본문에 연결시킬 수 있다
 - (12) 비교를 위해 제시된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본문에 준다(힐렐의 7 항과 같음)
 - (13) 일반적 진술에 어떤 행동이 이어질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 진술의 특별한 예가 된다(힐렐의 5 항과 같다)

- (14) 어떤 중요한 내용이 사소한 내용과 비교될 경우에, 보다 분명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할라카에 적용할 사항이 아님)
- (15) 이스마엘의 13 항과 같음
- (16) 어떤 표현의 의미있는 용법
- (17) 주된 본문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 환경적 배경이 다른 본문에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오경에 속하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오경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다(참조, 창 2:8의 내용을 겔 28:13으로써 보충함)
- (18) 어떤 모형의 한 가지 부분만 특별히 언급하지만 그 모형 전체를 의미한다
- (19)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진술을 하지만, 그 진술은 다른 주제에 대하여도 진리이다
- (20) 어떤 진술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본문에 들어맞지 않을 때, 이것은 다른 본문에도 적합한 진술이 되게 하며 또 그 진술이 속한 본문에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 (21) 어떤 것을 두 가지 사실과 비교하여 보아 둘 가운데 더 적절한 내용을 취한다
- (22) 명제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을 이와 평행을 이루는 명제에서 발견한다
- (23) 명제는 평행을 이루는 명제를 보충하게 돕는다
- (24) 명제들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오직 학가딕(haggadic) 해석에만 적용된다
- (25) 이스마엘의 8 항을 개정한 내용임
- (26) 비유의 사용
- (27)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를 고려에 넣음
- (28)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나 혹은 비슷한 음을 갖는 단어에 의한 언어유희는 그것이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 (29) 게마트리아
 - (ㄱ) 각 자음이 나타내는 수를 계산함
 - (ㄴ) 어떤 자음 대신에 비밀스런 자음을 대신 넣기
- (30) 노트리콘, 이것은 한 단어를 두 개의 단어 혹은 더 작은 수의 단어로 쪼개는 것을 뜻하며, 또한 어떤 한 자음이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많은 단어들을 나타내도록(acrostic 과 비슷함)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 (31) 두 번째에 위치하지만 더 앞선 시기에 속하는 것들
- (32) 성경의 많은 본문은 그 앞에 있는 본문보다 더 후기에 속한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IV. 랍비들이 사용한 방법에 대한 평가

가. 장점

1. 그들이 해석의 표준화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2. 그들이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3. 그들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추구했다
4. 그들이 해석의 도구로써 문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나. 단점

1. 논리적이며 건전한 일부 원리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극단적인 성격의 원리들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들이 본문에 보다 관심을 두었으나, 원 저자가 나타내는 분명한 의미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였다
3. 그들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철저히 무시하였다(길버트, 14 쪽)
4. 그들은 종종 본문의 주요 진리를 놓쳤고 사소한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5. 그들은 모세의 글을 중요하게 다룬 나머지, 성경의 다른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길버트, 20 쪽)
6. 그들은 구전 전통을 성경에 동등한 것으로 놓았다
7. 그들은 우화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즉, 카발라) 본문을 다루었다
 - ㄱ. 노트리콘 (히브리 단어의 처음 자음 혹은 마지막 자음이 자음 순서대로 되게 함)
 - ㄴ. 게마트리아 (각 히브리 단어가 나타내는 수의 합계와 같은 수의 값을 가지는 다른 단어를 본문에 대신 집어 넣기)
 - ㄷ. 파로노마시아 (같은 소리를 가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본문을 대치하기)
 - ㄹ. 테무라 (본문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도록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기)

V. 그들의 해석학이 초대 교회에 미친 영향

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파라프, 11,12 쪽)

1.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취한 기독교의 우화적 해석은 필로 및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2.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해석학의 네 가지 방법을 이루었다. 그 방법들은 중세를 거쳐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나. 알렉산드리아의 우화화에 반발하여 더욱 본문을 중시하는 방법이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본문중심적 접근법이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가진 원리들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접근법에 대한 반작용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결코 힐렐의 원리를 전폭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음에도, 힐렐이 정착시킨 어떤 원리들은 고대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추론을 제공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1. 문맥이 의미를 밝힌다
2.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3.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사용하기
4.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본문을 찾는 시도

다. 중세기 유럽의 유대인 석의가들(김히 및 라쉬같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한편, 리라의 니콜리스처럼 그들도 종교개혁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간단히 언급해야만 하겠다.

참고도서

- 벌코프, L. *성경 해석 원리*.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50.
- 브라운리, W. H. “사해사본 서기관들의 성경해석.” *Biblical Archaeology* 14(1951): 60-62.
- 크림, 카이스 편. *해석가의 성경 사전*. 내쉬빌: 아빙돈. “해석학.” J. A. 샌더스.
- 파탈, 프레데릭 W. *해석 역사*. 맥밀란, 1886.
- 그란트, 로버트 M. 데이빗 트레이시. *성경 해석의 간략한 역사*. 필라델피아: 포트레스 출판사, 1984.
- 길버트, 조지 홀리. *성경 해석의 간략한 역사*. 맥밀란, 1908.
- 카이저, 왈터 C. Jr. *석의 신학에 대하여*.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81.
- 나이트, 더글라스 A., 투커, 진 M. *히브리 성경과 현대의 해석가들*. 치코, 1985.
- 나이트, 로버트 A. 니켈스벽, 조지 W. E. *초기의 유대교와 현대의 해석가들*. 아틀란타, 1986.
- 롱벡커, 리차드 N. “우리가 신약의 석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틴델 불레틴* 28 (1968).
- 미켈센, A. 벌켈리. *성경을 해석하기*. 그랜드 래피즈: 어드맨, 1963.
- 무어, 조지 폴. *제 1 세기 기독교에서의 유대교*. 뉴욕: 속켄 출판사, 1971.
- 오스본, 그란트. “해석학.” *디어필드*, 일리노이: 트리니티 복음 신학교. 사진본.
- 파테, 다니엘.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초기 해석학*. 성경 문학 및 학자의 학회(SBL) 출판사, 1975.
- 프라이스, 제임스 L. *신약을 해석하기*. 홀트, 리네할트 및 윈스톤, Inc., 1961.
- 램, 버나드. *개신교의 성경 해석*. 그랜드 래피즈: 베이커, 1970.
- 롯, 세실 편. *유대 백과사전*. 예루살렘: 케털. “해석학,” 루이스 제이콥스.
- 스트락, 헤르만, L. *탈무드와 미드라시 개론*. 필라델피아: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1931.
- 테리, 밀톤. *성경 해석학*. 그랜드 래피즈: 존더반, 1974.
- 와인그린, J. *성경에서 미쉬나까지*. 맨체스터 대학 출판사, 1976

부록 4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호와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